

# 지역 특성화 전략 마련을 위한 기초 연구 : 세종

## - 시민의 일상생활과 장소인식을 중심으로 -

A Regional Strategy Study on Sejong  
- focused on Daily Life and Sense of Place for Citizens -

건축문화자산센터  
Architectural Culture and Asset Center

(auri

## 일반연구보고서-2019-6

지역 특성화 전략 마련을 위한 기초 연구 : 세종

- 시민의 일상생활과 장소인식을 중심으로 -

A Regional Strategy Study on Sejong

- focused on Daily Life and Sense of Place for Citizens -

지은이	건축문화자산센터
펴낸곳	건축도시공간연구소
출판등록	제2015-41호 (등록일 '08. 02. 18.)
인쇄	2019년 12월 26일, 발행: 2019년 12월 31일
주소	세종특별자치시 절재로 194, 701호
전화	044-417-9600
팩스	044-417-9608

<http://www.auri.re.kr>

가격: 13,000원, ISBN: 99-11-5659-266-2

이 연구보고서의 내용은 건축도시공간연구소의 자체 연구물로서 정부의 정책이나 견해와 다를 수 있습니다.



#### | 연구책임

---

임유경 연구위원

#### | 연구진

---

이종민 부연구위원

이민경 부연구위원

김미현 연구원

박혜정 연구원

이세진 연구원

#### | 외부연구진

---

변나향 충북대학교 교수

#### | 연구보조원

---

김규식, 이진우

#### | 설문조사

---

(주)마크로밀 엠브레인

#### | 연구심의의원

---

유광흠 선임연구위원

염철호 연구위원

조영진 연구위원

우동선 한국예술종합학교 교수

한동수 한양대학교 교수

#### | 연구자문위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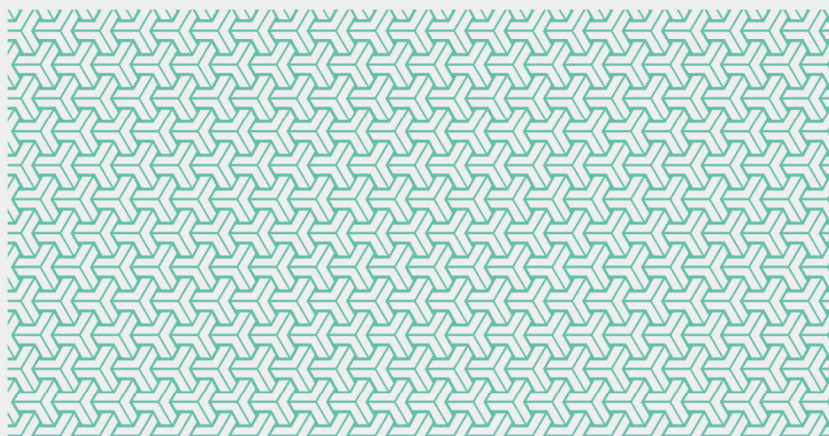
---

김승범 VW lab 소장



# 연구요약

Summary



2014년 6월에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한옥등건축자산법)」이 제정됨에 따라 지정·등록 문화재 이외에 보다 폭넓은 의미의 건축물과 공간환경, 기반시설을 “건축자산”으로 정의하여 이를 보전·활용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마련되었다. 법에서는 “건축자산”을 “현재와 미래에 유효한 사회적·경제적·경관적 가치를 지닌 것으로서 한옥 등 고유의 역사적·문화적 가치를 지니거나 국가의 건축문화 진흥 및 지역의 정체성 형성에 기여하고 있는” 건축물과 공간환경, 기반시설로 정의한다. 이 때 “경관적 가치”는 도시조직이나 지역 경관과의 관계 속에서 결정되며, “사회문화적 가치”는 지역 문화 진흥이나 지역 경제적 효과와 연관되는 등 건축자산의 가치는 생성 연대 등 절대적 기준보다는 지역과의 관계 속에서 결정된다. 따라서 건축자산의 보전·활용 방안을 강구하기 위해서는 해당 지역에 대한 연구가 필수적이다.

지방자치시대에 도시는 재생, 친환경, 보행, 여성친화, 문화와 관광 등 주요 정책을 추진하고 계획을 수립하는 단위이다. 각 지자체는 주민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방법을 모색하고, 고유의 자산을 활용하고 경관을 특화하여 관광을 활성화하는 등 도시 경쟁력을 높이려 다방면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건축문화자산센터에서는 향후 건축자산 기반의 지역 특성화 전략 마련을 위한 기초 연구로써 ‘도시’를 공간적 범위로 한 지역 연구를 기획하였으며, 세종시를 그 첫 번째 대상으로 선정하였다.

2장에서는 국내 지역학 연구의 동향과 기존 논의의 바탕 위에서 건축문화자산센터 지역 연구의 기본 전제를 역사적 접근, 도시의 생성과 변화 요인 탐구, 시민의 삶의 장소 탐구라는 세 가지로 설정하고 [도시 형성과 변화-도시 생성과 변화의 요인-일상생활과 장소]라는 연구 틀을 제시하였다. 먼저 도시의 형성과 변화를 살피고, 도시 생성과 변화의 요인으로써 정책과 계획을 분석하며, 그 결과로 만들어진 지역에서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가는지를 분석함으로써 도시공간 형성과 일상생활 사이의 영향 관계를 밝힌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보다 인간적인 삶을 영위할 수 있는 장소만들기의 단서를 찾고 향후 도시의 발전방향을 제시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연구의 틀은 모두 도시에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것은 아니다. 각 도시의 형성 과정과 정치·경제, 인구·사회학적 특성을 반영하여 연구 초점과 세부 내용을 조정하는 작업이 뒤따라야 한다. 본 연구에서는 국내 지역·도시 연구 동향과 세종시 관련 선행연구, 사회적 논의의 흐름을 분석하여 세종시에 대한 문제

의식을 파악하고 연구 접근 방법을 제시하였다. 하나의 지역에서 오랜 기간에 걸쳐 형성되고 변화한 도시들과 달리 세종시의 역사는 기존에 다른 행정구역으로 성장한 지역에 국가 정책에 따라 건설지역이 들어서면서 시작되었다. 중앙 부처 이동이라는 초유의 상황에 도시 건설을 위한 수많은 연구가 이루어졌고 사회적 관심의 대상이 되었으며, 새로운 정책과 계획이 시도되었다. 이제까지 세종시의 연구와 논의는 도시를 계획하고 만드는 과정에 초점이 맞춰져 있었으나 일상생활과 장소에 대한 연구는 부족하였다. 삶의 장소로서 세종시의 정체성을 확립하고 살기 좋은 도시를 만드는데 기여하기 위해서는 계획으로 만들어진 도시에서 시민들이 어떻게 생활하며, 도시의 여러 장소에 대해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 파악하는 일이 중요하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세종시 연구를 도시 형성과 변화 과정에서 계획이 어떻게 수립되고 실현되었는지 살펴보고, 세종시 주민들의 일상생활과 장소인식을 조사하는 두 단계로 진행하였다.

3장에서는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 이전과 이후로 나누어 세종시의 형성과 변화를 살펴보았다. 세종시는 2012년에 출범하였으나, 백지 위에 만들어진 도시가 아니라 전의, 연기, 금남 등 다른 이름으로 발전해 온 지역이 '세종특별자치시'라는 새로운 행정구역으로 재편된 것이다. 이 지역은 구석기와 신석기 시대부터 주거지가 존재했으며, 삼국시대 백제의 영토에 속해 있다가 통일신라, 고려, 조선을 거치면서 점차 발전해 왔다. 20세기 초반 경부선 건설 시 철도역이 조치원에 건설되면서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 논의가 시작되었던 1970년대 이전까지는 조치원읍이 지역의 중심 역할을 했으며, 현재 세종특별자치시는 정부청사가 위치한 신도시 지역과 조치원읍을 중심으로 한 구도심으로 양분되어 있다.

행정수도 이전 논의는 1970년대부터 시작되었으나, 2002년 당시 노무현 대통령 후보의 공약으로 본격화되었다. 2006년에는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이 '행정도시 건설기본계획(안)'을 발표하였으며 2007년에 행정중심복합도시가 착공되고 2012년에 세종특별자치시가 출범하여 오늘에 이른다.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 과정은 실험의 연속이었다. 특히 도시의 물리적 환경을 만드는 도시계획, 조경, 건축, 교통 분야에서 21세기 새로운 계획 경향을 반영한 다양한 시도가 이루어졌다. 2005년 도시개념 공모 후 당선된 5개 안을 바탕으로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기본계획 및 건설사업개발계획이 발표되었다. 이후 중앙녹지공간, 생활권 마스터플랜, 도시 통합이미지 형성, 7대 경관과제, 공공디자인 설계가이드라인, 통합설계가이드라인 등이 수립되었다. 이 외에도 단독주택, 도시상징광장, 주상복합시설, 복합커뮤니티단지를 대상으로 한 공모가 시행되고 새로운 아이디어

가 제시되었다. 특히 행정중심복합도시에서는 생활권 또한 새로운 아이디어를 적용하는 실험 대상이 되었는데, 자연 공간과 주민공동체 공간의 통합, 공간 이용의 합리화와 양호한 환경 등을 모두 고려한 바람직한 장소 형성을 목표로 하였다.

2012년 세종특별자치시가 출범한 이후 인구수는 113,117명(2012)에서 339,571명(2019)으로 세 배 이상 증가하였으며, 2019년 현재 전국에서 가장 젊은 도시이자 합계출산율이 가장 높은 도시이다. 도시 건설과 인구 유입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지면서 다양한 용도의 건축물 또한 빠른 속도로 증가하고 있다. 주택 뿐 아니라 의료, 문화, 체육, 복지시설 등 시민의 일상생활과 밀접한 시설이 큰 폭으로 증가하였다. 역동적인 변화 속에서 세종시민의 안녕지수 또한 주목할 만하다. 안녕지수는 서울대학교 행복연구센터에서 최근 연구 흐름과 행복 연구 전통을 반영하여 행복의 다양한 의미를 담아낼 수 있는 10개 지표로 구성된 지수인데, 2018년 한 해 동안 국민 1,043,611명을 대상으로 한 안녕지수 프로젝트 결과 세종시의 행복지수가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과연 세종시민은 행복지수가 높은 만큼 풍요로운 여가 생활을 즐기고 있으며, 세종시의 여러 장소를 즐기고 있는가?

4장에서는 세종시민의 여가생활과 장소인식 특성을 조사하였다. 개발기본계획과 생활권계획에서 시민의 여가 생활을 위한 다양한 장소를 조성하고자 했음에도 불구하고 세종시민은 여가 시간에 세종시의 여러 장소를 방문하기보다는 영화를 관람하거나(24.7%) TV를 시청하는 것(15.3%)을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1순위 기준). 종합순위별로는 TV 시청이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48.8%), 그 외에는 친구만남·동호회 모임(46.6%), 영화관람(29.1%), 산책 및 걷기(26.9%) 순서를 보였다. 여가활동의 목적은 개인의 즐거움이 25.7%로 가장 높고 대인관계·교제(19.9%)와 건강(12.1%)이 뒤를 이었다. 전체 응답자의 과반수(57.2%)가 1주일에 1회 이상 여가활동을 한다고 응답하였으며, 매일 여가활동을 하는 경우도 20.1%로 나타났다. 응답자의 86.3%가 세종시 내에서 여가활동을 하며, 그 외 대전, 충남, 충북 등지에서 여가활동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세종시민이 자주 가는 장소를 유형별로 보면, 대형마트(21.2%), 공원(11.5%), 카페(7.3%), 영화관(7.0%) 순서를 보였다. 세부장소별로는 세종호수공원(7.9%)가 가장 상위를 차지하였으며, 이마트 세종점(6.7%), CGV세종(6.3%)이 뒤를 이었다. 이마트, 코스트코, 홈플러스 등 대형마트를 제외한 장소는 세종호수공원(1순

위), 국립세종도서관(5순위), 조치원 전통시장(8순위), 금강수변공원(9순위), 나사불링장(10순위)이다. 세종시민에게 의미 있거나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장소는 세종호수공원(25.2%), 국립세종도서관(10.4%), 베어트리파크(7.7%), 고북저수지(7.5%) 등의 순서로 나타났다. 대형마트는 의미 있거나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장소에 포함되지 않았으며, 세종호수공원 외에 고북저수지와 금강수목원, 금강수변공원 등 자연환경이나, 국립세종도서관과 정부세종청사 등 공공건축물이 다수 포함되었다. 지인에게 소개해주고 싶은 장소 또는 세종시의 랜드마크라고 생각하는 장소는 세종호수공원(29.9%), 베어트리파크(11.5%), 국립세종도서관(9.3%), 고북저수지(7.2%) 순서로 나타났으며, 다온숲(8순위)과 미니멀주 세종점(10순위)을 제외한 여덟 개 장소가 '의미 있거나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장소'와 일치했다.

조사 결과 의미 있는 장소와 지인에게 소개해주고 싶은 장소는 대체로 일치하는 반면, 실제로 자주 가는 장소와는 차이를 보였다. 향후 세종시의 계획은 자주 가면서 의미를 주고, 남에게 자신 있게 소개해주고 싶은 장소의 교집합이 커지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

5장에서는 장소로서의 건축·도시환경 만들기의 지향점과 세종시 장소만들기를 위한 방향을 제시하였다. 지리학 분야에서 연구되기 시작한 '장소'는 '공간'과 구분되는 개념으로 인간의 경험이 초래하는 경험론적 결과로서 논의되고 있다. 즉 장소는 단순히 물리적 공간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한 공간에서 인간의 삶과 경험방식이 유기적으로 결부된 것을 의미한다. 장소 의미의 세 가지 유형은 첫째, 장소가 '자신'을 대변하는 하나의 수단임을 의미하는 '존재론적 의미', 두 번째 개인 혹은 집단이 특정 행동을 정규적 또는 지속적으로 수행하는 현상, 개인 또는 집단이 특정 행동을 위해 하나의 장소에 의존하는 현상으로 설명되는 '행동적 의미', 장소에 대한 애착과 연관된 '정서적 의미'이다.

사람들의 생활 무대인 건축·도시환경은 존재론적, 행동적, 정서적 의미가 얹혀 있는 도시민의 삶과 존재의 공간적 네트워크이다. 건축·도시환경은 크게 심리적 영역과 행동적 영역으로 나뉘며, 도시민이 인지하고 있는 영역을 “선호”와 “중요도”를 기준으로 구분하고, 이용하는 영역을 이용 빈도로 구분하면 ①도시민에게 선호되고 중요하지만 잘 이용되지 않는 영역, ②도시민에게 선호되고 중요하면서 잘 이용되는 영역, ③도시민에게 잘 이용되지만 중요하거나 선호되지 않는 영역, ④도시민에게 잘 이용되지도 않고 선호되거나 중요하지 않은 영역으로 구분

된다. 건축·도시환경을 조성할 때에는 교집합 영역인 “도시민에게 선호되고 중요하면서 잘 이용되는 영역”의 범위를 최대화하는 방향으로 계획하는 것이 중요하다.

세종특별자치시 건설지역은 22개 생활권을 중심으로 계획되었으며, 각 생활권에 공원 등의 공공공간과 상업지역 등 주민이 자주 찾을 수 있는 장소를 조성하였다. 그러나 세종시민이 중요하게 인식하는 장소는 세종호수공원, 베어트리파크, 금강수목원 등 대부분 도시 차원에서 조성된 자연환경으로 나타났다. 세종시는 현재도 건설이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생활권 차원 장소 만들기의 성패를 선불리 평가할 수는 없으며, 개별 장소 또는 장소의 네트워크 관점에서 생활권을 재평가하고 조성할 수 있는 여지와 가능성이 높다. 향후 거주민의 일상생활에 대한 심층연구가 필요하며,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거주민이 중요하게 여기는 동시에 자주 찾는 장소를 만들기 위한 방법을 모색해야 할 것이다.

#### 주제어

지역 특성화, 건축자산, 일상생활, 장소인식, 세종특별자치시, 생활권 계획, 장소 만들기



---

## 차례 CONTENTS

제1장 서론	1
1. 연구의 배경 및 필요성	2
2. 연구 목적	4
제2장 세종시 연구 방향 정립	5
1. 건축문화자산센터 지역 연구의 틀	6
2. 세종시 관련 기존 논의의 흐름	14
3. 세종시 연구 방향	38
제3장 세종시의 형성과 변화	39
1.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 이전	40
2. 행정중심복합도시 세종시	43
3.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과 세종시의 변화	53
제4장 세종시민의 일상생활과 장소인식	57
1. 세종시민의 일상생활과 장소인식 조사 개요	58
2. 세종시민의 여가생활	62
3. 세종시민의 장소인식	75
4. 세종시민의 장소 인식 특성	102
제5장 장소만들기를 위한 제언	111
1. 장소 관점에서 건축·도시환경	112
2. 세종시 장소 만들기를 위한 제언	115
참고문헌	119
부록. 세종시 주민 장소인식조사 설문조사지	125

## 표차례 LIST OF TABLES

[표 1-1] 우수건축자산의 가치	2
[표 2-1] 지역학의 주요 연구 분야	9
[표 2-2] 건축문화자산센터 지역 연구의 틀	13
[표 2-3] 신행정수도와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 관련 주요 연구	14
[표 2-4] 세종시의 정책과 제도 관련 주요 연구	15
[표 2-5] 행정중심복합도시와 세종시 현황 진단과 미래 방향 관련 주요 연구와 발표	16
[표 2-6] 세종시와 주변지역 상생 관련 주요 연구	16
[표 2-7] 역사와 문화 관련 주요 연구	17
[표 2-8] 세종학 관련 논의 현황	18
[표 2-9] 자료 수집 및 분석 범위	19
[표 2-10] 연도별 보도자료 현황(2007년1월-2019년 8월)	20
[표 2-11] 분야별 보도자료 현황	21
[표 2-12] 보도기사 제목 형태소 빈도	22
[표 2-13] 보도기사 분야별 형태소 빈도	23
[표 2-14] 연도별·분야별 보도기사 빈도	25
[표 2-15] 뉴스기사 수집 결과	28
[표 2-16] 네이버 뉴스 선정 언론사 목록	28
[표 3-1] 특별시·광역시 합계출산율 변화(2012-2018)	53
[표 3-2] 세종시 출범 이후 주요 변화상	54
[표 3-3] 지역별·성별 안녕지수	56
[표 4-1] 설문항목 및 내용 구성	58
[표 4-2] 응답자 특성	59
[표 4-3] 자주 가는 장소(세부장소별) 상위 10개소	75
[표 4-4] 중요하거나 의미 있는 장소(세부장소별) 상위 10개소	85
[표 4-5] 지인에게 소개하고 싶은 장소(세부장소별) 상위 10개소	94
[표 4-6] 자주 가는 장소 상위 10개소	103
[표 4-7] 의미 있거나 중요한 장소 상위 10개소	105
[표 4-8] 지인에게 소개해주고 싶은 장소 상위 10개소	108
[표 5-1] 장소의 의미: 존재, 행위, 감정	112
[표 5-2] 제4차 국가균형발전 5개년계획의 3대 전략 9대 핵심과제	117

## 그림차례 LIST OF FIGURES

[그림 2-1] 지역학을 구성하는 학문적 속성들의 관계도	7
[그림 2-2] 프랑스 건축·문화유산박물관이 발간한 도시의 초상화 시리즈	12
[그림 2-3] 미국 펜실베이니아대학교에서 기획한 대도시의 초상화 시리즈	12
[그림 2-4] 2018, 2019년 세종연합교양대학 세종학 포스터	18
[그림 2-5] 관계도 분석 결과(검색어-세종시, 상위 100건 뉴스 기사 기준)	21
[그림 2-6] 관계도 분석 결과(검색어-행정중심복합도시, 상위 100건 뉴스 기사 기준)	21
[그림 2-7] 명사 워드클라우드	29
[그림 2-8] 명사 키워드 출현 빈도표	30
[그림 2-9] 형용사 워드클라우드	30
[그림 2-10] 형용사 키워드 빈도표	30
[그림 2-11] 연관 네트워크 맵	31
[그림 2-12] 관심 단어 '경제'의 주요 연관단어	32
[그림 2-13] 관심단어 '교육'의 주요 연관단어	33
[그림 2-14] 관심 단어 '교통'의 주요 연관단어	33
[그림 2-15] 관심 단어 '부동산'의 주요 연관단어	34
[그림 2-16] 관심 단어 '아파트'의 주요 연관단어	34
[그림 2-17] 관심 단어 '정책'의 주요 연관단어	35
[그림 2-18] 관심 단어 '주택'의 주요 연관단어	35
[그림 2-19] 감성 분석 네트워크 맵	36
[그림 3-1] 18세기 대 연기(燕岐)	41
[그림 3-2] 18세기 대 전의(全義)	41
[그림 3-3] 1923년 연기군 남면(현 연기면)의 연기리(燕岐理) 일대	41
[그림 3-4] 연기현 읍치의 입지 및 공간 구성	41
[그림 3-5] 1914년 조치원역 부근	42
[그림 3-6] 현재 조치원역 부근	42
[그림 3-7]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 관련 공모 및 계획	44
[그림 3-8] 도시개념 국제공모 당선작 "The City of the Thousand Cities"	47
[그림 3-9] 중앙녹지공간 국제공모 당선작 "오래된 미래"	47
[그림 3-10] 첫마을 마스터플랜 국제공모 당선작 "바람개비 마을"	48
[그림 3-11] 중심행정타운 국제공모 당선작 "Flat city, Link city, Zero city"	48
[그림 3-12] 세종시 출범 이후 용도별 건축물 동수 변화	54

## 그림차례 LIST OF FIGURES

[그림 4-1] 세종시 거주기간	60
[그림 4-2] 세종시 거주방식	60
[그림 4-3] 근무지 현황	61
[그림 4-4] 세종시 내 근무 기간	61
[그림 4-5] 여가활동 종류	62
[그림 4-6] 여가활동 목적	62
[그림 4-7] 여가활동 동반자	63
[그림 4-8] 여가활동 빈도	63
[그림 4-9] 여가활동 소요시간	64
[그림 4-10] 여가활동 장소	64
[그림 4-11] 여가활동별 행태 - TV시청 장소	65
[그림 4-12] 여가활동별 행태 - 친구만남/동호회 모임	66
[그림 4-13] 여가활동별 행태 - 영화관람	67
[그림 4-14] 여가활동별 행태 - 산책 및 걷기	68
[그림 4-15] 여가활동별 행태 - 쇼핑/외식	69
[그림 4-16] 여가활동별 행태 - 음주	70
[그림 4-17] 여가활동별 행태 - 인터넷 검색/채팅/1인 미디어 제작/SNS	71
[그림 4-18] 여가활동별 행태 - 잡담/통화하기/문자보내기	72
[그림 4-19] 여가활동별 행태 - 자연명승 및 풍경 관람	73
[그림 4-20] 여가활동별 행태 - 스포츠 경기 간접관람	74
[그림 4-21] 자주 가는 장소(대분류별) 상위 10개소	75
[그림 4-22] 자주 가는 장소(세부장소별) 상위 10개소	75
[그림 4-23] 자주 가는 장소 방문 목적, 상위 10개소	77
[그림 4-24] 자주 가는 장소 선택 이유, 상위 10개소	77
[그림 4-25] 세종호수공원 방문자 특성	78
[그림 4-26] 세종호수공원 방문 목적 및 선택 이유	79
[그림 4-27] 세종호수공원 방문 현황	79
[그림 4-28] 이마트 세종점 방문자 특성	80
[그림 4-29] 이마트 세종점 방문 목적, 선택 이유	81
[그림 4-30] 이마트 세종점 방문 현황	81
[그림 4-31] CGV 세종 방문자 특성	82

## 그림차례 LIST OF FIGURES

[그림 4-32] CGV 세종 방문 목적	82
[그림 4-33] CGV 세종 선택 이유	83
[그림 4-34] 이마트 세종점 방문 현황	83
[그림 4-35] 중요하거나 의미 있는 장소(대분류별) 상위 10개소	84
[그림 4-36] 중요하거나 의미 있는 장소(세부장소별) 상위 10개소	84
[그림 4-37] 자주 가는 장소 방문 목적 상위 10개	86
[그림 4-38] 중요하거나 의미 있는 장소에서의 주요 활동	86
[그림 4-39] 세종호수공원 응답자 특성	87
[그림 4-40] 세종호수공원 선택 이유 및 주요 활동	88
[그림 4-41] 세종호수공원 방문 현황	88
[그림 4-42] 국립세종도서관 응답자 특성	89
[그림 4-43] 국립세종도서관 선택 이유 및 주요 활동	90
[그림 4-44] 국립세종도서관 방문 현황	90
[그림 4-45] 베어트리파크 응답자 특성	91
[그림 4-46] 베어트리파크 선택 이유 및 주요 활동	92
[그림 4-47] 베어트리파크 방문 현황	92
[그림 4-48] 지인에게 소개하고 싶은 장소 (대분류별) 상위 10개소	93
[그림 4-49] 지인에게 소개하고 싶은 장소 (세부장소별) 상위 10개소	93
[그림 4-50] 지인에게 소개하고 싶은 이유	95
[그림 4-51] 세종호수공원 응답자 특성	96
[그림 4-52] 세종호수공원 소개하고 싶은 이유	97
[그림 4-53] 세종호수공원 방문 현황	97
[그림 4-54] 베어트리파크 응답자 특성	98
[그림 4-55] 베어트리파크 소개하고 싶은 이유	99
[그림 4-56] 베어트리파크 방문 현황	99
[그림 4-57] 국립세종도서관 응답자 특성	100
[그림 4-58] 국립세종도서관 소개하고 싶은 이유	101
[그림 4-59] 국립세종도서관 방문 현황	101
[그림 4-60] 자주 가는 장소 맵핑(전체)	102
[그림 4-61] 자주 가는 장소 맵핑(응답자 거주 지역별)	103
[그림 4-62] 의미 있거나 중요한 장소 맵핑(전체)	10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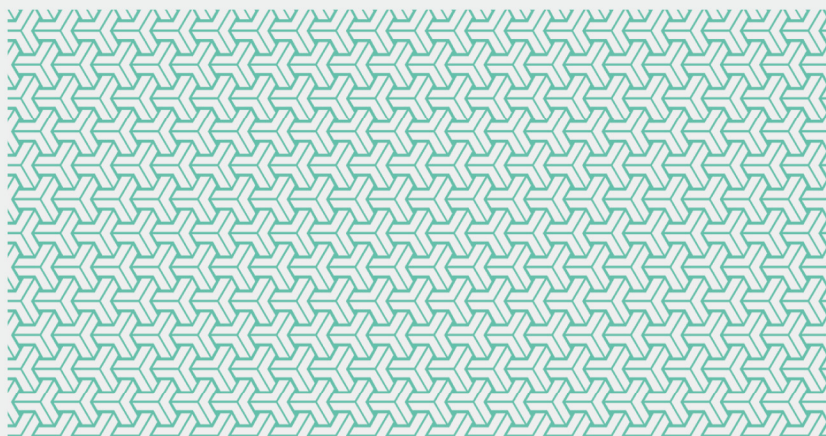
---

## 그림차례

### LIST OF FIGURES

[그림 4-63] 의미 있거나 중요한 장소 맵핑(응답자 거주 지역별)	106
[그림 4-64] 지인에게 소개해주고 싶은 장소 맵핑(전체)	106
[그림 4-65] 지인에게 소개해주고 싶은 장소 맵핑(응답자 거주 지역별)	108
[그림 4-66] 세종시 장소의 교집합	109
[그림 5-1] 장소 관점에서의 건축도시환경 다이어그램	114
[그림 5-2] 공간 네트워크 예시	116

# 제1장 서론



1. 연구의 배경 및 필요성
2. 연구 목적

## 1. 연구의 배경 및 필요성

2014년 6월에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한옥등건축자산법)」이 제정됨에 따라 「문화재보호법」에 따라 지정 및 등록된 문화재 이외에 보다 폭넓은 의미의 건축물과 공간환경, 기반시설을 “건축자산”으로 정의하여 이를 보전·활용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마련되었다. 2015년 6월부터 「한옥등건축자산법」이 시행됨에 따라 시·도 단위로 관련 조례를 제정하고 건축자산 기초조사를 완료 또는 진행하고 있으며, 건축자산의 활용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한옥등건축자산법」 제2조에서 정의하는 “건축자산”은 “현재와 미래에 유효한 사회적·경제적·경관적 가치를 지닌 것으로서 한옥 등 고유의 역사적·문화적 가치를 지니거나 국가의 건축문화 진흥 및 지역의 정체성 형성에 기여하고 있는” 건축물과 공간환경, 기반시설로써 생성 연대 등 절대적 기준보다는 지역 특성에 따라 그 가치가 결정된다. 우수건축자산의 경관적 가치는 “특정 범위 안에 모여 있는 건축물들이 고유의 아름다움을 간직한 것”, “오래된 도시조직을 유지하여 독특한 경관을 이루는 것”으로 그 내용을 정의한다. 또한 사회문화적 가치는 “지역 주민의 자긍심을 높이고 주민 간 교류 활성화에 기여하는 것”등으로 정의하는 등, ‘지역 특성’은 건축자산의 가치를 결정하는 데에 있어 중요한 요인이다.

[표 1-1] 우수건축자산의 가치

구분	가치 내용
1. 역사적 가치	가. 역사적 사건인물 등과 관련 있는 것 또는 역사발전의 증거가 되는 것 나. 용도와 외관이 우리나라의 시대적 변화를 보여주는 것
2. 경관적 가치	가. 개별 건축물의 심미적 가치뿐만 아니라 <u>특정 범위 안에 모여 있는 건축물들이 고유의 아름다움을 간직한 것</u> 나. 오래된 도시조직을 유지하여 독특한 경관을 이루는 것 다. 건축물과 공간환경 등이 주변과 어우러져 특색 있는 지역경관을 형성하는 것
3. 예술적 가치	가. 건축미 및 건축기술 등이 조성 당시의 건축적 특징을 대표하는 것 나. 건축적 디자인, 장식 또는 기능이 중요한 의미를 지닌 것 다. 저명한 설계자기술자 등과 관련 되었거나 공인된 시상 제도 등을 통하여 우수성을 인정받은 것
4. 사회문화적 가치	가. 지역 주민의 자긍심을 높이고 주민 간 교류 활성화에 기여하는 것 나. 지역 특색을 반영하고 있어 해당 지역을 이해하는 데에 도움이 되는 것 다. 지역적 특수성을 갖추거나 집단의 기억을 되살려주어 지역문화 진흥에 <u>도움이 되는 것</u> 라.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사항 외에 보전, 활용을 통하여 지역에 경제적 효과를 증대시킬 수 있는 것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법률」, [별표1] 우수건축자산의 가치



건축자산의 역사적·경관적 가치는 도시공간구조나 주변 경관과 관계 속에서 평가할 수 있고, 사회문화적 가치를 평가하기 위해서는 주민의 삶과 인식에 대한 이해가 필수적이다. 건축자산의 가치를 평가하고 보전·활용 방안을 제시하기 위해서 개별 건축자산을 넘어서 그를 둘러싼 지역 차원의 조사와 연구가 선행되어야 한다. 기존 논의에서 건축자산의 보전과 활용을 위해서는 ‘지역 특성’이 전제되어야 한다는 점이 강조되었음에도 불구하고(심경미, 2015:37) 이제까지 건축자산 연구와 조사는 개별 건축자산에 초점이 맞춰져 있었다.

건축자산을 평가하는 단계뿐 아니라, 보전·활용 방안을 모색하는 과정에서 지역에 대한 이해는 더욱 절실하게 요구된다. ‘지속가능한 개발(sustainable development)’을 위해서는 신개발을 최소화하고 토지 이용을 집약할 필요가 있으며, 자연스럽게 기존의 건축자산을 보전·활용하는 일의 중요성이 커진다. 건축자산을 보전·활용하는 일은 또한 도시재생, 도시문화와 경관, 관광과 지역개발 주제와 맞닿아 있다. 건축자산의 보전·활용 방안을 강구하기 위해서는 해당 지역에 대한 연구가 필수적이다.

#### “도시재생의 실마리, 문화유산”

“도시재생 대상 지구는 대개 반세기 이전에 조성된 곳이어서 그곳 어딘가에는 오래된 건물이나 문화적으로 의미 있는 장소, 곧 문화유산이 있기 마련이다. 그런 문화유산은 도시가 오늘날처럼 상업화되고 번잡해지리라고 예상하지 못한 시기에 만들어졌기에 새로운 도시 여건에 부합하기 어려울 수밖에 없다. 도시로서도 난감하긴 마찬가지일 터이다. 오래되고 허약한 건물이 문화재라는 이름으로 딱하니 버티고 있으니 말이다. 결국 도시재생이란 문화유산과 도시가 오랜 시간의 간극을 극복하고 자연스럽게 만나게 하는 일이라고 할 수 있다.”

[한필원의 골목길 통신] 도시재생의 실마리, 문화유산

출처: 서울신문,

[http://www.seoul.co.kr/news/newsView.php?id=20190128030002&wlog\\_tag3=naver#csidx3f7aad851d12effaa624bb8c791c2ab](http://www.seoul.co.kr/news/newsView.php?id=20190128030002&wlog_tag3=naver#csidx3f7aad851d12effaa624bb8c791c2ab)(접속일: 2019.10.16.)

그렇다면 ‘지역’ 연구의 공간적 단위는 어떻게 설정해야 할까? 지방자치시대에 도시는 재생, 친환경, 보행, 여성친화, 문화와 관광 등 주요 정책을 추진하고 계획을 수립하는 단위이다. 동시에 도시 공간의 구조는 도시민의 삶의 방식에 영향을 미치는 동인이다(민유기, 2007:31). 세방화(世方化) 시대에 있어 도시 연구의 중요성은 나날이 커지고 있다. 국가 경쟁력보다 지역 정체성을 바탕으로 한 도시의 경쟁력이 중요해졌다. 각 지자체는 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방법을 모색하고, 고유의 자산을 활용하고 경관을 특화하여 관광을 활성화하는 등 경쟁력을 높이고자 다방면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며, 이를 뒷받침하기 위한 연구도 활성화되고 있다.

건축문화자산센터에서는 건축자산 기반의 지역 특성화 전략 마련을 위한 기초 연구로써 도시를 공간적 범위로 하는 지역 연구를 기획하였으며, 세종시를 그 첫 번째 대상으로 선정하였다. 세종시는 2019년 1월에 기존 읍·면 지역과 신개발지역에 산재한 건축자산에 대한 기초조사를 완료하였으며, 이를 보존하고 활용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세종시는 연기, 전의, 금남 등 서로 다른 행정구역으로 발전해 온 지역에 국가의 균형발전정책에 따라 행정중심복합도시가 건설되면서 새롭게 만들어진 도시로써, 도시 정체성을 확립하고 지역을 특성화하기 위한 전략 마련이 필요한 상황이다.

#### •건축문화 선도도시 세종

“세종특별자치시가 지역 고유의 건축자산을 보존하고 실용적인 활용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5개년 건축자산 진흥계획을 수립 시행한다. 오는 2022년까지 ‘전통과 미래가 공존하는 삶의 터전, 건축문화 선도도시 세종’ 주제로, 역사·문화적 가치를 지닌 건축물, 실내외 공간, 기반시설 등을 적극 발굴하고 개발한다.”

출처: 세종특별자치시 보도자료, 2018.5.1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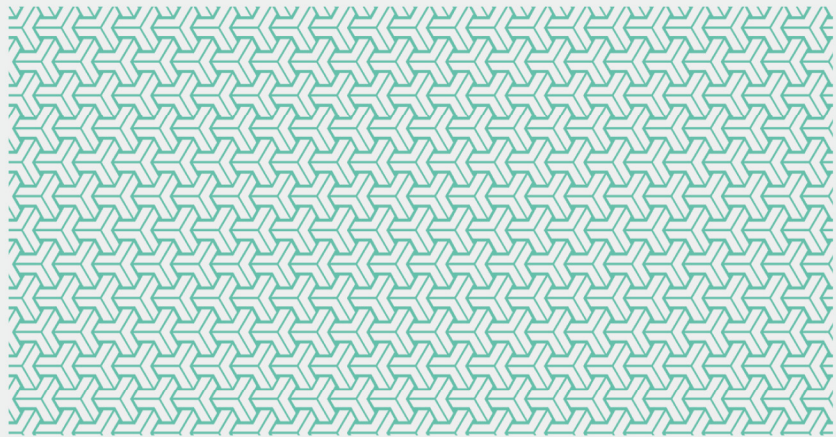
## 2. 연구 목적

도시가 형성된 시기와 방법, 변천 과정, 인구와 사회 특성에 따라 도시를 연구하는 관점과 방법은 달라진다. 세종시는 국가 정책에 따라 행정중심복합도시가 건설되면서 2012년에 출범한 어린 도시이며, 자연스럽게 형성되고 성장한 도시가 아니라 계획에 따라 건설된 도시이다. 동시에 긴 시간동안 발전해 온 역사 도심과 새롭게 만들어진 지역이 공존하는 도시이기도 하다. 본 연구에서는 국내 지역·도시 연구 동향과 세종시 관련 선행연구, 사회적 논의의 흐름을 분석하여 세종시에 대한 문제의식을 파악하고 연구 접근 방법을 제시하고자 한다.

행정중심복합도시가 건설되고 세종시가 출범하면서 도시계획의 내용뿐 아니라 수립 절차와 운영 방식에 있어서 다양한 실험이 이루어졌다. 기존 논의는 행정중심복합도시 조성을 둘러싼 갈등과 조성 과정, 새로운 실험, 지역균형 효과에 초점이 맞춰졌으며, 시민의 삶에 대한 연구는 부족했다. 세종시의 도시 형성과 변화 과정을 밝히고, 이미 33만 명을 넘어선<sup>1)</sup> 세종시민의 일상생활과 장소인식에 대한 분석을 시행하여 향후 의미 있는 장소를 만드는 방향을 도출하는 것이 본 연구의 궁극적 목적이다.

1) 세종시의 인구는 2019년 10월 말 기준 342,204명이다. 세종특별자치시 세종통계 참조, <https://www.sejong.go.kr/stat.do>(접속일: 2019.12.2.)

## 제2장 세종시 연구 방향 정립



1. 건축문화자산센터 지역 연구의 틀
2. 세종시 관련 논의의 흐름
3. 세종시 연구 방향

## 1. 건축문화자산센터 지역 연구의 틀

본 절에서는 향후 건축문화자산센터에서 수행할 지역 연구의 틀을 도출하고자 한다. 먼저 2014년 「지역문화진흥법」 제정과 시행을 계기로 활성화되고 있는 지역학 연구의 동향과 주제를 살피고, 국내 지역학 연구 논의의 바탕 위에서 건축문화자산센터 지역 연구의 기본 전제를 설정하고 연구의 틀을 제시하고자 한다.

### 1) 지역학의 대두와 최근 동향

#### □ 지역학의 개념

“지역학(地域學)”은 국내 학계에서 다양한 해석이 존재했으며, 명칭의 적합성에 대한 논쟁이 있어 왔다. 박원재(2009:288)는 그 동안의 지역학이 연구자와 연구 대상이 서로 다른 지역에 있을 경우에 사용하는 ‘국제지역학(international area studies)’ 관점에서 사용되어 왔기 때문에<sup>2)</sup> 혼선을 일으킬 수 있다는 점을 지적하면서 대상 지역을 연구하는 학문을 ‘지역학’으로 부르는 것은 적합하지 않다고 주장하였다(정정숙, 2014:17에서 재인용). 다수의 학자는 지방행정구역에 대한 지역 연구를 뜻하는 ‘지방학(local studies)’으로 불러야 한다고 주장하는 반면, 권역별 지역학을 포섭하지 못한다는 한계(박원재, 2009:288, 정정숙, 2014:17)와 행정구역 단위의 관학(官學) 같은 어감을 준다는 비판도 제기된다(김학훈, 2019:15).

학계에서 제기되는 여러 이견에도 불구하고 오늘날 국내에서는 ‘지역학’ 용어가 보편적으로 쓰이고 있다. 표준국어대사전에서 “지역학”은 “일정한 지역의 지리, 역사, 문화 따위를 종합적으로 연구하는 학문”으로 정의한다<sup>3)</sup>. 지역의 범위는 좁게는 어떤 특성을 공유하는 특정 공간 영역일 수도 있으며, 도시, 지방, 국가, 더 나아가 아시아와 유럽과 같은 대륙을 의미할 수도 있기 때문에 지역학의 개념은 간결하면서도 포괄적이다.

선행 연구에서 제시하는 지역학의 학문적 개념은 “특정한 지역의 역사, 문화를 중심으로 정치, 경제, 사회, 과학, 법, 현안문제 등에 대한 실제적·총체적 이해를 위해 수행하는 학문<sup>4)</sup>”으로, 전통적으로 행정구역을 기준으로 하거나, 문화적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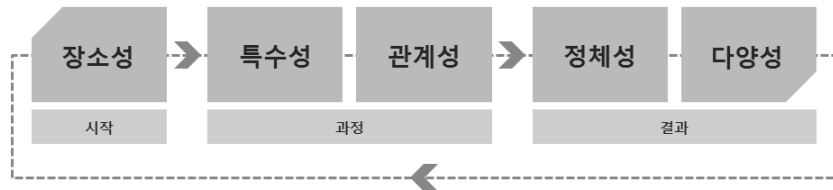
2) 일례로 미국 워싱턴대학교의 국제지역학 과정의 코스는 유럽연구, 유라시아 연구 등 미국이 아닌 세계 다른 지역을 대상으로 한다.

3) <https://stdict.korean.go.kr/search/searchResult.do>(접속일: 2019. 12. 2.)

4) Koppel, B. M.(1995), “Refugee or settlers?: area Studies, development studies and the future of asian studies”, 「East-West Center Occational Papers」 Education and Training Series No.1」, East-West Center, p.4; 정해조(1998), 지역

로 지역 공통의 정체성을 기준으로 특정 한 지역을 대상으로 사회과학, 인문학, 자연과학 등 다양한 연구를 통해 지역의 과거 및 현재를 분석, 미래 방향을 제시하는 학문이다<sup>5)</sup>.

정정숙(2014:19)은 앞의 개념 정의와 함께 지역학을 구성하는 학문적 속성을 특정 장소로서의 지역을 연구하는 ‘장소성’, 특수하고 고유한 역사·문화·사회·일상을 해석하고 미래 방향을 도출하는 ‘특수성’, 지역 주민 간 또는 중앙의 입법·행정·사법과의 관계를 고려하는 ‘관계성’, 연구 결과가 지역의 고유한 정체성을 확립하는데 기여한다는 ‘정체성’, 연구 결과가 궁극적으로 문화다양성을 풍부하게 한다는 ‘다양성’으로 정리하였다.



[그림 2-1]지역학을 구성하는 학문적 속성들의 관계도

출처: 정정숙(2014), 「지역문화 진흥을 위한 지역학 활성화 방안 연구」, 한국문화관광연구원, p.19.의 [그림 2-1]

## □ 지역학에 대한 관심 확대

1963년에 대학 최초로 전남대학교에 호남문화연구소<sup>6)</sup>가 설립되었으나, 대학교 또는 지자체 또는 민간 단체로 지역학 연구 조직이 본격적으로 설립된 것은 1990년대 이후의 일이다. 정정숙(2014), 김학훈(2019), 정삼철(2019) 등의 연구자들은 대체로 1995년에 지방자치제도가 시작되면서 지역학 연구가 성장했다고 본다<sup>7)</sup>.

1993년 서울시립대학교에 서울학연구소, 1999년에는 지방자치단체가 주도해서 설립·운영하는 지역학연구소인 충북학연구소가 개소하였으며, 2000년대 초반에 각 시·도 연구원에 지역학 연구 조직이 설치되었다. 이 외에도 제주학연구

연구의 연구방법(1), 국제지역연구 2권 2호, 국제지역학회, p.320; 조원준(2006), ‘지역학’ 접근에 관한 고찰, 일본어문학회 32권 32호, pp.581-596.

5) 정정숙(2014), 「지역문화 진흥을 위한 지역학 활성화 방안 연구」, 한국문화관광연구원

6) 1963년에 설립된 전남대학교 ‘호남학연구소’는 이후 2005년에 설립된 ‘호남학연구단’과 2008년에 ‘호남학연구원’으로 통합되었다. <http://www.homun.or.kr/main.cs>(접속일 2019.12.2.)

7) 정정숙(2014)은 1990년대까지를 한국 지역학의 태동기, 1990년대부터 2010년까지를 성장기, 2010년 이후를 성숙·확산기로 구분하였으며(정정숙, 2014:42), 김학훈(2019)은 1980-1990년을 지역학 잠재시기, 2010년 이전까지를 지역학 형성시기, 2010년 이후를 지역학 정착시기로 보았다(김학훈, 2019:15).

소(2004), 대구경북학회(2012) 등의 민간 연구 단체도 생겨났으며, 최근에는 광역지자체뿐 아니라 수원학, 익산학, 전주학, 공주학 등 기초자치단체 차원의 지역학도 다수 생겨났다(정삼철, 2019:62).

대학교, 지방자치단체, 민간단체 등 성격은 다르지만 연구 조직이 늘어나는 것은 지역학에 대한 지자체와 국민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는 사실을 보여준다<sup>8)</sup>.

#### □ 지역 문제 해결 및 지역 문화 진흥 수단으로서의 지역 연구

전통적 개념의 지역 연구가 지역을 알기 위한 도구였던 것에 반해, 지역을 ‘주어진 것’이며 ‘발견하는 것’이 아닌 ‘사회적 행위에 의해 지속적으로 형성되는 것’으로 보는 새로운 관점<sup>9)</sup>에서 지역 연구는 지역을 알고 변화시키기 위한 도구로 인식한다(노영순·이상열, 2018:17). 오늘날 우리나라에서 지역학 논의가 활성화되는 것은 지역의 문제에 대응하고 지역 정체성을 모색하려는 지자체의 정책 수요가 증가하는 것과 관계가 있다.

급속한 성장과 발전 단계를 지나 일부 지역은 인구 감소와 도시 쇠퇴 현상이 나타나면서 새로운 과제에 직면해 있다. 노영순·이상열(2018:31)은 지역의 현실을 극복하기 위한 대안적 지역발전 논의를 정리하여 ①차이의 인정 및 차별성 확보, ②재지역화(relocalization), ③공공성의 확립 및 실현에 주목한다. 첫 번째와 두 번째 주제는 다른 지역과 차별적인 지역 고유의 특성을 발견하여 재지역화한다<sup>10)</sup>는 점에서 서로 연결된다. 지역의 문화는 지역 정체성 확립, 장소만들기(place making)의 중요한 수단으로 강조되고 있으며, 지역학은 대안적 지역발전의 기반으로 주목받고 있다(노영순·이상열, 2018:34-36).

지역학은 단지 지역의 문화와 변화양상을 기록하고 연구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지역 정책 방향을 설정하는 근거로 활용된다. 김학훈(2019:17)은 지역학이 지역 특화 발전 방향과 지역 정체성을 찾아낼 수 있으며, 지역 주민의 삶을 향상시키는 기초 자료를 제공할 뿐만 아니라, 지역 브랜드로 기능할 수 있는 상징 및 상품

---

8) 노영순·이상열(2018:68-72)의 연구에 따르면 2018년 기준 “○○학”이라는 이름으로 설립된 기관이 45개에 이른다. 45개 기관에는 지자체출연연구원(9), 지역문화재단(1), 지방문화원(6), 대학(16), 학회(5), 기타 민간단체(8)가 포함된다.

9) 최재현(2005)과 김양식(2017) 등의 연구에서는 지역을 “유·무형의 경계를 가진 공간과 기억의 장소이자, 법·권력 등 제도적 구조 속에서 만들어지며, 개인과 집단 간의 이념적·물질적 집합체”로 이해한다. 노영순·이상열(2018:17)에서 재인용.

10) 여기서 재지역화(relocalization)는 ‘지역이 중심에 종속되지 않은 상태로 되돌아가는 것’, 즉 국가와 시장이 가져갔던 힘이 다시 지역 공동체로 귀속되는 상태를 말한다(노영순·이상열, 2018:32).

을 생산하는 자원이 되어 지역 산업과 관광 진흥에 활용된다는 점을 지역학의 가치로 꼽는다.

#### □ 지역학 연구의 주요 주제

지역학의 연구방법은 기본적으로 여러 학문을 종합적으로 연구하는 학제적 연구(interdisciplinary approach)와 각 요소들의 상호 관계를 파악하여 지역의 총체적인 삶에 대한 특수성을 밝히는 시스템적 접근(systems approach)을 취하기 때문에(김학훈, 2019:16) 지역학의 연구 주제는 다양한 범위를 포괄한다.

아래 표는 서울시립대학교의 서울학연구소, 인천시립대학교의 인천학연구원, 강원연구원 강원학연구센터, 충북발전연구원 충북학연구소, 울산발전연구원 울산학연구센터의 주요 연구 분야를 정리한 것이다. 연구 주제는 고고학과 고대사, 근현대사 등 역사, 정치, 경제, 사회 등으로 다양하게 나타나는데, 지역 정체성과 지역 특성을 규명한다는 지향점은 대체로 일치한다.

[표 2-1] 지역학의 주요 연구 분야

구분	주요 연구 분야
서울학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서울의 건축, 도시계획, 도시조직, 교통수단, 도시경관, 조경 연구</li> <li>· 서울의 가족, 신분, 인구, 사회조직 연구</li> <li>· 조선시대 고지도와 근현대 서울 지도 및 지리 연구</li> <li>· 서울의 행정편제, 행정조직, 운영체계 연구</li> <li>· 서울의 재정과 상공인, 상공업과 경제조직, 경제 운영방식 연구</li> <li>· 서울지역의 고고학 및 한국 고대사-근현대사 연구</li> <li>· 조선시대 시문학, 근현대 서울을 소재로 한 문학 연구</li> <li>· 서울지역의 민속, 통과 의례, 세시풍속 연구</li> </ul>
인천학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인천지역의 역사문화사회 연구</li> <li>· 지역의 정체성 정립과 특성화에 관한 연구</li> <li>· 지역 문제에 대한 조사평가분석</li> </ul>
강원학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강원도의 역사문화정치경제사회 등 지역의 특성과 정체성 연구</li> </ul>
충북학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충청인의 정신 함양 및 지역의 정체성 확보를 위한 조사연구</li> <li>· 지역 향토문화의 창달과 예술의 진흥 연구</li> </ul>
울산학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울산학 연구의 패러다임 및 방법론 정립</li> <li>· 울산지역의 역사문화정치경제사회 등 다양한 분야별 연구</li> <li>· 울산이 가진 고유한 지역성의 발굴 및 규명</li> </ul>

출처: 제주발전연구원(2011), 「제주학연구센터 운영 기본계획」, pp.22-33, 재구성



## 2) 건축문화자산센터 지역 연구의 기본 전제

건축문화자산센터는 2018년에 설립되어 건축자산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고 운영하는 한편, 건축자산 보전·활용의 방향을 제시하고 그 효과를 알리기 위한 사업과 과제를 수행하고 있다. 더 나아가 건축자산을 보전하고 활용함으로써 개별 건축자산의 가치를 높이는 데에 그치지 않고 지역의 정체성을 형성하고 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데에 기여하고자 하며, 지역 연구가 그 밑바탕이 될 것이다.

본 연구는 건축문화자산센터 지역 연구의 방법론을 탐색하는 연구이다. 앞으로 여러 도시를 대상으로 아래와 같은 세 가지 기본 전제 하에 지속적으로 연구를 수행하여 건축자산을 기반으로 한 지역 특성화 연구 방법론을 정립해 나가하고자 한다.

### □ 역사적 접근

「한옥등건축자산법」 시행령 [별표1]에서 우수건축자산을 결정짓는 첫 번째 가치는 역사적 가치이다. 건축문화자산센터의 지역 연구는 해당 지역의 역사를 이해하는 데에서 출발한다. 도시의 형성과 변천 과정, 시대 흐름에 따른 도시공간구조의 변화를 탐구함으로써 도시 각 지역의 특성을 밝힐 수 있을 것이다. 지역 역사 연구의 목적은 역사적 사건을 확인하고 물리적 공간이 어떻게 변화해 왔는지를 이해하는 것을 넘어서 여러 도시의 현상을 이해하는 것이다. 민유기(2007:27)는 도시사(urban history) 연구가 19세기 급속한 도시화에 따른 사회문화적 변동과 인간 삶의 변화를 설명하는 ‘도시성(urbanity)’ 개념이 일반화되기 시작한 20세기 초 이후에 등장하여 20세기 중반까지는 특정 도시의 변천을 다루는 도시 일대기 방식의 서술이 중심을 이루다가 1960년대부터 도시의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제반 영역에 대한 도시적 현상을 대상으로 하는 연구로 확대되었다고 설명한다. 역사 연구는 현실 사회에서 나타나는 도시 문제를 해결하고 미래 방향을 모색하는 밑바탕이 된다. 지역 연구에서 역사적 접근을 취하는 것은 역사 연구가 건축자산의 역사적 가치를 평가하는 것을 넘어서 도시의 특수성을 밝히는데 기여하고, 더 나아가 보전·활용 방향을 설정하는 단서를 제공하기 때문이다.

### □ 도시의 생성·변형 요인 탐구

도시공간이 생성되고 변형되는 요인은 다양하다. 사람들이 집단적으로 모여 살면서 자연스럽게 생겨나고 성장하는 도시가 있는가 하면, 인위적인 계획에 따라 만들어지기도 한다. 도시는 항상 과거 위에 새 커가 끊임없이 더해지면서 만들어진다. 역사의 연속선 위에서 이루어지는 새로운 정책 결정이나 계획 행위는 도시



의 공간구조를 변화시킨다. 지역의 특성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도시 변화의 동인이 되는 정책과 계획에 대한 분석이 필수적이다.

## □ 시민의 삶과 장소

역사적 가치를 인정받아 원상태대로 ‘보존’해야 하는 문화재와 달리 건축자산은 여전히 삶의 공간이고, 오늘날의 삶의 방식과 지역의 요구에 따라 보전하고 활용해야 하는 대상이다. 건축자산의 사회문화적 가치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지역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의 삶의 방식과 의미에 대한 이해가 선행되어야 한다. 건축문화자산센터의 지역 연구는 인간적 삶과 삶의 가치에 초점을 두는 인문학적 접근을 취한다. 서울시립대학교 도시인문학연구소는 인문학을 중심으로 한 새로운 도시연구 방식으로 ‘도시인문학(urban humanities)’을 제안하고 대안도시 모델을 모색하는 작업을 진행한다(김백영 외, 2009:6). 도시인문학연구소가 제안한, 역사학의 입장, 도시인문학의 접근, 현실 요구 대응이라는 도시 연구 접근 방법은 건축문화자산센터의 지역 연구에도 유효하다. 도시공간을 자연적 환경과 인공적 환경이 복합된 물리적인 공간임과 동시에 사람들이 일상생활을 살아가는 삶의 장소로 바라보고, 도시공간을 보다 인간적인 삶을 위한 공간으로 만드는 때 개체로 건축자산의 가능성을 모색해 보고자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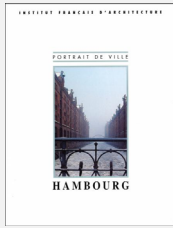
### 지역 연구 사례 1 - “도시의 초상화(Portrait de Ville)”, 프랑스건축·문화유산박물관 발간

프랑스건축협회(IFA, Institut français d'architecture)는 1983년부터 “도시의 초상화(Portrait de Ville)” 시리즈를 발간하였으며, 2004년에 프랑스건축·문화유산박물관(Cité de l'Architecture et du Patrimoine)으로 통합된 이후에도 발간이 계속되어 현재까지 프랑스 국내·외 29개 도시를 대상으로 한 단행본이 발간되었다. 도시계획과 건축 사이의 상호 이해를 높이고 도시의 현황("l'état des lieux")을 바탕으로 미래 전망을 도출하기 위해 역사와 현재를 동시에 조망하는 방식을 취한다. 각 책에서는 시대별로 도시정책 또는 정책의 부재가 도시의 물리적 환경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분석하고, 이를 바탕으로 도시의 고유한 특성을 이야기한다. 또한 주요 건축자산의 위치와 개요를 소개하여 답사자료로 활용할 수도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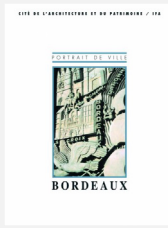
#### 보르도, 도시의 초상화(Bordeaux, Portrait de ville)의 주요 목차

- 보르도, 사라진 영광을 찾아서
- 보르도의 역사 : 바다에서 포도주산지로
- 샤반의 시대, 보르도는 더 이상 보르도가 아니다
- 도시성, 주거의 도시
- 루비곤, 도시와 강의 모호한 열망
- 앞으로의 전망, 타워크레인이 돌아오다
- 보르도의 건축산책

출처: <https://www.citedelarchitecture.fr/fr/publication/barcelone>(접속일: 2019.10.16.)



함부르크(2002)



보르도(2006)



뉴욕(2010)



바르셀로나(2013)

## [그림 2-2] 프랑스 건축·문화유산박물관이 발간한 도시의 초상화 시리즈

출처: <https://www.citedelarchitecture.fr/fr/publication/barcelone>(접속일:2019.10.1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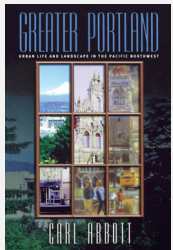
## 지역 연구 사례 2 -“대도시의 초상화(Metropolitan Portraits)”, 미국 펜실베이니아대학교 발간

주디스 마틴(Judith Martin)이 기획하고 펜실베이니아대학교가 발간한 “대도시의 초상화(Metropolitan Portraits)”는 북미 10개 도시에 대한 전문가가 각자 자신의 도시에 대해 기술하여 시리즈로 발간한 책이다. 칼 애보트(Carl Abbott), 스티븐 콘(Steven Con), 에드워드 랠프(Edward Relph)등의 도시역사학자, 지리학자가 참여하였다<sup>11)</sup>. 저자에 따라 기술 방식에 차이가 있으나 대체로 도시의 생성에서 현재에 이르기까지 변화를 살펴봄으로써 도시의 정체성을 찾고자 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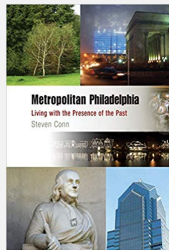
(에드워드 랠프의) “토론토, 도시와 지역의 변화(Toronto, Transformations in a City and Its Region)”은 1793년 영국 식민지의 전초기지였던 토론토가 어떻게 오늘날 다문화주의, 다중심적 대도시로 변화해 왔는지를 추적한다. (중략) 토론토의 도시 초상화 작업은 현재의 도시 형태와 경관이 어떻게 형성되었는지, 그 가치는 무엇인지,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변화할 수 있는가를 보여준다.

펜실베이니아대학교 출판부의 서평

출처: <https://www.upenn.edu/pennpress/book/15143.html>(접속일:2019.10.16.)



포틀랜드(2001)



필라델피아(2006)



디트로이트(2012)



토론토(2013)

## [그림 2-3] 미국 펜실베이니아대학교에서 기획한 대도시의 초상화 시리즈

출처: <https://www.upenn.edu/pennpress/series/MET.html>(접속일:2019.10.18.)

11) 칼 애보트는 포틀랜드, 스티븐 콘은 필라델피아, 에드워드 랠프는 토론토를 연구하였다.

### 3) 건축문화자산센터 지역 연구의 틀

앞서 언급한 지역 연구의 기본 전제 - 역사적 접근, 도시의 생성과 변화 요인으로 써 정책과 계획 탐색, 시민의 일상생활과 장소에 대한 접근 -에 따라 건축문화자산센터 지역 연구의 틀을 다음과 같이 설정하고자 한다.

[표 2-2] 건축문화자산센터 지역 연구의 틀

구분	질문	주요 연구 내용
I. 도시 형성과 변화 history, transformation	어떻게 형성되고 변해왔는가?	- 도시구조, 경관, 주거, 시설, 인구·사회의 변화
II. 도시 생성과 변화의 요인 policy, planning	무엇을 생각하고 어떻게 만들었는가?	- 정책과 계획
III. 일상생활과 장소 everyday life, place	도시에서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가는가?	- 사람과 일상생활 - 장소

출처: 연구진 직접 작성

먼저 도시의 형성과 변화를 살피고, 도시 생성과 변화의 요인으로써 정책과 계획을 분석하며, 그 결과로 만들어진 지역에서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가는지를 분석함으로써 도시공간 형성과 일상생활 사이의 영향 관계를 밝히고자 한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보다 인간적인 삶을 영위할 수 있는 장소만들기의 단서를 찾고 향후 도시의 발전 방향을 제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이 연구의 틀은 모든 도시에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것은 아니다. 각 도시의 형성 과정과 정치·경제, 인구·사회학적 특성을 반영하여 연구의 초점과 세부 내용을 조정해야 할 것이다. 2절과 3절에서는 세종시와 관련된 기존 논의의 흐름을 분석해서 세종시 연구 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 2. 세종시 관련 기존 논의의 흐름

### 1) 선행연구 현황과 지역학 논의

세종시 연구의 방향을 설정하기 위해서 세종시와 관련된 선행연구 및 자료를 분석하였다. 분석 대상은 건축·도시·정책 분야 연구자료 342건과 인구·사회 분야 연구자료 56건이다. 세종시 연구의 주요 주제는 신행정수도과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 세종시의 정책과 제도, 세종시와 주변지역의 상생, 역사와 문화로 나눌 수 있다.

#### □ 신행정수도과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 관련

2004년부터 신행정수도 건설과 관련한 연구가 활발하게 이루어졌다. 입지, 주거, 환경, 안보 등 다양한 분야의 연구가 이루어졌으며, 무엇보다 신행정수도 건설로 인한 파급효과를 예측하는 연구가 많았다. 세종시 연구자료 중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는 것은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 계획에 관한 것이다. 행정중심복합도시 개발계획, 광역계획, 지구단위계획 등 도시계획 수립 관련 연구가 수행되었으며, 건축, 경관, 통합디자인, 공공시설물 등 도시 건설과 관련하여 분야별 연구가 있다.

**[표 2-3] 신행정수도과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 관련 주요 연구**

제목	저자	출판사	년도
신행정수도건설 추진을 위한 기본구상 연구	신행정수도연구단		2003
신행정수도 건설의 파급효과와 균형발전효과 추정	조규영, 송창규, 윤영모 외	한국토지공사	2004
신행정수도 건설이 교통 및 물류체계에 미치는 영향	김성수, 이준, 이강대 외	한국토지공사	2004
신행정수도 건설추진을 위한 연구	진영환, 강태수, 최영국 외	대한주택공사	2004
신행정수도 도시종합정보시스템 구축방안	박인규, 전해식, 한진희	대한주택공사	2004
행정중심복합도시 개발계획 수립 연구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2007
행정중심복합도시 개발계획 전략연구과제 - 단계별 개발방향 및 관리방안	주택산업연구원		2006
행정중심복합도시 광역교통개선택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2007
인간과 환경중심의 미래형 교통체계 구축방안	건설교통부		2006
행정중심복합도시 경관7대 전략과제 - 종합보고서	한국토지공사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청	2007

출처: 연구진 직접 작성

## □ 세종시의 정책과 제도 관련

2012년 세종시가 출범한 이후에는 중장기 발전전략, 비도시지역 성장관리, 국가 하천 친수공간, 녹색성장, 정보화, 교통안전, 주거, 에너지, 기후변화 대응 등 세종특별자치시 차원에서 필요한 계획 수립을 위한 연구가 다수 수행되었다. 계획 외에도 새로 탄생한 지방자치단체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연구가 활발하게 수행되었다. 공간정보시스템 구축, 도시재생지원센터 운영, 마을공동체 활성화, 아동·청소년의회 도입, 자치법규 관련 연구가 이에 해당한다.

[표 2-4] 세종시의 정책과 제도 관련 주요 연구

제목	저자	출판사	년도
세종시 발전안 및 법률개정방향	국토연구원		2010
세종시 자전거 이용 활성화를 위한 전략수립 연구	공주대학교 방재연구센터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청	2012
세종시 미래전략산업 발굴 연구	충남테크노파크	세종특별자치시	2013
세종전통시장 활성화방안 연구용역	한국지식경제진흥원 대전·충청지사	세종특별자치시	2014
세종특별자치시 녹색성장 추진계획(2015~2019)	충남연구원	세종특별자치시	2015
세종특별자치시 비전 2030 중장기발전 전략계획	국토연구원	세종특별자치시	2016
세종시 비도시지역 성장관리방안 수립	(주)케이엔지니어링 종합건축사사무소	세종특별자치시	2016
세종시 공간정보시스템 구축 및 활용을 위한 기초연구	안용준	대전세종연구원	2017
세종시 도시재생지원센터의 효율적 운영방안	지남석	대전세종연구원	2018
세종시 마을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정책 제언	지남석	대전세종연구원	2018

출처: 연구진 직접 작성

## □ 행정중심복합도시와 세종시 현황 진단과 미래 방향

2017년 행정중심복합도시가 착공한지 10년이 지나고 세종시도 출범 5주년을 지나면서 이제까지 성과를 점검하고 미래 방향을 모색하는 논의가 활발하게 진행 중이다. 대한건축학회, 대한국토·도시계획학회, 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는 관련 학자와 실무자가 참여하여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 성과를 돌아보는 특집을 마련하였다. 이 외에도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과정과 도시개념과 중앙녹지공간 등 국제공모 진행 성과와 의미를 분석한 연구, 행정중심복합도시의 도시환경 현황을 진단하는 연구가 수행되었다.

[표 2-5] 행정중심복합도시와 세종시 현황 진단과 미래 방향 관련 주요 연구와 발표

제목	저자	출판사	년도
세종시 첫마을 지구단위계획에 대한 주민 만족도 평가	오용준, 홍경구	대한건축학회 논문집	2015
세종시의 지속가능한 발전 전략	심교언, 조경훈, 민범식	대한건축학회	2015
행정중심복합도시 1단계 건설에 대한 전문가 IPA 평가	홍성조, 권일	한국지역개발 학회지	2017
[행복도시 세종, 향후 10년의 비전 전문가 세미나] 행복 도시 10년 평가와 광역권 발전방안	조판기	국토연구원	2018
[행복도시 세종, 향후 10년의 비전 전문가 세미나] 행복 도시 미래비전과 발전전략	유원기	국토연구원	2018

출처: 연구진 직접 작성

#### □ 세종시와 주변지역의 상생

도시는 행정구역으로 경계가 나뉘지만 공간은 연속되며 인접한 도시는 서로 영향을 미친다. 실제로 세종시 전입가구의 이전거주지역은 수도권을 제외하면 대전, 충북, 충남 등 인접 지자체로부터 이동이 차지하는 비율이 높게 나타난다(세종특별자치시, 2017:21).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과 세종시의 출범이 충북, 충남, 대전 등 인접한 지자체에 미친 긍정적·부정적 영향과 향후 상생 방안은 중요한 연구 주제 중 하나이다. 세부 주제는 사회통합, 경제 상생, 대도시권 육성 등이다.

[표 2-6] 세종시와 주변지역 상생 관련 주요 연구

제목	저자	출판사	년도
지방분권과 지역균형발전의 상징도시로서의 세종시와 사회통합 구현방안	최진혁	충북연구원	2011
세종시와 주변지자체의 광역적 연계 발전 전략	오용준	국토연구원	2012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세종시의 과제와 충청권의 상생발전	김혜천	한국도시행정학회	2012
세종시와 연계한 중부권 대도시권 육성 방향	염인섭	한국도시행정학회	2012
세종시와 충청권의 상생발전방안 수립 연구	성장환, 정연우, 이상준 외	한국토지주택공사	2014

출처: 연구진 직접 작성

#### □ 역사와 문화 관련

역사와 문화 관련 연구 또한 중요한 비율을 차지한다.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앞두고 기존 지역을 조사·연구·기록하는 연구가 다수 수행되었다. 2006년에는 국립민속박물관 주도로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 예정지역의 마을별 지표조사 보고서가 발간되었다. 역사와 문화 관련 연구는 2010년 이후 더욱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세종시의 문화자산을 발굴하고 정체성을 정립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역사인물자원 발굴, 설화콘텐츠 개발, 민속문화유산 데이터베이스, 중요

무형문화유산 고증, 근현대 생활기록물 조사, 국난극복사, 세종 3·1운동 및 임시 정부수립 기록화 등의 연구가 수행되었다.

[표 2-7] 역사와 문화 관련 주요 연구

제목	저자	출판사	년도
세종시 유교문화권 관광개발 기본계획 연구용역	(재)충청남도역사문화연구원	세종특별자치시	2015
세종시 국난극복사와 역사문화콘텐츠 활용	최희수	고려대학교 한국학연구소	2016
세종시 역사인물자원 발굴 및 설화콘텐츠 개발	홍익대학교 세종캠퍼스 산학협력단	세종특별자치시	2017
세종민속문화유산 DB화 사업	(재)충청남도역사문화연구원	세종특별자치시	2017
세종특별자치시 근현대 생활기록물 조사	(재)충청남도역사문화연구원	세종특별자치시	2017

출처: 연구진 직접 작성

## □ 지역학 연구 필요성 논의

최근에는 역사와 문화 관련 연구가 증가함과 동시에 세종시의 정체성을 확립하기 위해 지역학을 발전시켜야 한다는 논의가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 2017년 “행복도시 착공 10주년, 세종시 출범 5주년 기념 심포지엄”에서 세종학 정립 필요성과 향후 방향에 대한 주제 발표가 있었으며, 2018년부터 세종연합교양대학에서 “세종학-시민과 대학생이 함께하는 지역학”이라는 제목으로 세종시와 관련된 다양한 주제를 다루고 있다.

### 2019년 세종연합교양대학 “세종학” 운영계획

\*운영기간 : 2019. 3. 7. ~ 6. 20 (총 15주), 매주 목 16:00~18:00

\*대 상 : 세종시민

\*장 소 : 홍익대학교 세종캠퍼스 홍익아트홀

3월 7일(개강식) 소설 “국수” 우리말의 아름다움 / 김성동(「국수」작가)

3월 14일 세종학이란? / 박상옥(공주대 교육학과 교수)

3월 21일 천문과학 전성기, 세종시대 / 김상혁(한국천문연구원 책임연구원)

3월 28일 우리고장 지명유래 이야기 / 임영수(연기향토박물관장)

4월 4일 세종과 여성(리더와 여성정책) / 문지현(사회학박사)

4월 11일 역대 대통령의 발자취를 따라 돌러보는 대통령 기록관 / 박종철(대통령기록관 기록서비스과장)

4월 18일 자유답사-대통령기록관 개별방문 체험

4월 25일 문화유산 속 숨은 역사 / 임덕수(한국전통문화대학교 초빙교수)

5월 2일 쌍류리예술촌을 아시나요? / 이태근((사)세종미술협회장)

5월 9일 조치원 골목길 그 시간을 기록하다 / 한상천(사진작가)

5월 16일 세종의 놀거리, 볼거리, 먹거리 / 최영희(세종시문화재단 팀장)

5월 23일 건축 세종에 행복을 담다 / 박인희(홍익대 건축학과 교수)

5월 30일 4차산업혁명시대, 인간의 미래 / 이원재(카이스트 문화기술대학교수)

6월 13일 아주 경제적인 하루 / 박정호(KDI전문연구원)

6월 20일 세종시의 매력-도시계획 / 손동필(건축도시공간연구소 연구위원)



[그림 2-4] 2018, 2019년 세종연합교양대학 세종학 포스터

출처: 세종특별자치시 인재육성평생교육진흥원 홈페이지 <https://www.sjhle.or.kr/>(접속일: 2019.12.2.)

세종시는 2019년 1월 세종시민의 정체성을 확립하고 자긍심과 애향심을 고취시켜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 세종학을 진흥하고 사회적으로 확산하고자 「세종학 연구 및 진흥에 관한 조례」를 제정, 4월부터 시행하고 있다. 2019년 10월에는 “새로운 실험의 무대 세종시, 삶의 장소로서 미래를 그리다”라는 주제로 세종학 포럼을 개최하고 타 지역의 지역 연구 사례를 조사하는 등 세종학의 발전 방향을 모색하고 있다.

[표 2-8] 세종학 관련 논의 현황

내용	비고	연도
행복도시 착공 10주년, 세종시 출범 5주년 기념 심포지엄에서 “세종학 정립, 어떻게 할 것인가?” 주제 발표	김태영 교수 (한남대학교)	2017
2018 세종연합교양대학 ‘세종학’에서 “세종학이란? 개념과 목적, 그리고 운영 방향” 주제 발표	박상욱 교수 (공주대학교)	2018
「세종학 연구 및 진흥에 관한 조례」 제정	세종특별자치시	2019.1
2019 세종연합교양대학 ‘시민과 대학생이 함께 하는 지역학’에서 “세종학이란?” 주제 발표	박상욱 교수 (공주대학교)	2019.3
2019 세종학 포럼 “새로운 실험의 무대 세종시, 삶의 장소로서 미래를 그리다”	세종특별자치시· 건축도시공간연구소 공동주최	2019.10

출처: 연구진 직접 작성



## 2) 언론보도로 본 사회적 논의의 흐름

### ① 2007년 이후 언론보도 경향

#### □ 조사개요

- 자료의 대상과 범위

신문기사 데이터베이스 오픈소스 KINDS에서 ‘세종시’와 ‘행정중심복합도시’ 주제를 검색하여 그 동안 보도된 자료의 전체 경향을 파악하였다. 신문과 방송 매체를 중심으로 조사되었으며 잡지, 인터넷 등은 제외하였다. 신문은 중앙지에 해당되는 신문사 중 경향신문과 중앙일보를, 방송은 공영방송사에서 보도되는 KBS의 뉴스와 종합편성채널 중 하나인 JTBC의 뉴스를 대상으로 하였다.<sup>12)</sup>

- 자료수집 및 분석방법

2007년부터 2019년 8월 중순(15일)까지 신문과 방송에서 보도된 내용을 조사하였다. 해당 언론사 홈페이지의 보도자료 제목과 보도내용을 대상으로 1차 검색하였으며 보도내용 중 세종시가 언급되는 경우도 포함하였다.<sup>13)</sup> 조사에서 사용한 검색어와 웹사이트는 아래와 같다.

[표 2-9] 자료 수집 및 분석 범위

분류	내용
검색어	세종시, 세종특별자치시, 행정중심복합도시, 행복도시(행정중심복합도시 약어)
웹사이트	경향신문, <a href="http://www.khan.co.kr">www.khan.co.kr</a>
	중앙일보, <a href="https://joongang.joins.com">https://joongang.joins.com</a>
	KBS 뉴스, <a href="http://news.kbs.co.kr/common/main.html">http://news.kbs.co.kr/common/main.html</a>
	JTBC 뉴스, <a href="http://news.jtbc.joins.com">http://news.jtbc.joins.com</a>
검색기간	2019년 8월 (1개월)

출처: 연구진 직접 작성

12) 언론사는 중앙지, 경제지, 지역종합지, 전문지, 방송사 등 자료수집 목적과 범위에 따라 다양하게 구분할 수 있다. 본 원고와 이전의 자료조사는 세종시 관련 사회적 이슈와 그 흐름을 파악하는데 목적이 있기 때문에 중앙지와 방송사를 중심으로 자료를 수집하였다. 신문사는 신문방송학 분야에서 일반적으로 구분하고 있는 정치성향을 참고하였다 (감미아·송민, 2012:54).

13) 본 원고에서는 보도자료 내용에 따라 ‘세종시’와 예정구역을 지칭하는 ‘행정중심복합도시’를 구분하여 사용하였으나 그 외에는 ‘세종시(행정중심복합도시)’로 병기하는 대신 ‘세종시’로 사용하였다.

해당 자료는 출처에 따라 분야가 구분된 경우와 그렇지 않은 경우가 있었다. 경향 신문은 보도 자료별 분야가 가장 세분화되어 있었는데 ‘정치, 사회, 부동산, 지역, 오피니언, IT, 과학·환경, 라이프, 문화, 사람과 사람, 산업통상, 스포츠, 이코노미, 트레블’로 구분되었다. 중앙일보는 ‘정치, 사회, 경제, IT·과학, 문화, 스포츠’와 기타로 구분되었다. ‘정치, 사회(교육 등 포함), 경제(산업통상, 이코노미 통합), 부동산, 지역, 오피니언(사설, 기고 포함), 과학·환경(IT 포함), 문화, 스포츠·연예’의 9개 분야로 정리하였다. 뉴스 방송은 통합된 형태로 되어 있는 경우가 많아 신문 자료를 참조하여 분류하였다.

## □ 언론보도 자료 현황

### • 연도별 현황

먼저, ‘세종시’ 검색 결과 총 229,423건으로 분야별로는 정치 73,658건, 경제 68,277건, 사회 41,922건, 국제 15,996건, 지역 105,567건, 스포츠 1,718건, IT(과학) 8,363건이 해당하였다. 연도별로는 2010년이 보도건수가 가장 많았으며 2012년 이후 감소 추세이나 연간 20만 건 이상 수준이 유지되고 있다.

[표 2-10] 연도별 보도자료 현황(2007년1월-2019년 8월)

연도	합계(건)	신문(건)		방송(건)*	
		경향	중앙	KBS	JTBC
2007	39	39	0	0	0
2008	15	13	2	0	0
2009	230	168	62	0	0
2010	239	201	38	0	0
2011	75	54	21	0	0
2012	112	68	44	0	0
2013	153	66	46	24	17
2014	153	79	18	47	9
2015	213	143	21	36	13
2016	244	132	48	51	13
2017	257	145	52	52	8
2018	283	110	118	38	17
2019	248	71	107	49	21
합계(건)	2,261	1,289	577	297	98

\* 2013년 이전 방송 뉴스 보도 건수 없음(검색되지 않음), 출처: 연구진 직접 작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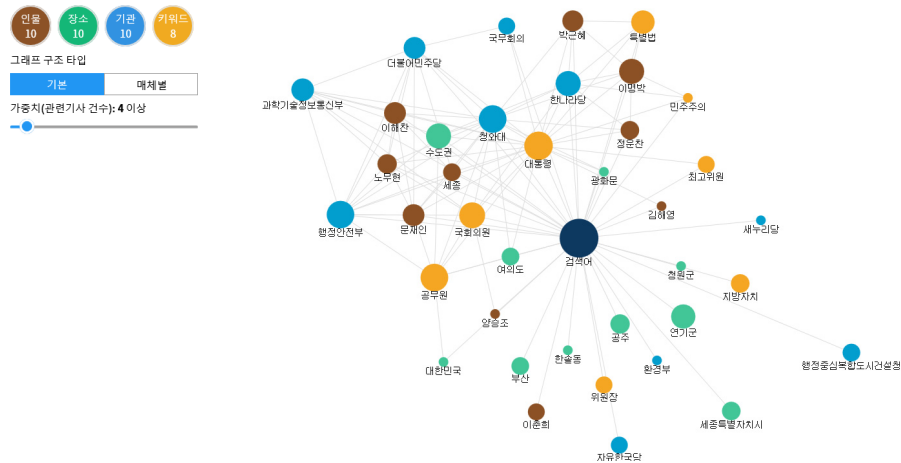
### • 분야별 현황

분야별로 살펴보면, 사회 624건, 지역 553건, 정치 481건, 경제 286건, 부동산 180건으로 사회분야 보도 건수가 가장 높게 나타났다. 오피니언 등 사설·기고, 문화 분야는 낮은 편이었으며 과학·환경, 스포츠·연예는 매우 낮았다. 또한, 보도매체에 따라 분야별 빈도 차이가 발견되었다.

**[표 2-11] 분야별 보도자료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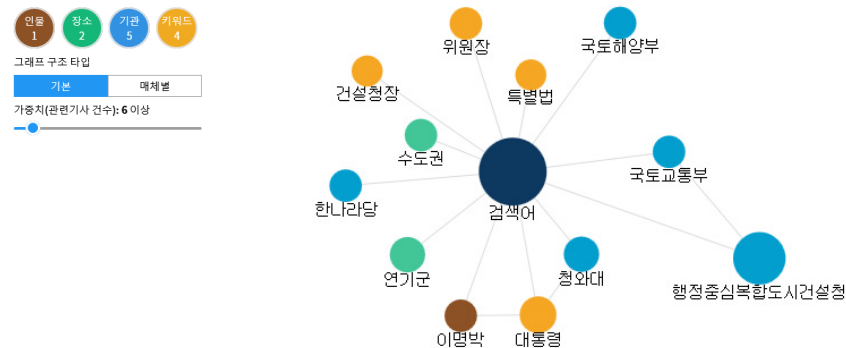
분야	합계(건)	신문(건)		방송(건)	
		경향	중앙	KBS	JTBC
정치	481	291	132	32	26
사회(교육 등)	624	87	285	202	50
경제	286	102	118	47	19
부동산	180	180	0	0	0
지역	553	553	0	0	0
오피니언 등	66	29	37	0	0
과학, 환경	12	8	0	4	0
문화	55	38	4	10	3
스포츠, 연예	4	1	1	2	0
합계(건)	2,261	1,289	577	297	98

출처: 연구진 직접 작성



[그림 2-5] 관계도 분석 결과(검색어-세종시, 상위 100건 뉴스 기사 기준)

출처: 신문기사 데이터 오픈소스 KINDS(<https://www.kinds.or.kr/>)를 활용하여 분석한 결과임(접속일: 2019.9.16.)



[그림 2-6] 관계도 분석 결과(검색어-행정중심복합도시, 상위 100건 뉴스 기사 기준)

출처: 신문기사 데이터 오픈소스 KINDS(<https://www.kinds.or.kr/>)를 활용하여 분석한 결과임(접속일: 2019.9.16.)

• 키워드별 현황<sup>14)</sup>

언론보도 제목에서 사용된 키워드 현황과 매체별 차이를 비교한 결과 검색어 세 종시를 제외하면 도시, 국회, 이전, 분양, 아파트, 주택, 공무원 등이 사용되었다.

[표 2-12] 보도기사 제목 형태소 빈도

no.	신문				방송			
	경향		중앙		KBS		JTBC	
	주요어	빈도(회)	주요어	빈도(회)	주요어	빈도(회)	주요어	빈도(회)
1	세종시	660	세종시	317	세종시	97	세종시	23
2	세종	323	세종	124	세종	43	공무원	12
3	도시	172	국회	52	공무원	19	대통령	8
4	이전	64	도시	46	이전		수사	7
5	분양	59	이전	37	수도	17	주택	6
6	행정	57	분양	33	아파트		세종	
7	행복	47	아파트	32	행정	16	정부	
8	정부		공무원	29	뉴스	14	청와대	
9	수정안	46	서울	28	학교	13	아파트	5
10	아파트	43	행정	26	청사		이전	
11	지역	40	대통령	23	시대	11	도시	4
12	공무원		총청		국회		기록관	
13	수정	39	안		분양	10	서울	
14	기업		수도		안전		외압	
15	교육청	35	대전		불법		반발	
16	서울	31	프로젝트	20	논란	9	불법	
17	조성	30	논란	18	전국		국정	3
18	학교		주택	17	투기		부동산	
19	주택		상가		조성	8	현장	
20	총청	29	가구	16	스마트		화재	
21	원안	28	분원		특혜		압수수색	
22	기관		추진		도시	7	점포	
23	상가		정부		부동산		주민	
24	주민	27	청사		서울		전국	
25	인구		총리	15	사업		지적	
26	공공	26	브리핑	14	준공		우려	
27	신도심		인구		과열	6	최대	
28	총리		기업		정보		재난	
29	건설	25	기관	13	경제		쓰레기	
30	시민		공공	12	예산		취득세	

\*중앙일보는 기사별 태그를 포함하고 있으나 표 내용에 포함하지는 않음, 출처: 연구진 직접 작성

14) 형태소 분석은 뉴스젤리에서 공개한 '형태소 분석기'를 활용하였다. (젤리랩 홈페이지, <http://lab.newsjel.ly/analy/morpheme>, 접속기간: 2019.8.26.-2019.9.1.)

## □ 언론보도에 나타난 주요 이슈

정치, 사회·지역, 경제·부동산 분야의 기사제목의 키워드 순위는 아래 표와 같다. 정치 분야는 이전, 국회, 수정안(수정), 도시, 총리 순으로 빈도가 높았고 사회·지역 분야는 도시, 공무원, 행정, 학교, 아파트, 이전, 교육청 순으로 빈도가 높게 나타났다. 경제·부동산 분야는 분양, 도시, 아파트, 주택, 상가, 서울, 가구 순으로 빈도가 높게 나타났다.

[표 2-13] 보도기사 분야별 형태소 빈도

no.	정치		사회·지역		경제·부동산	
	주요어	빈도(회)	주요어	빈도(회)	주요어	빈도(회)
1	세종시	316	세종시	552	세종시	159
2	이전	62	세종	330	세종	105
3	국회	62	도시	114	분양	70
4	세종	46	공무원	56	도시	63
5	수정안	42	행정	52	아파트	48
6	수정	39	학교	50	주택	42
7	도시	37	아파트	47	상가	36
8	총리	36	이전	44	서울	29
9	정부	35	교육청	40	가구	24
10	대통령	30	추진	37	지역	22
11	원안	29	조성	36	생활	21
12	기업	28	총청	35	전국	19
13	행정	23	설치	34	공공	18
14	공무원	20	대전	33	행복	18
15	청와대	19	주민	32	청약	18
16	총청	19	청사	32	공무원	18
17	수도	19	행복	31	부동산	17
18	프로젝트	17	시민	31	대책	15
19	부처	16	버스	30	스마트	15
20	없다	15	고교	29	행정	15
21	서울	15	공원	28	인구	15
22	논란	14	분양	28	공급	14
23	국민	13	신도심	27	땅값	14
24	박근혜	13	안	27	사업	14
25	과학	13	불법	27	정부	13
26	기관	13	내년	27	건설	12
27	정치	13	충남	25	기관	12
28	이해찬	12	지역	25	주목	12
29	추진	11	논란	25	LH	11
30	발표	10	서울	25	수도	11

출처: 연구진 직접 작성

- 정치

정치 분야에서는 세종시 원안과 수정안에 대한 갈등, 부처 및 공공기관의 이전, 정책결정권자 발언과 관련된 보도가 주를 이루었다. 세종시 원안과 수정안에 대한 갈등을 다룬 보도는 국회의 수정안 부결, 국회 이전의 찬반, 국회 이전 관련 충청 지역 간 이해관계를 들 수 있다. 보도기사 제목 중 ‘수정안, 수정, 도시, 원안’의 사용 빈도 수가 높은 것도 이러한 사실을 뒷받침한다. 정책결정권자 발언은 대통령, 총리의 발언과 정책입안자의 법 개정안 발의 건이 있으며 국회 분원 설치, 부처 이전, 공공기관 이전 건 등이 있었다.

- 사회·지역

사회·지역 분야에서는 도시, 공무원, 행정, 학교, 아파트, 이전 순으로 보도기사 제목의 키워드 빈도가 높게 나타났다. 신도시, 도시계획 관련 기사가 다수였으며 초중고 무상급식 시행, 과학예술영재학교 설립, 학교 숲 조성 등 학교 관련 기사도 보도되었다. 세종시 예정구역은 크게 초기, 성숙, 완성단계로 구분하고 있다.<sup>15)</sup> 현재는 자족기능을 확충하는 단계로 이와 관련하여 다양한 시스템과 시범사업 관련 기사가 보도되었다. 구체적으로는 친환경 에너지 사용과 녹색도시 가이드라인 적용, 친환경 빗물관리시스템 도입, 국가 스마트시티 시범사업 추진을 들 수 있다. 한편, 세종시가 위치한 충청권에서 세종시로 유출되는 인구에 대한 문제와 대응을 고민하는 기사도 보도되었다.

- 경제·부동산

경제·부동산 부문은 분양, 도시, 아파트, 주택, 상가 순으로 키워드가 사용되었다. 특히, 공공, 청약, 부동산, 대책, 공급, LH 등의 키워드는 주로 아파트 공급, 주택분양(공공·민간), 각 생활권별 분양 홍보 기사와 함께 나타났다. 이와 함께 불법 전매 수사와 적발 건도 보도되었다. 주목할 보도기사는 상가 공급 과잉과 공실 관련 건이다. 신도시 상가 공실 문제는 2018년 세종시를 포함한 위례, 미사 지역도 함께 보도된 바 있다. 그 동안 세종시 상가 공실 문제는 높은 임대료와 신도시 건설 과정에서 입주자가 되지 않은 아파트단지와 같이 정주 인구가 부족하기 때문이라는 인식이 있었으나, 최근에는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행복청), 세종시청, LH에서 세종시의 인구 규모와 도시성장 대비 상가 공급 과잉을 인정하는 기사가 보도되었다.

---

15)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홈페이지를 참고하여 작성  
(<http://www.naacc.go.kr/>, 접속일: 2019.9.1.)

- 생활

생활은 별도의 항목으로 두지는 않았으나 정치, 사회·지역, 경제·부동산 분야와 오피니언(사설)에서 주민 생활과 관련된 도시 인프라, 시설, 문화 등과 연관된 보도 기사를 검토하였다. 도시 인프라 중 하나인 교통편과 편의시설의 수요와 공간 차이에 관한 기사는 수요 대비 공급이 부족하거나 반대인 경우가 해당하였다. 특히, 수요는 많으나 공급이 부족한 경우는 도시건설 과정에서 주민이 겪어야 되는 불편함이 동반되는 내용이었으며 그 반대인 경우는 급행버스 환승 주차장과 같이 시설 활용도가 낮은 경우였다. 매년 개최되는 세종축제 외에도 둘레길, 국립박물관단지, 국립중앙수목원, 세종아트센터 등 문화시설 조성 사업 추진 기사가 보도되었으며 베어트리파크, 오토 캠프장, 주말농장 홍보 기사도 있었다. 그 밖에 세종시청은 일찍이 조성된 세종호수공원도 자전거, 푸드트럭, 카페 등 편의 시설과 이용자 프로그램을 확충하였고 다양한 행사가 개최되는 중심지 기능을 강화하고자 하였다.<sup>16)</sup>

#### □ 사회적 논의의 흐름

2007년부터 2019년 8월까지 총 2,261건의 언론보도 기사를 연도별로 살펴보면 아래와 같다. 가장 많은 건수가 보도된 시기는 2018년이다. 2009년과 2010년은 정치 분야, 2015년부터는 지역 및 사회 분야 기사 비율이 높아졌다. 2011년에는 모든 분야에서 보도된 기사 수가 적었고 2012년은 경제, 부동산 분야가 특히 적었다.

[표 2-14] 연도별·분야별 보도기사 빈도

연도	분야(건)						합계(건)
	정치	사회	경제	부동산	지역	기타	
2007	5	2	16	11	3	2	39
2008	2	4	3	1	3	2	15
2009	154	16	9	2	24	25	230
2010	144	22	19	14	18	22	239
2011	6	13	10	18	24	4	75
2012	12	36	7	3	47	7	112
2013	33	41	34	5	30	10	153
2014	9	50	34	21	36	3	153
2015	11	48	31	25	94	4	213
2016	10	92	26	27	81	8	244

16) 세종호수공원, 놀거리 확충...편의시설도 확충 (경향신문, 2015.07.09.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507091512251&code=620108](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507091512251&code=620108), 접속일: 2019.9.1.)

연도	분야(건)						합계(건)
	정치	사회	경제	부동산	지역	기타	
2017	13	88	31	36	83	6	257
2018	47	103	30	14	72	17	283
2019	35	109	36	3	38	27	248
합계(건)	481	624	286	180	553	137	2,261

출처: 연구진 직접 작성

- 2000년대 중후반 (2007-2009)

2007년부터 2009년까지 신문사 기사 자료를 살펴보면, 경향신문에서는 2007년 ‘행정중심복합도시, 행복도시’가 주로 사용되었고 2008년부터 경향신문과 중앙일보에서 ‘세종시, 행복도시’가 사용되었다. 이 기간 동안은 도시의 법적 지위 논란, 도시건설을 위한 법률, 건설계획 원안과 수정안 추진 여부에 대한 번복과 확정 지연, 정책결정권자의 발언이 이슈가 되었다. 그밖에 2012년 완공을 목표로 인공호수(호수공원) 건설계획이 발표되었다.<sup>17)</sup>

- 2010년대 초반 (2010-2014)

2010년대 초반은 2009년에 이어서 2010년 언론보도 기사 수가 많았는데 절반 이상이 정치 분야였다. 2011년에는 급감하면서 정치 분야에서는 기사 수가 적은 반면 사회, 지역 분야에서는 꾸준히 증가하였다. 세종시 원안과 수정안 논란, 기관 이전 문제 관련 보도가 2010년 상반기에 집중되어 보도되었다. 또한, 주민 간담회 추진에서 참석한 주민 동원에 문제가 있음이 지적되기도 하였다. 2012년 7월에는 세종특별자치시 출범이 공식화되었고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주관 하에 도로, 학교 등 도시기반시설의 명칭 공모가 진행되었다. 한편, 기관 이전에 다른 공무원의 잦은 서울-세종 간 출장과 이로 인한 업무 비효율 문제의 보도기사는 KBS에서 몇 차례 중점적으로 다루었다. 기관 이전이 진행 중이고 2014년이 마지막 단계인 점을 고려하더라도 여전히 국회가 서울에 위치하고 공무원의 업무추진 구조 상 이동이 불가피한 문제가 있음을 지적하였다. 그밖에 트램 사업 폐기, 학교 용지 확보 문제, 국립수목원 구상 관련 건이 보도되었다.

- 2010년대 중후반 (2015-2019)

2010년 중후반은 사회, 지역 분야의 기사 보도 건수가 많았으나 다른 분야에서도 일정 비율 보도 건수가 유지되고 있었다. 2015년부터는 사회 분야 언론보도 기사 수가 증가하기 시작하여 2018년과 2019년 가장 많이 보도되었고, 지역 분

17) 행정도시에 국내 최대 인공호수... 2012년까지 조성키로 (경향신문, 2009.04.13.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0904131743525&code=950100#csidxcbcd892c44d002691e50fddbabb51ac](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0904131743525&code=950100#csidxcbcd892c44d002691e50fddbabb51ac), 접속일: 2019.9.15.)



야에서도 2015년부터 기사 수가 증가하였다. 경제 분야는 30건 수준이 유지되었다. 중앙일보는 2018년부터 최근까지 ‘국회이전프로젝트’ 이슈로 세종시로 국회 이전, 공무원의 잦은 서울 출장, 공무원의 피로도 증가, 세종시 생활을 집중 보도하기도 하였다<sup>18)</sup>. 이전에는 국립문화시설 건설계획이 발표되었다면 2010년대 후반에는 대학공동캠퍼스 추진, 로컬푸드 시스템 도입, 국립 숲유치원(원수산, 전월산, 괴화산 예정부지)<sup>19)</sup>, 충남대병원(종합병원) 등이 발표되었다. 그러나 수도권 대비 문화생활을 즐길 수 있는 여건은 아직 부족한 상황이다. 한편, 문화·상업단지 사업이 주목을 받았다. 한문화단지 사업과 한문화재단, 한문화 시민학교, 전시관, 한옥호텔, 한류식당 등 다양한 시설 도입계획이 보도되었다. 또한, 문화와 상업거리인 어반아트리움 사업-보행전용 거리로 광장, 소규모 공원, 옥상정원 등과 연계된 조성 계획도 보도되었다.<sup>20)</sup>

#### □ 2007년 이후 언론보도 경향 종합

행정중심복합도시가 착공된 2007년 이후 언론보도 분석 결과, 도시의 법적 지위, 건설계획 수정 등 정치적 논란의 시기를 거쳐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과 관련된 논의가 활발하게 이루어졌음을 알 수 있다. 입주가 시작되고 공무원과 주민의 세종 생활이 시작되면서는 공무원의 업무 비효율 논란과 더불어 편의 시설의 공급·수요 불균형 문제가 제기되었다. 이전, 국회, 도시, 공무원, 행정, 분양, 아파트 등의 키워드가 높은 빈도로 나타난 것은 행정중심복합도시로 건설된 신도시에 대한 사회적 관심을 보여준다.

18) 중앙일보 이슈페이지(<https://news.joins.com/issue/11106>, 접속일: 2019.09.18.)

19) 세종시에 임대형 ‘대학 공동캠퍼스’ 생긴다. (경향신문, 2015.04.26.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504262141545&code=620108#csidx0c3b31cf6414f5e996f981341cd8fcb](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504262141545&code=620108#csidx0c3b31cf6414f5e996f981341cd8fcb), 접속일: 2019.9.18.)

20) 세종 신도심 문화상업거리 ‘어반아트리움’ 조성 본격화 (경향신문, 2016.12.25.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612251435001&code=620108#csidxee39ec7de9c4e7f908bd4432b51472a](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612251435001&code=620108#csidxee39ec7de9c4e7f908bd4432b51472a)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612251435001&code=620108](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612251435001&code=620108), 접속일: 2019.9.18.)

## ② 2018-2019년의 언론보도

### □ 조사 개요

- 자료의 대상과 범위

세종시와 관련된 주요 이슈와 쟁점 사항을 도출하기 위해 네이버 뉴스 기사를 수집하였다. 뉴스기사의 검색어는 세종시이며 2018년 1월 1일부터 2019년 8월 31일 사이에 네이버와 제휴된 언론사에서 제공하는 기사를 수집하였다.

- 자료수집 및 분석방법

뉴스기사 수집을 위해 Python을 이용, 크롤링 기법을 수행하였다. 자료 분석 및 시각화는 R을 이용해 워드 클라우드, 연관성, 감성 분석을 시행하였다.

- 언론보도 자료 현황

검색된 기사 수는 총 158,091건이나 수집 가능한 제휴 언론사 문제로 실제 수집된 기사는 44,201건이며 이 분석은 그 중 25,844건의 선정된 언론사의 기사를 이용한다.

[표 2-15] 뉴스기사 수집 결과

기준	기사 수
총 검색 기사 수	158,091
수집 성공 기사 수	44,201
실제 이용 기사 수	25,844

출처: 연구진 직접 작성

[표 2-16] 네이버 뉴스 선정 언론사 목록

선정 언론사			
JTBC	뉴스시스(NEWSIS)	세계일보	이데일리
KBS	동아일보	스포츠서울	중앙일보
MBC	디지털타임스	스포츠조선	파이낸셜뉴스
MBN	매일경제	시사IN	프레시안
OSEN	머니투데이	아시아경제	한겨레
SBS	문화일보	아이뉴스24	한국경제
YTN	미디어오늘	연합뉴스TV	한국경제TV
경향신문	서울경제	오마이뉴스	한국일보
국민일보	서울신문	일간스포츠	헤럴드경제
노컷뉴스	스포츠경향	조선비즈	
데일리안	스포츠동아	조선일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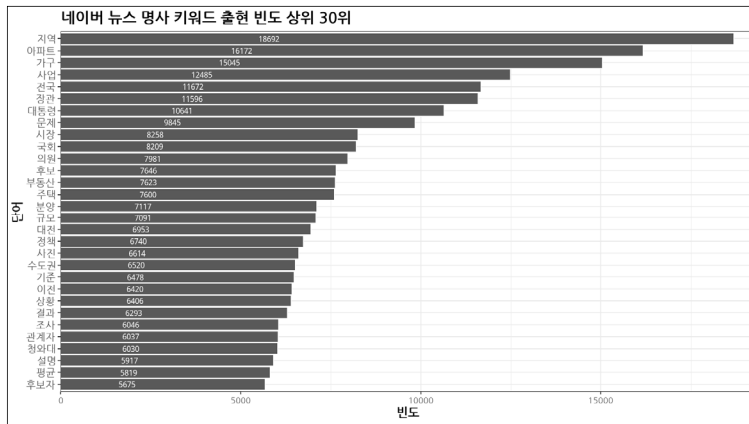
출처: 연구진 직접 작성

- 워드클라우드 분석

형용사의 경우 단어들의 어미가 제거되어 ‘위하’, ‘즐기’, ‘느끼’ 처럼 추출되는 문제가 있어 ‘다’를 어미에 위치시켜 ‘위하다’, ‘즐기다’, ‘느끼다’ 처럼 단어의 의미를 보다 쉽게 이해하여 분석하고자 하였다. 이런 방식으로 정제된 단어가 200번 이상 반복된 경우에 워드클라우드로 표현하였다. [그림 2-10]은 형용사 워드클라우드 결과로, 좋다, 새롭다, 어렵다 등의 감정들이 나타났다. 출현 빈도표 [그림 2-11]을 살펴보면, 좋다가 가장 많이 출현했고, 어렵다, 다르다, 새롭다 등의 단어들이 그 뒤를 이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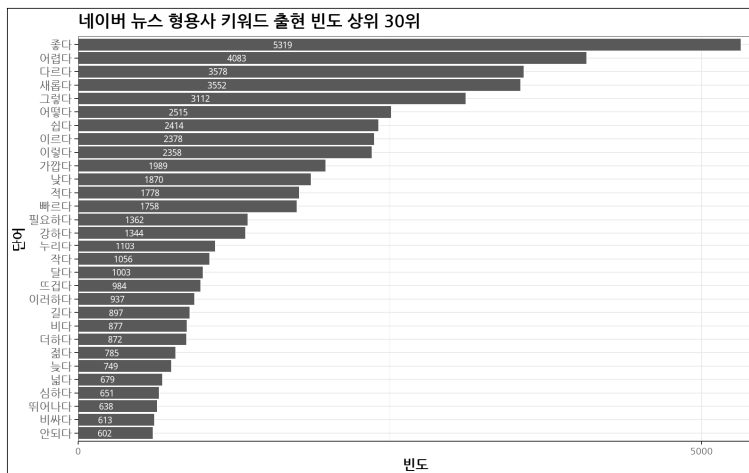
제2장·세종시 연구 방향 정립 29



[그림 2-8] 명사 키워드 출현 빈도표 (출처: 연구진 직접 작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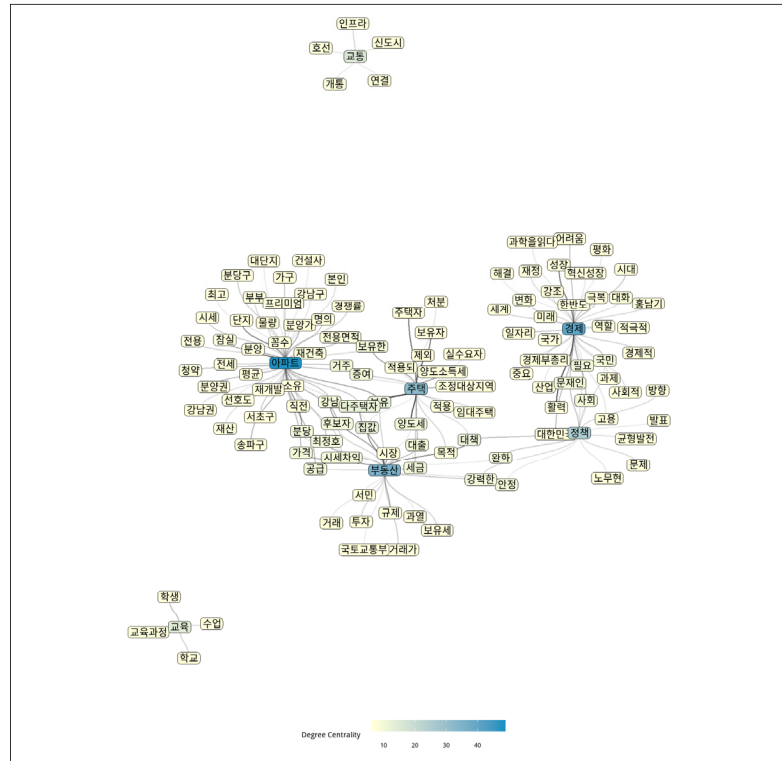
[그림 2-9] 형용사 워드클라우드 (출처: 연구진 직접 작성)



[그림 2-10] 형용사 키워드 빈도표 (출처: 연구진 직접 작성)

- 연관성 분석

수집한 자료 내에서 단어의 중요도를 평가하고 단어 간 연관성을 파악하기 위해 TF-IDF(Term Frequency-Inverse Document Frequency) 기법을 이용하였다. TF-IDF는 단어의 빈도뿐만 아니라 문서들의 빈도까지 고려하여, 단어가 분석되는 자료에서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주는 방법으로 텍스트 마이닝에서 자주 쓰이는 방법 중 하나이다. 여기서는 TF-IDF를 이용해 계산되는 주요 키워드와 연관된 키워드들의 네트워크 맵을 작성함으로써 주요 키워드들의 연관성을 파악하고자 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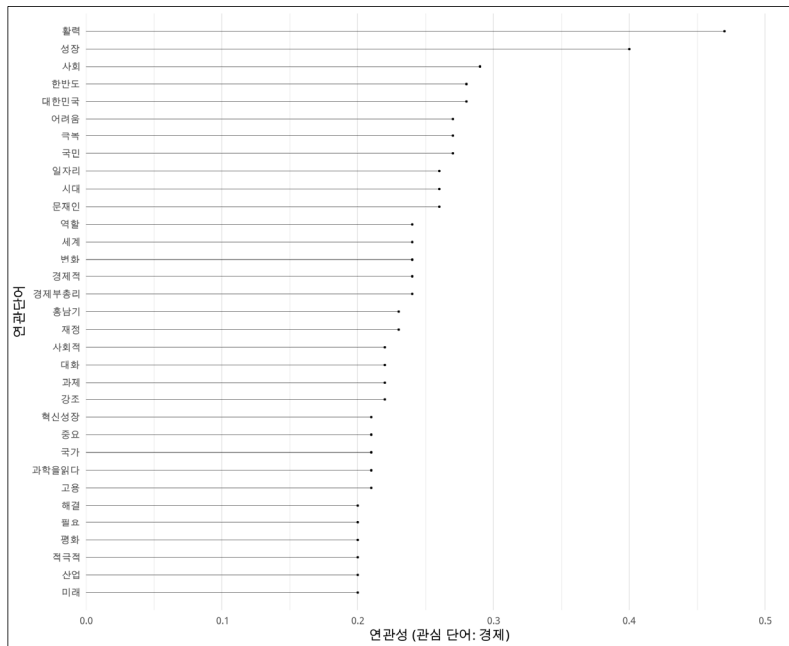


[그림 2-11] 연관 네트워크 맵 (출처: 연구진 직접 작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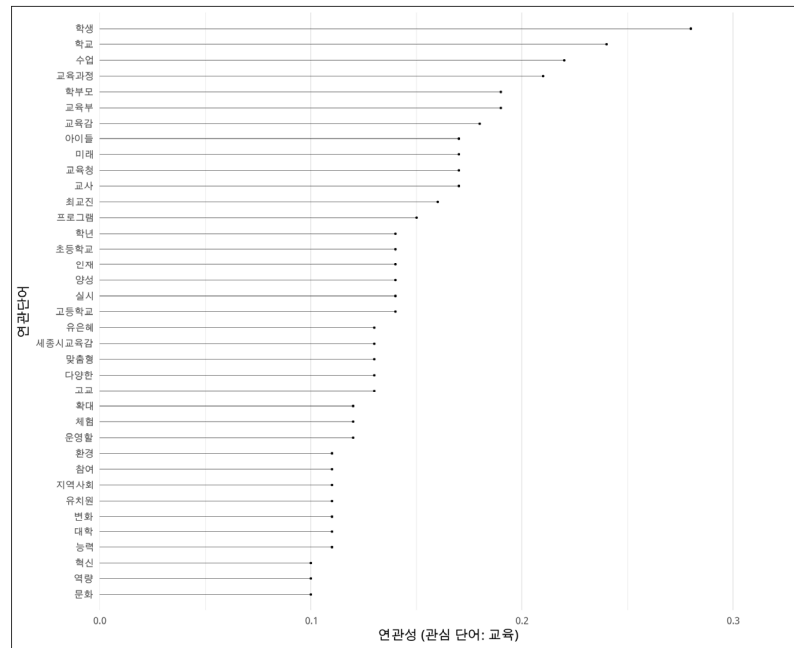
[그림2-12]는 네이버 뉴스 자료에서 명사와 형용사 단어들을 모두 이용하여 중요 단어들과의 상관관계가 0.2 이상인 단어들의 네트워크 맵이다. 짙은 파란색을 뿔수록 네트워크 내에서 연결성이 높음을 의미하며, 연결선이 짙을수록 높은 상관관계를 의미한다. 주요 단어로 경제, 교육, 교통, 부동산, 아파트, 정책, 주택을 선정하였고, 연결 중심성(Degree centrality) 척도를 이용했을 때 아파트가 네트워크 내에서 가장 중요한 단어로 나타났다.

### • 주요 단어별 연관 단어표 분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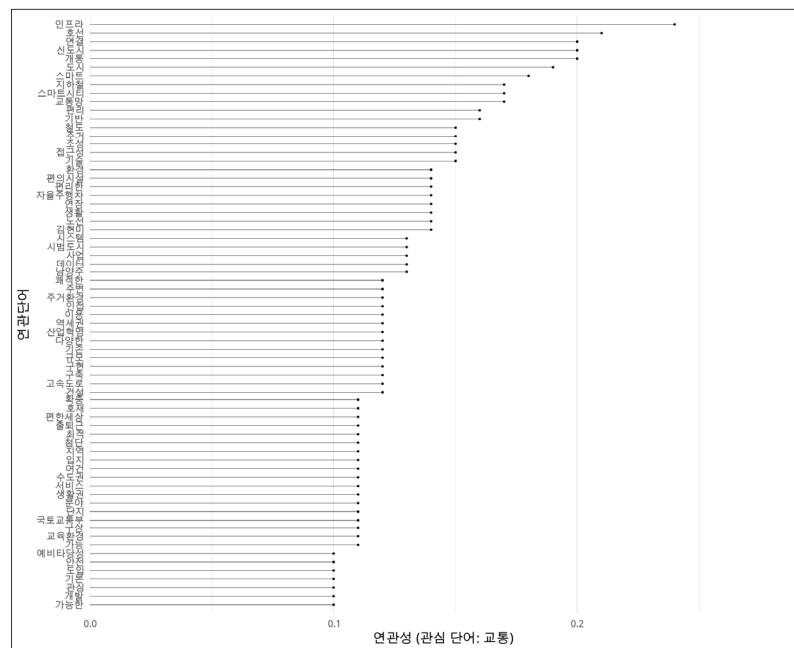
경제와 가장 연관성이 높은 단어는 활력과 성장으로 나타났다. 그 뒤를 이어 사회, 한반도, 어려움, 극복 등이 나타났다. 교육은 학생, 학교, 수업 등의 단어와 연관이 높으며, 세종시 교육부, 교육감 등의 단어도 연관 단어로 분석되었다. 교통은 인프라, 호선, 연결, 신도시 등의 단어와 높은 연관성을 보이며, 스마트, 스마트시티, 자율주행차 등의 단어들도 연관 단어로 분석되었다. 부동산은 집값, 대책, 다주택자, 강남, 가격 등의 단어가 높은 연관성을 보였다. 아파트는 분양, 단지, 분당, 보유, 잠실 등이 높은 연관성을 보이고, 송파구, 서초구, 분당구 등의 다른 지역 이름이 함께 연관을 나타냈다. 정책은 문재인, 대책, 완화 등과 연관성을 보이며 사회, 균형발전 등의 단어들도 연관 단어로 나타났다. 주택은 다주택자, 양도세, 주택자, 보유자 등의 단어들이 높은 연관성을 보이면서 주택 관련 정책 키워드가 연관 단어로 분석되었다. 지역은 수도권, 대구, 투기과열지구, 집값, 지방 등의 단어들이 높은 연관성을 보이면서 경기, 경북, 경남, 전남 등 다른 지역들이 연관 단어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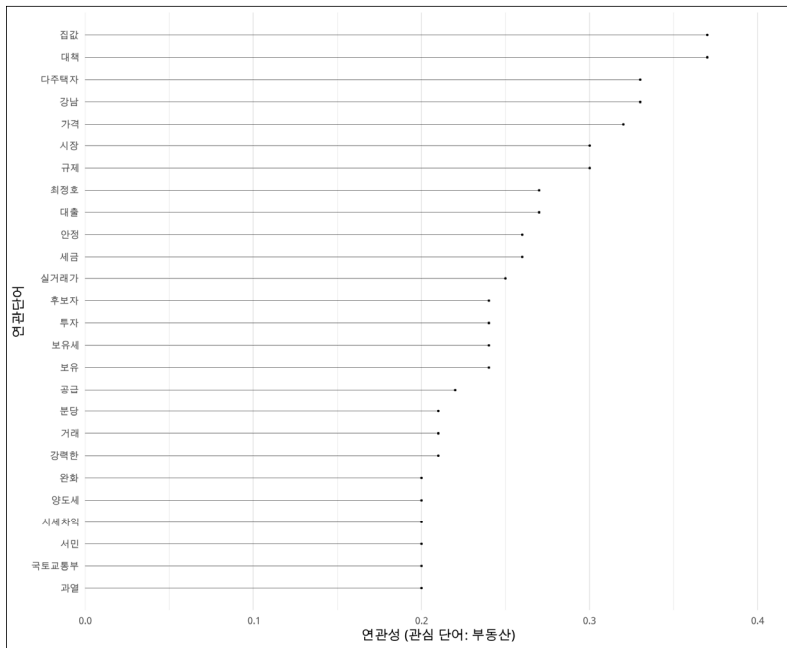
[그림 2-12] 관심 단어 '경제'의 주요 연관단어 (출처: 연구진 직접 작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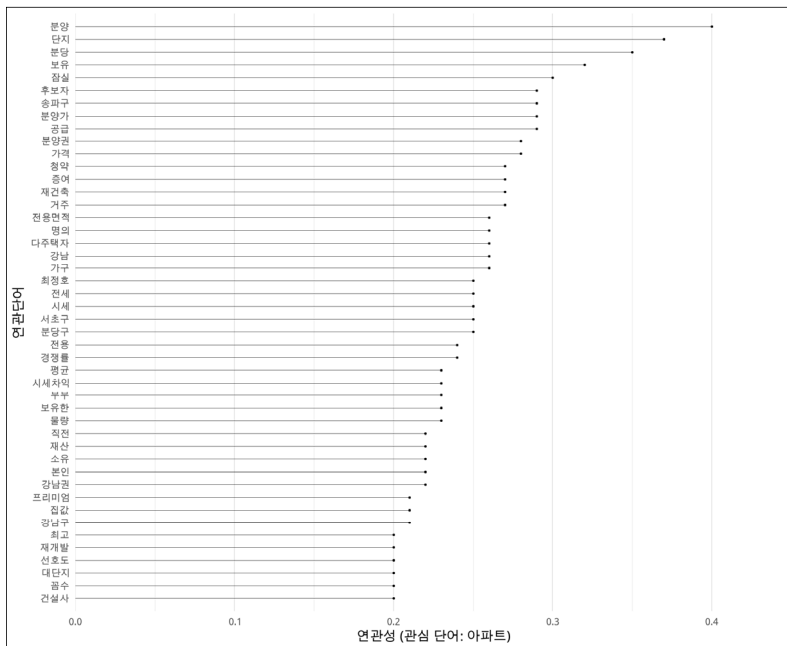
[그림 2-13] 관심단어 ‘교육’의 주요 연관단어 (출처: 연구진 직접 작성)



[그림 2-14] 관심 단어 ‘교통’의 주요 연관단어 (출처: 연구진 직접 작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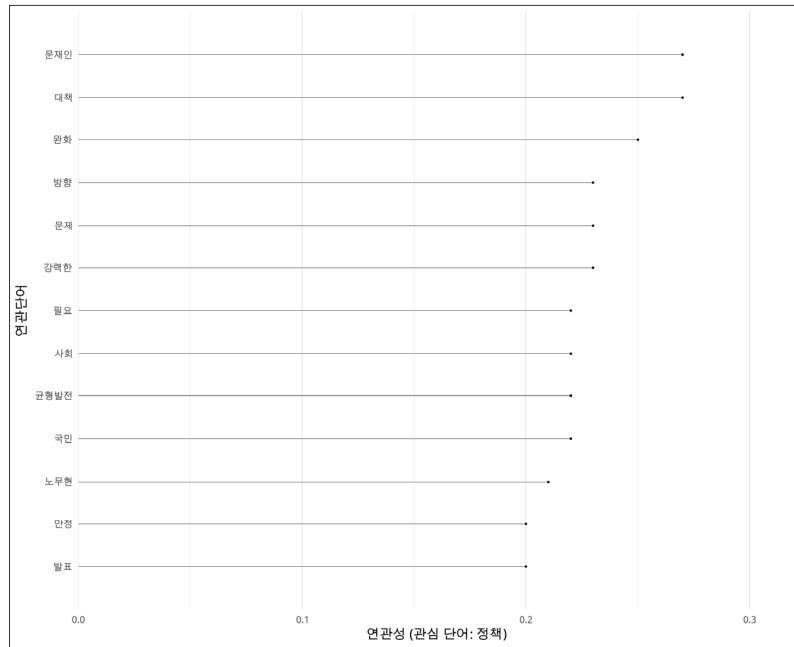


[그림 2-15] 관심 단어 '부동산'의 주요 연관단어 (출처: 연구진 직접 작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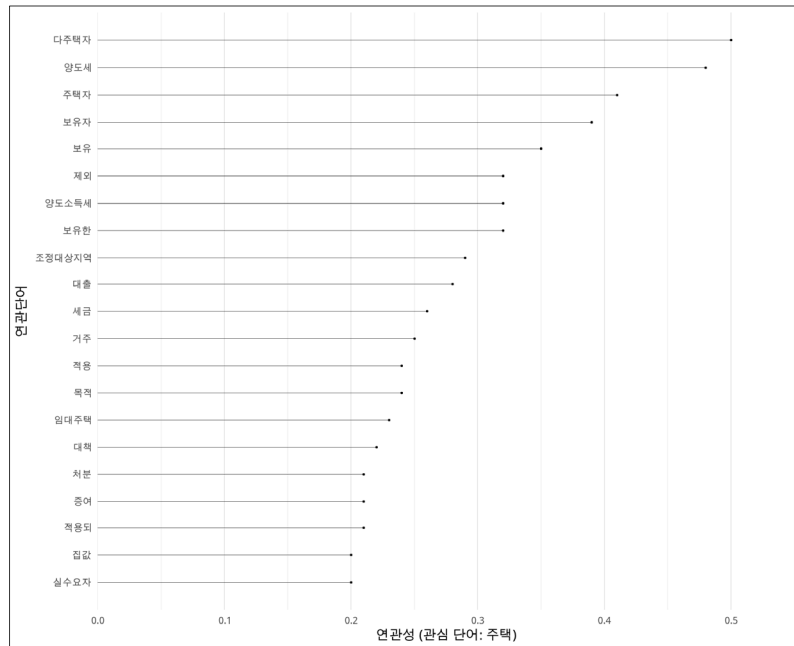


[그림 2-16] 관심 단어 '아파트'의 주요 연관단어 (출처: 연구진 직접 작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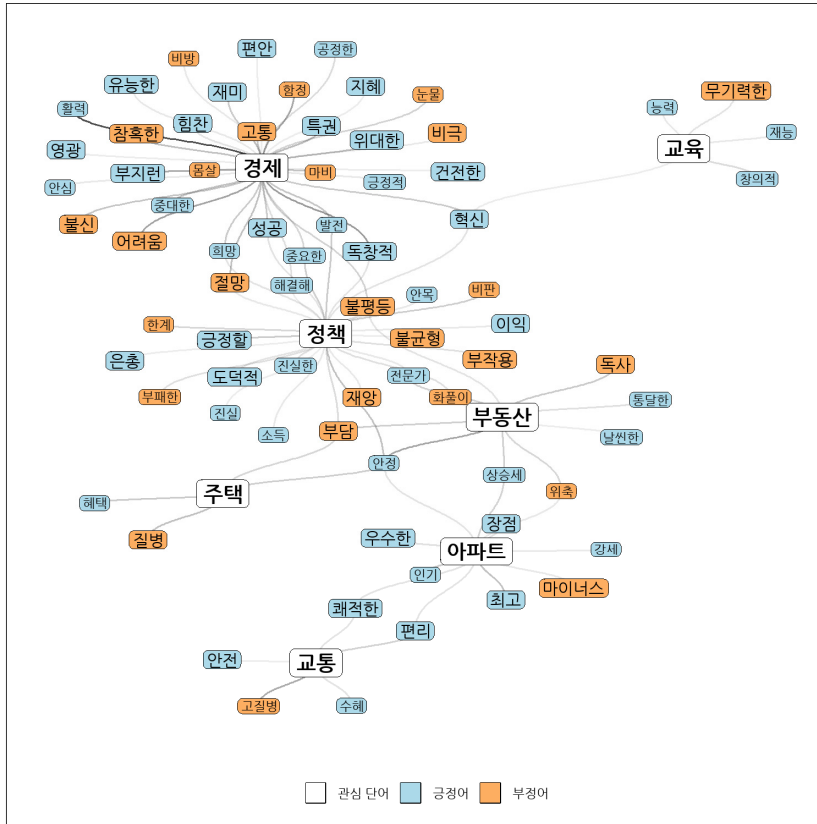
[그림 2-17] 관심 단어 ‘정책’의 주요 연관단어 (출처: 연구진 직접 작성)



[그림 2-18] 관심 단어 ‘주택’의 주요 연관단어 (출처: 연구진 직접 작성)

- 감성 분석

감성분석을 위해 앞서 분석한 방법들을 이용해 연관 단어들을 검색하고, 검색된 연관 단어들의 감성을 평가하는 과정을 거친다. 평가를 위해 단어의 감성을 정의한 사전이 필요하며, 이 분석에서는 구조가 단순하고 용이하게 이용할 수 있는 군산대학교 한국어 감성사전<sup>21)</sup>을 이용하였다. 단어의 크기가 클수록 감성 점수가 높음을 의미하며, 연결선이 짙은 색일수록 상관관계가 높음을 의미한다.



[그림 2-19] 감성 분석 네트워크 맵 (출처: 연구진 직접 작성)

[그림 2-19]를 살펴보면 긍정어의 비중이 전반적으로 높으며 각 주요 단어별로 상반되는 연관단어들이 나타났다. 예를 들면, 절망, 몸살, 고통 등 부정적 의미의 단어들이 경제와 연관되어 있으면서 동시에 희망, 성공, 발전, 독창적 등의 긍정적 의미의 단어들이 동시에 연관되어 있다.

21) KNU 한국어 감성사전, <https://github.com/park1200656/KnuSentiLex>(접속일: 2019.10.02.)

## □ 2018-2019년 언론보도 분석 종합

2018-19년 언론보도 분석은 세종시의 오늘을 보여준다. 형용사 중 ‘좋다’가 가장 많이 출현하고 감성분석에서도 긍정어의 비중이 높게 나타난 점은 긍정적이다. 형용사에서 ‘어렵다’와 함께 ‘새롭다’와 ‘다르다’의 빈도가 높게 나타나고, 명사 워드클라우드에서 ‘지역’, ‘아파트’, ‘사업’ 등의 단어의 출현 빈도가 높게 나타난 것은 2007년 이후 언론보도 경향 분석 결과와 마찬가지로 신도시와 아파트에 대한 관심이 높다는 사실을 보여준다. 반면, 세종시를 아파트가 많이 건설되는 신도시가 아니라 일상생활의 장소로 바라보는 관점은 드러나지 않는다.

## 3) 기존 논의 종합

선행 연구의 흐름과 언론보도를 통해서 본 사회적 논의의 흐름은 유사한 경향을 보인다. 국가균형발전정책과 행정수도 건설 계획에 대한 연구와 이에 대한 논란으로부터 시작해서 행정중심복합도시가 건설되기 시작하면서 이제까지와 다른 개념의 도시와 지역을 건설하고 새로운 행정구역인 세종특별자치시의 정책과 계획을 수립하기 위한 연구와 논의가 활발하게 이루어졌다. 세종시가 국가 정책에 따라 건설된 만큼 신도시 건설의 영향에 대한 논의는 국가균형발전 효과, 주변 지역과의 상생 등 국가와 광역권 차원의 영향에 초점이 맞춰졌다.

2015년 이후 세종시의 문화자원을 발굴하기 위한 역사·문화 연구가 증가하고, 2017년부터 지역학 논의가 본격적으로 시작되었다. 이는 세종시가 신규 건설과 계획의 대상지가 아니라 사람이 살아가는 하나의 지역으로 인식되기 시작했다는 사실을 보여준다. 행정중심복합도시 계획에 따라 조성된 도시환경에 대한 현황 진단, 만족도, 개선방향 연구가 단독주택지, 보행환경, 공원녹지, 복합커뮤니티 센터 등을 대상으로 수행되었는데, 이 과정에서 주민 이용 실태와 만족도에 대한 실증 조사가 이루어진 바 있다. 언론보도에서 지적된 편의시설 부족, 시설 공급과 수요 차이로 인한 불편, 문화시설 확충 등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세종시민의 인구사회학적 특성, 이동과 머무름 특성 등 일상생활 방식에 대한 연구가 수행되어야 할 것이다.

### 3. 세종시 연구 방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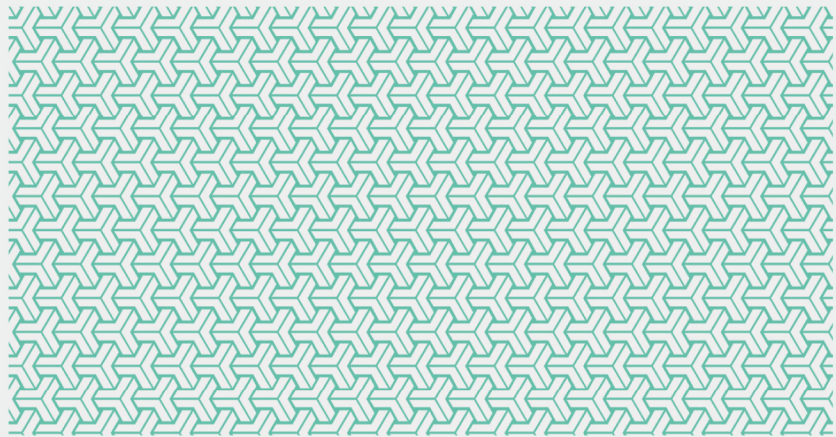
건축문화자산센터 지역 연구의 목적은 도시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 건축자산의 보전·활용 방향을 찾기 위함이며, 이를 위해 [도시 형성과 변화-도시 생성과 변화의 요인-일상생활과 장소]라는 지역 연구의 틀을 제시하였다.

하나의 지역에서 오랜 기간에 걸쳐 형성되고 변화한 도시들과 달리 세종시의 역사는 기존에 서로 다른 행정구역으로 성장한 지역에 국가 정책에 따라 건설지역이 들어서면서 시작되었다. 중앙 부처 이동이라는 초유의 상황에 도시 건설을 위해 수많은 연구가 이루어졌고 사회적 관심의 대상이 되었으며, 새로운 정책과 계획이 시도되었다.

이제까지 세종시 연구와 논의는 도시를 계획하고 만드는 과정에 초점이 맞춰져 있었으나, 일상생활과 장소에 대한 연구는 부족하였다. 삶의 장소로서 세종시의 정체성을 확립하고 살기 좋은 도시를 만드는데 기여하기 위해서는 계획으로 만들어진 도시에서 시민들이 어떻게 생활하고 있으며, 도시의 여러 장소에 대해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 파악하는 일이 중요하다. “장소는 일상적 실천의 산물이다. 장소는 결코 완성되지 않으며 실천의 반복, 즉 일상적 토대에서 틀에 박힌 활동으로 보이는 반복을 통해 생산된다.”는 팀 크레스웰(T.Cresswell, 2012:126-7)의 주장은 만들어지고 있는 도시 세종시의 연구 방향을 설정하는데 중요한 단서를 제공한다.

이에 세종시 연구는 도시 형성과 변화 과정에서 계획이 어떻게 수립되고 실현되었는지 살펴보고(3장), 세종시 주민들의 일상생활과 장소인식을 조사하는(4장) 두 단계로 진행하고자 한다. 계획도시에서 주민의 일상생활과 장소인식 분석 결과는 계획의 성과와 한계를 점검하고 향후 도시 발전 방향을 설정하는 근거로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 제3장 세종시의 형성과 변화



1.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 이전
2. 행정중심복합도시 세종시
3. 행정중심복합도시의 건설과 세종시의 변화

## 1.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 이전

### □ 세종시의 자연·지리적 환경<sup>22)</sup>

세종특별자치시는 충청권의 중심에 위치하며, 남쪽으로 대전광역시, 북쪽으로 충청남도 천안시, 동쪽으로 충청북도 청주시, 서쪽으로 충청남도 공주시와 맞닿아 있다. 세종시의 지형은 전체적으로 북고남저이며, 미호천과 금강 본류가 합류하는 세종특별자치시 연기면 세종리·금남면 일대에는 넓은 하성평야(범람원)가 발달되어 있다.

### □ 세종시의 형성

세종시는 국가의 균형발전정책에 따라 만들어진 도시로써 2012년에 출범한 나이 7년의 도시이지만<sup>23)</sup>, 백지 위에 만들어진 도시가 아니라 전의, 연기, 금남 등 다른 이름으로 발전해 온 지역이 ‘세종특별자치시’라는 새로운 행정구역으로 재편된 것이다<sup>24)</sup>. 따라서 세종시의 형성은 광역적 고찰을 통해 이해해야 한다.

이 지역에는 구석기, 신석기 시대부터 주거지가 존재했으며, 청동기 시대부터는 연기군 동면, 서면, 금남면 각지에서 유물과 지석묘, 주거지가 발굴되었다. 삼국시대 백제의 영토에 속해 구지현(仇知縣), 두잉지현(豆仍只縣) 등으로 발전해 오다가 통일신라시대 전의지방이 금지라는 이름으로 불렸고 연기현은 연산군에 속하여 이 시기부터 연기라고 불렸다. 이후 고려시대 전의현, 조선시대에는 이를 다시 복구하여 연기현이 되었으며 고종 32년(1895)에 전국 지방 관제를 개정에 따라 연기군이 되었다. 1911년 군청을 조치원으로 이전하였으며, 1931년 면제 개정에 따라 조치원읍을 신설하였다. 이후에는 동리의 편입, 행정구역 명칭 변경 외에는 큰 변화가 없었다<sup>25)</sup>.

### □ 세종시 도시형성 과정

현재 세종특별자치시는 신도시와 조치원읍을 중심으로 한 구도심으로 양분되어

22) ‘한성문화재연구원(2018), 「세종 신대리(395-1번지) 국비지원 문화재 지표조사 보고서」, 한국매장문화재협회.’를 참조하여 재정리하였다.

23) 세종시는 「세종특별자치시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2012년 7월 1일 출범하였다.

24) 세종시 출범 당시 연기군을 중심으로 충남 공주시 및 충북 청원군 일부가 편입되었다.

25) 세종특별자치시청 홈페이지의 ‘행정연혁’을 참조하여 재정리하였다.

[https://www.sejong.go.kr/kor/sub01\\_0402.do](https://www.sejong.go.kr/kor/sub01_0402.do)(접속일: 2019.4.18.)

있다.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과 관련된 논의가 시작되었던 1970년대 이전까지는 조치원역이 위치한 조치원읍이 중심이 되어 도심부 역할을 해왔고, 1931년 조치원읍의 신설 이전에는 1914년 연기군으로 통합된 남면(현 연기면)의 연기리(燕岐理)와 전의면의 읍내리(邑內理) 일대에 읍치(邑治)가 위치해 조선시대 세종 지역의 중심지 역할을 했던 것으로 추정된다.



[그림 3-1] 18세기 대 연기(燕岐)



[그림 3-2] 18세기 대 전의(全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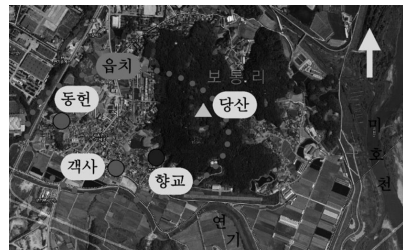
출처: 국립중앙도서관, 『여지도(輿地圖)3』, 간사지미상, 간사자미상, 영조 52(1776) 이후.

읍치는 지방행정의 도시기능을 담당했던 곳이자 교통의 결절지로서 중앙정부에서 파견한 지방관과 행정업무를 보조하는 향리들의 업무 공간인 동헌, 객사, 향청 등이 위치하였다. 현재 세종 지역에서는 동헌이나 객사의 모습이 확인되지 않고 ‘객사터’, ‘동헌터’, ‘아사터’, ‘교촌’ 등 지명으로 확인할 수 있는 터만 전해지고 있지만 조선후기 제작된 각종 고지도에서 연기, 전의 읍치의 동헌과 객사의 위치 및 건물 방위를 확인할 수 있다<sup>26)</sup>.



[그림 3-3] 1923년 연기군 남면(현 연기면)의 연기리(燕岐理) 일대

출처: 『淸州203』(1914, 일부), 국토정보맵 소장



[그림 3-4] 연기현 읍치의 입지 및 공간 구성

출처: 권선정(2017), “한국의 전통보시 읍치를 통해 본 세종시의 지역역사지리”, 『문화역사지리』 제29권 제4호, p.63.

26) ‘권선정(2017), “한국의 전통보시 읍치를 통해 본 세종시의 지역역사지리”, 『문화역사지리』 제29권 제4호, p.63’을 참조하여 재정리하였다.



## □ 세종시의 구도심 조치원읍의 성장과 변화, 연기군의 행정 중심<sup>27)</sup>

조치원읍은 우리나라에서 가장 오래된 읍 중 하나로 논산시 강경읍에 이어 면적이 두 번째로 좁다. 조치원은 조선시대 연기현 북쪽에 위치한 변두리 지역으로 1901년 경부선 철도 설치를 위하여 일본인 측량대가 머물며 일본인의 거주가 시작, 1905년 보통역으로 개통되어 본격적으로 운영되면서 신흥도시로 부각되었다. 1914년 5월 26일, 전통적인 8도제가 폐지되고 23부제로 행정체제가 재편되면서 전의군 전체를 통합한 통합 연기군이 등장하였고 북면 10개 동리의 하나로 조치원리가 신설되었으며, 군청 소재지가 철도역이 있는 조치원으로 이전되면서 과거 읍치였던 연기리보다 발전하였다<sup>28)</sup>. 이후 경부선·호남선이 개통, 충청권 물류 중심도시로서 역할을 담당하였고 1931년 조치원읍으로 승격되었다.



[그림 3-5] 1914년 조치원역 부근

출처: 『淸州203』(1914, 일부), 국토정보맵 소장



[그림 3-6] 현재 조치원역 부근

출처: 카카오맵(접속일: 2019.11.04)

조치원읍의 등장 이후 1960년 대 경부고속도로의 개통으로 경부선 철도 역할이 상대적으로 위축, 특히 청주IC가 운영되면서 조치원의 물류거점 역할은 상당한 타격을 입게 되었다. 이후 조치원 인근 도시인 대전과 청주는 도청소재지, 천안은 교통의 요지와 수도권 규제 수혜지로의 성장, 공주는 역사적 지역 중심지와 국립대학교, 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 등의 시설을 유치한다. 인근 도시의 성장에 비해 조치원은 발전하지 못해 시로 성장하지 못하고 읍으로 남아있다.

27) 이하 내용은 <한성문화재연구원(2018), 「세종 신대리(395-1번지) 국비지원 문화재 지표조사 보고서」, 한국매장문화재협회.>와 <세종특별자치시(2018), 「세종형 도시 재생, 청춘조치원 프로젝트 백서」>를 참조하여 재정리하였다.

28) 최원희(2012), “일제 식민지 근대도시 조치원의 출현요인, 도시체계상에서의 위상 및 도시내부구조 형성과정”, 『한국지리학회지』 vol.1, no.1, 통권 1호, pp.99-123.’을 참조하여 재정리하였다.



## 2. 행정중심복합도시 세종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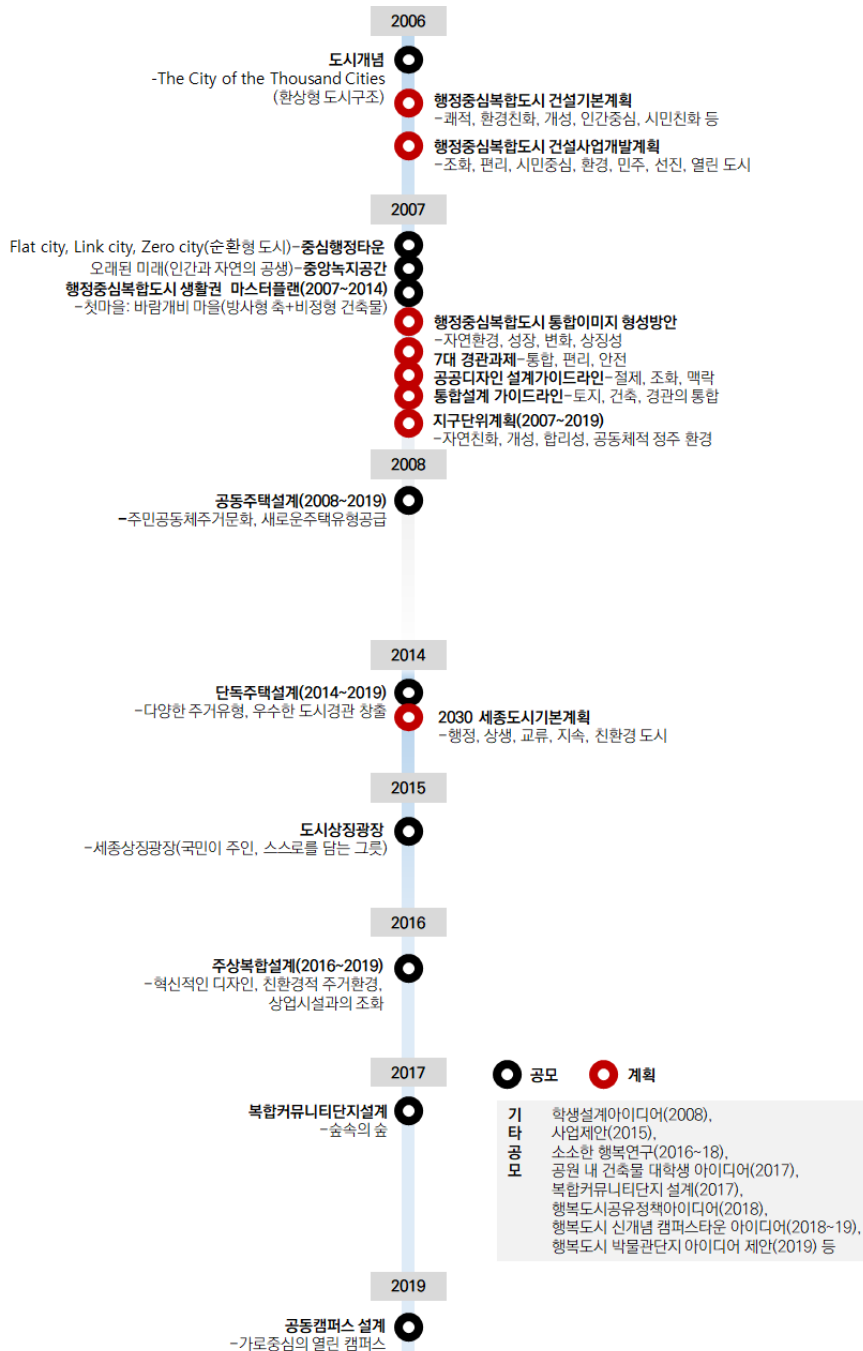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과 관련된 논의의 시작은 1977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박정희 대통령은 수도권의 인구 집중을 억제하기 위해 행정수도를 이전할 계획을 세웠으며 1977년에 「행정수도 건설을 위한 특별조치법」이 제정되었으나 1980년 관련 업무가 중단되었다. 행정수도 논의는 2002년 당시 노무현 대통령 후보의 공약으로 다시 시작되었으며, 2004년에 「신행정수도의 건설을 위한 특별조치법」이 공포되고 2004년 8월에 연기·공주가 입지 지역으로 확정되었다. 이후 불문헌법에 따라 「신행정수도의 건설을 위한 특별조치법」이 위헌이라고 판결되고(2004)<sup>29)</sup>, 2010년에는 도시 개념을 ‘행정중심복합도시’에서 ‘교육과학중심 경제도시’로 변경하는 수정안이 발표되는 등의 논란이 있었으나, 2006년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이 ‘행정도시 건설기본계획(안)’을 발표하였으며 2007년에 행정중심복합도시가 착공되고 2012년에는 세종특별자치시가 출범하여 오늘에 이른다.

“행정중심복합도시는 국토의 균형발전을 실현하기 위한 핵심도시라는 의미도 컸지만, 2000년대 이후 진행된 상징적인 도시계획이라는 측면에서 세계 도시사적으로 가지는 의미 또한 매우 크다 하겠다.”

출처: 권영상(2012), “도시계획의 새로운 이정표, 세종시 계획수립과정”, 「LHI Archives」 v.010, 토지주택연구원, pp.26-37.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 과정은 실험의 연속이었다. 특히 도시의 물리적 환경을 만드는 도시계획, 조경, 건축, 교통 분야에서 21세기 새로운 계획 경향을 반영한 다양한 시도가 이루어졌다. 2005년 도시개념 공모 후 당선된 5개 안을 바탕으로 행정중심 복합도시 건설기본계획 및 건설사업개발계획이 발표되었다. 이 후 2007년에는 중앙녹지공간 설계 국제공모 후 생활권 마스터플랜, 행정중심복합도시 통합이미지 형성방안, 7대 경관과제, 공공디자인 설계가이드라인, 통합설계가이드라인 등이 수립되었다. 2014년에는 중심행정타운 설계 공모를 실시하였으며 2030 세종도시 기본계획이 수립되었다. 이 외에도 단독주택 설계 공모, 도시상징광장, 주상복합설계, 복합커뮤니티 단지 설계 공모 및 생활권 지구단위 계획과 공동캠퍼스 설계 공모가 시행되었다.

29) 헌법재판소는 “서울이 수도라는 점은 헌법상 명문의 조항이 있는 것은 아니지만 조선 왕조 이래 600여 년간 오랜 관습에 의해 형성된 관행이므로 관습헌법으로 성립된 불문헌법에 해당된다”고 하여 「신행정수도의 건설을 위한 특별조치법」이 위헌이라고 판결하였다. 이후 신행정수도가 아닌 ‘행정중심복합도시’로 명칭과 성격을 변경하여 사업이 추진되었다.



[그림 3-7]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 관련 공모 및 계획

출처: 행정중심복합 도시디자인 홈페이지, <https://www.happycity2030.or.kr/>(접속일: 2019.12.03.)

## 1)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 관련 공모

2006년 시행된 도시개념 공모 작품들에는 전에 없었던 새로운 시도가 담겨 있었다. 안드레스 페레아(A.P.Ortega)의 환상(環狀)형의 도시구조가 당선되었으며 이는 도시형태에 적용되었다. 페레아의 도시조직은 다양한 장소와 다양한 관계를 생성하는 열린 조직의 구성방식을 담고 있다. 도시기능의 분산 배치에는 장 피에르 뒤릭(Jean Pierre Durig)의 거점형 분산배치를 선택하였다. 결국, 세종시는 열린 도시조직을 구현하기 위한 구성방식의 도시를 조성하고자 하였다. 이를 근간으로 같은 해,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기본계획과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사업 개발계획이 조성되어 세종시 형성을 위한 본격적인 시도가 이루어졌다.

### 행정중심복합도시 “도시개념” 공모의 기본방향

- 기능의 다양성
- 기능의 비결정성
- 사건의 생성
- 열린 조직

출처: 한서영(2014), 「행정중심복합도시 도시형태의 형성과정에 관한 연구」, 서울시립대학교 건축대학원 박사학위논문, p. 90을 참고하여 작성

2007년의 중심행정타운 공모는 주거, 상업, 업무, 문화 등 다양한 도시 기능이 복합적으로 어우러지는 장소 형성을 위하여 실시되었다. 해당 공모는 행정중심복합도시의 목적과 취지를 구현할 수 있도록 정부청사와 시민들의 일상생활이 영위되는 공간을 형성하여 다양한 기능과 장소들의 어우러짐을 목표로 하였다. 이후, 본 공모의 선정작을 바탕으로 서로 다른 부처를 연결하는 형태로 중심행정타운이 계획되었다.<sup>30)</sup>

### 행정중심복합도시 “중심행정타운” 공모의 목표

- 미래 대한민국의 중앙행정기능 및 도시기능을 엮어 내는 새로운 장소로서 또한 행정중심복합도시의 행정기능이 지나는 역활의 미래지향적인 상징적 이미지 제시(Iconic Place)
- 공간, 환경, 기능 등 다양한 요인들이 조화되는 새로운 도시상을 제시, 도시 기본계획과 개발계획의 구체적 실현(Networking Place)
- 복합적인 커뮤니티의 조화로운 통합(Integrating Place)

출처: 대한건축학회(2007), 「행정중심복합도시 중심행정타운 조성 국제공모 연구 및 관리」,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p.86을 참고하여 작성

2007년 시행된 중앙녹지공간 공모는 활력 있는 행정자족도시, 친환경도시, 인간중심도시, 문화정보도시를 지향하는 세종시의 중심녹지공간을 조성하기 위하여

30) 행복중심도시건설청 중심행정타운 공모, [https://www.happycity2030.or.kr/competition/?act=sub5\\_3](https://www.happycity2030.or.kr/competition/?act=sub5_3)(접속일: 2019.11.29.)

시행되었다. 중앙녹지공간은 환상형 도시 구조를 근간으로 계획되었다. 이는 행정중심복합도시의 철학적 좌표인 비위계성과 탈중심성을 구현하는 물리적 기반이며 도시 경관의 기반이 되는 대규모 오픈스페이스로서 조성되었다. 당선작으로는 논을 그대로 유지한 생산 성격의 디자인이 당선되었다.<sup>31)</sup>

#### 행정중심복합도시 “중앙녹지공간” 공모의 목표

- 미래지향적 도시 인프라 구축
- 자족적 도시 기능 확보, 품격 높은 친환경적 도시 디자인 구현
- 랜드스케이프 어바니즘(landscape urbanism), 조경이 만드는 도시 실현
- 도시문화와 적극 소통, 도시의 발전을 창출하는 역동적 공원 조성
- 탈중심적·비위계적·민주적 도시 철학의 물리적인 실현을 위한 기반 마련
- 도시 경관 전체의 수평적 틀로 작동하는 오픈스페이스 허브(hub) 조성

출처: 행복중심복합 도시디자인 홈페이지를 참고하여 작성,  
[https://www.happycity2030.or.kr/competition/?act=sub3\\_3](https://www.happycity2030.or.kr/competition/?act=sub3_3)(접속일: 2019.11.29.)

또한, 행정중심복합도시 생활권 마스터플랜 중 주거단지인 첫마을 공모에서는 자연 지형을 최대한 활용한 안이 채택되었다. 이는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선도할 최초의 사업으로 상징적이고 모범적인 주거지로 개발하여 후속 개발의 본보기가 될 수 있는 미래지향적 커뮤니티를 조성하여 행정중심복합도시의 중장기 비전과 성공적 추진 의지를 시현하고자 하는 공모사업이었다. 용지의 조성 및 공급, 도시 및 건축설계 등에 있어서 기존의 획일적 개발방식을 탈피하고 혁신적이며 지속가능한 실험적 모델을 제시하기 위함이었으며 자연과의 조화와 인간친화, 미래와의 소통과 편리하고 안전한 주거공간 실현을 목표로 하였다.<sup>32)</sup> 이러한 공모들을 바탕으로 같은 해, 행정중심복합도시 통합이미지 형성방안, 7대 경관 과제, 공공디자인 설계 및 통합설계 가이드라인 등이 수립되었으며 이를 바탕으로 세종시의 도시형성을 위한 다양한 계획들이 시도되었다.

#### 행정중심복합도시 생활권마스터플랜 공모의 목표 - 2-3생활권(첫마을)

- “자연과 조화롭고 공해가 없는 첫마을(환경성)”
- “인간친화적인 커뮤니티 문화를 선도하는 첫마을(사회성)”
- “미래형 주거와 개성있는 경관이 연출되는 첫마을(심미성)”
- “편리하고 안전하게 정주할 수 있는 첫마을(편리성)”

출처: 행복중심복합 도시디자인 홈페이지를 참고하여 작성,  
[https://www.happycity2030.or.kr/competition/?act=sub5\\_3](https://www.happycity2030.or.kr/competition/?act=sub5_3)(접속일: 2019.11.29.)

31) 행복중심도시건설청 중앙녹지공간 공모, [https://www.happycity2030.or.kr/competition/?act=sub3\\_3](https://www.happycity2030.or.kr/competition/?act=sub3_3)(접속일: 2019.11.29.)

32) 행복중심도시건설청 첫마을 공모, [https://www.happycity2030.or.kr/competition/?act=sub5\\_3](https://www.happycity2030.or.kr/competition/?act=sub5_3)(접속일: 2019.11.29.)

2008년부터 최근까지 시행된 공동주택 설계 공모는 지구단위계획이 이루어진 생활권 중 10개 지역에 대한 공동주택 단지 공모로, 해당 공모들은 주민 공동체 중심의 주거문화 형성과 새로운 주택유형공급을 위하여 시행되었다. 특히, 생활권 전체 시설의 조화로운 연계방안을 고려하여 마을 단위의 도시공동체문화의 장으로 조성될 수 있도록 설계공모 지침을 마련하였다.<sup>33)</sup> 당선작들은 각 생활권의 자연스러운 스카이라인을 형성함으로써 생활권을 상징하는 특색 있는 경관을 통한 장소적 의미를 만들고자 하였다. 이 후, 이러한 공모들을 기반으로 세종시 건설을 위한 구체적인 계획이 시행되어 최근에 이르기까지 특색 있는 도시형태, 자연경관 조성, 주민공동체형성 등을 목표로 다양한 공간이 조성되었다.

2019년에는 공동캠퍼스 설계공모를 통하여 행정중심복합도시의 도시기능 확충 및 지속가능한 발전구상을 위하여 국내·외 교육 및 연구기관이 공동으로 입주할 수 있는 공동캠퍼스를 조성하고자 하였다. 대상지는 4-2생활권 내 대학용지로 일반설계공모와 2단계 설계공모를 통하여 마스터플랜과 임대형 캠퍼스 내 단지 및 건축설계작을 공모하였다. 이는 세종시의 자급적인 장소 형성을 목표로 행정, 생활, 교육이 조화로운 도시형성을 위한 것으로 새로운 행정도시로서 보다 풍요로운 주민들을 위한 공간조성을 목표로 한다. 이 외에도 도시상징광장, 복합커뮤니티센터, 주상복합, 단독주택설계 공모 등 도시형태, 기능, 환경, 복지 등의 분야에서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 관련 공모가 시행되었으며, 이를 통하여 다양한 유형의 장소 형성을 위한 도시적 차원의 노력이 지속되었음을 알 수 있다.



[그림 3-8] 도시개념 국제공모 당선작 “The City of the Thousand Cities”(A.P.Ortega)  
출처: <https://www.happycity2030.or.kr/>(접속일: 2019.10.15.)



[그림 3-9] 중앙녹지공간 국제공모 당선작 “오래된 미래”  
출처: 권영상(2012:35)에서 재인용

33) 행복도시 해밀리 공동주택 설계공모 당선작 선정, <https://news.joins.com/article/20963507>(접속일: 2019.12.03.)



[그림 3-10] 첫마을 마스터플랜 국제공모 당선작 “바람개비 마을”

출처: 에이엔씨출판 편집부(2006), 「월간 건축문화」 No.305, 에이엔씨, p.162.



[그림 3-11] 중심행정타운 국제공모 당선작 “Flat city, Link city, Zero city”

출처: <http://m.haeahn.com/en/project/detail.do?prictSeq=667>(접속일: 2019.10.15.)

## 2) 행정중심복합도시의 주요 계획

2006년의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기본계획」은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제 19조의 규정에 의해 수립되었다.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이 제정된 2005년을 기준년도로 하였으며, 도시 자족기능을 확보하여 성숙단계에 이르는 2030년을 목표연도로 하여 계획을 수립하였다. 단계적 인구유입방안을 마련하여 도시개발을 추진하되 2030년에는 예정지역 기준으로 인구 50만 명 보유를 목표로 하였다. 공간적 범위로는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특별법 제 11조와 제 12조 규정에 의해 중앙행정기관 등의 이전과 이에 따른 시가지 조성을 위하여 지정된 예정지역으로, 충청남도 연기군 동면·금남면·남면 일원, 공주시 반포면·장기면 일원의 약 73.14km<sup>2</sup>를 그 범위로 한다. 도시개념 공모 당선작인 페레아의 환상형 구조를 적용하였으며 중앙은 오픈스페이스로 조성, 시민들의 공유와 휴식을 위한 공간으로 계획하였다. 또한, 오픈스페이스와 연계하여 도시의 쾌적성이 증대될 수 있도록 도시경관계획을 조성하였다. 추가적으로 이러한 계획을 성공시키기 위하여 대중교통축과 도시교통체계를 조성하였다. 이 외에도 행정중심복합도시는 다양한 공간적 계획을 시행하여 시민을 위한 다양한 장소형성을 위한 개발 방향을 제시하였다.<sup>34)</sup>

같은 시기에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사업 개발계획」이 수립되었는데, 이는 국토

34)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2006),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기본계획」, 건설교통부>의 내용을 참고하여 요약 작성.



####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사업 건설기본계획」의 부문별 도시 개발방향

- 쾌적하고 살기좋은 주거지의 계획
- 환경친화적인 생태순환도시
- 아름답고 개성있는 녹색도시 조성
- 편리하고 인간중심적인 교통체계
- 시민친화적이며 효율적인 청사 배치
- 수준 높은 연구 환경 조성을 위한 연구기관 배치
- 다양하고 질 높은 선진 교육환경 조성
- 품격높고 풍요로운 문화인프라 구축
- 건강한 삶을 제공하는 복지인프라 구축
- 안전한 도시 구축을 위한 방호 및 방재 계획
- 미래지향적인 첨단 정보·통신계획
- 전통 문화유산의 보존과 계승
- 경제적이고 체계적인 기반시설 조성

출처: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2006),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사업 건설기본계획」, 건설교통부, p.65를 참고하여 작성

에 대한 균형발전과 미래지향적인 도시모델 제시를 목적으로 한다. 도시건설에 대한 구체적이고 창의적 세부 계획을 작성, 계획의 실천력 제고와 실시계획 등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였다. 건설기본계획과 마찬가지로 2005년을 기준으로 건설 지역의 건설 목표연도가 2030년임을 감안, 시간적 계획을 수립하였으며 공간적 범위로는 충청남도 연기군 금남면, 동면, 남면 일원 및 공주시 반표면, 장기면 일원의 약 72.911㎢이 그 대상이다. 세부적으로는 토지이용계획과 인구구조, 교통 계획, 환경·하천·경관 및 주요 공공시설과 편의시설·문화재보호 등의 계획을 포함하였다.<sup>35)</sup> 특히, 환경 친화적이고 안정성이 확보된 도시 구축을 통하여 인간 중심의 도시를 구현하고자 하였다. 이렇듯 시민들과의 조화와 역사, 문화, 환경이 보전되는 지속가능한 도시로서 다양한 장소 형성을 위한 방안을 제시하고자 하였다.<sup>36)</sup>

####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사업 개발계획」의 목표

- 조화로운 민주도시
- 시민중심의 열린도시
- 환경이 보전되는 지속가능 도시
- 편리한 선진 도시
- 역사·문화가 살아있는 아름다운 도시
- 재해에 안전한 도시

출처: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2006),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사업 개발계획」, 건설교통부, p.35를 참고하여 작성

35) 위의 책, p.35.

36)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2006),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사업 개발계획」,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의 내용을 참고하여 요약 작성.

2007년에는 「행정중심복합도시 통합이미지 형성방안」 연구를 통하여 생활권 특성을 고려한 창의적인 도시설계를 유도하기 위한 계획을 마련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하여 행정중심복합도시 통합이미지 형성을 위한 사전분석과 권역별 이미지 특화방안을 제시하여 도시이미지 구성요소별 특화방안과 중점 경관요소 관리계획을 제안하였다. 또한, 통합이미지 형성을 위한 경관분야별 계획과 환경계획을 수립하였으며 생활권별 지구단위계획에 적용방안을 통하여 세종시의 통합적 장소 이미지 형성을 위한 세부 계획을 제안하였다. 이러한 계획들은 중심지, 경관, 오픈스페이스 구상을 통하여 자연환경과의 조화, 성장과 변화가능성, 도시의 상징성과 이미지를 강조하고자 하였다.<sup>37)</sup>

#### 「행정중심복합도시 통합이미지 형성방안」의 기본원칙 중 장소 관련 내용

- 자연환경과의 조화 추구
- 성장과 변화가능성 제고
- 도시의 상징성과 이미지 통합

출처: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2007), 「행정중심복합도시 통합이미지 형성방안」의 내용을 참고하여 작성

2014년에는 국토경쟁력 제고를 위한 국가균형발전전략 제시, 도시계획 패러다임 변화 추구라는 배경 하에 세종시 도시발전 미래상의 재정립, 지속가능 도시발전 방향 제시, 도시혁신의 선도거점 조성, 계획적 도시성장기반 마련, 효율적인 도시개발체계 구축 및 관리체계 확립을 목적<sup>38)</sup>으로 「2030 세종도시기본계획」을 수립하였다. 계획수립시점으로부터 20년을 기준으로 2030년까지 시간적 범위가 수립되었으며, 공간적 범위에는 읍면지역 391.7km<sup>2</sup>, 건설지역 73.1km<sup>2</sup>이 반영되었다.<sup>39)</sup> 세부사항으로는 주거지, 공원녹지, 공원녹지, 하천, 교육문화, 보건의료복지시설 및 주요기반시설 등에 대한 설치와 문화재 보호 및 도시방호·방재를 실시하고 있다.<sup>40)</sup> 이를 통하여 행정, 인구, 역사, 문화, 경제, 자연을 아우르는 도

#### 「2030 세종도시기본계획」의 2030년 도시미래상

- 국가 중추행정기능을 수행하는 “행정도시”
- 지역·세대·계층 간 조화로운 “상생도시”
- 역사·문화·사람·과학이 소통하는 “교류도시”
- 경제·산업이 역동하는 “자족도시”
- 자연과 더불어 숨쉬는 “친환경도시”

출처: 세종특별자치시(2014), 「2030 세종도시기본계획」, 세종특별자치시, p.48을 참고하여 작성

37)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2007), 「행정중심복합도시 통합이미지 형성방안」,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의 내용을 참고하여 요약 작성.

38) 세종특별자치시(2014), 「2030 세종도시기본계획」, 세종특별자치시, p.3.

39) 위의 책, p.4.

40) 위의 책, p.5.



시공간을 조성하고자 하였다.

행정중심복합도시 7대 경관과제는 건축물 미관형성 등의 기본 방향을 정립하여 기존 신도시 등에서의 문제점과 한계를 극복, 차별성 있는 계획을 수립하여 도시민의 정주환경수준을 질적으로 제고하고자 계획되었다. 특히, 행정중심복합도시 고유의 정체성, 쾌적성, 유연성을 기본목표로 다양한 문화 활동을 유도할 수 있는 커뮤니티 조성, 도시맥락을 고려한 개방감 확보, 주변지역과의 소통을 통한 점진적 변화 등을 추구하였다. 건축물 미관, 옥외광고물, 도시환경색채, 공공시설물, 야간경관, 도시구조물, 공원녹지수변공간에 대한 내용을 다루고 있으며 이를 통하여 행정중심복합도시의 경관형성을 통한 장소적 이미지를 구축 하고자 하였다.<sup>41)</sup>

#### 행정중심복합도시「7대경관과제」가이드라인 기본방향

- 정체성, 쾌적성, 유연성

출처: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2007),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축물 미관기준 연구」,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p.112를 참고하여 작성

행정중심복합도시 공공디자인 설계 가이드라인은 분야별(도시공간영역의 도시구조물, 건축, 공공시설물 등), 관리주체별(민간, 공공, 민간과 공공의 경계부), 시설별 과업간의 통합성 및 조화성을 유도하여 도시공간을 대상으로 한 통합설계의 실효성을 높이하고자 수립된 계획이다. 일반도로, 외곽순환도로, 특화가로의 도시공간을 특수구조물, 토목, 건축, 조경, 공공시설물의 하위시설과 연계하여 설계지침을 제시하였다. 특히, 세종시의 공공디자인은 ‘Green Design’을 통해 인간과 환경과의 올바른 관계를 구현하고자 하였으며 인간 친화적이고 자연친화적인 디자인을 통하여 행정중심복합도시의 공간적 통합이미지를 구축, 제고하고자 하였다.<sup>42)</sup>

#### 행정중심복합도시「공공디자인 설계 가이드라인」설계원칙

- 절제된 디자인(Simple)
- 조화로운 디자인(Harmony)
- 맥락적인 디자인(Sequence)

출처: 행정중심복합 도시디자인 홈페이지를 참고하여 작성,  
[https://www.happycity2030.or.kr/urbandesign/?act=sub3\\_1](https://www.happycity2030.or.kr/urbandesign/?act=sub3_1)(접속일: 2019.12.03.)

41) 행정중심복합도시 7대 경관과제, [https://www.happycity2030.or.kr/urbandesign/?act=sub2\\_1\\_1](https://www.happycity2030.or.kr/urbandesign/?act=sub2_1_1)(접속일: 2019.11.29.)

42) 행정중심복합도시 공공디자인, [https://www.happycity2030.or.kr/urbandesign/?act=sub3\\_1](https://www.happycity2030.or.kr/urbandesign/?act=sub3_1)(접속일: 2019.11.29.)

행정중심복합도시 통합설계 가이드라인은 도시민의 편의성과 안전성을 갖춘 창의적인 통합설계 유형을 마련하고자 수립된 계획이다. 도시 내 에너지, 전통문화, 상업, 업무, 주거, 주차용지 등의 토지, 건축, 경관의 조화를 유도하고자 통합설계 가이드라인을 제시하였다. 특히, 다양한 방식의 거주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각 생활권별로 구분하여 관련 지침을 수립하여 행정중심복합도시의 통합적 장소조성을 위하여 노력하였다.<sup>43)</sup> 이들은 단독주택용지, 상업업무용지 등의 용지를 제로에너지주택단지, 한옥마을과 공동주택 등으로 분류하여 주변과 조화롭고 현 시대에 대응하는 편의성과 안전성 등을 목표로 생활권 별 특성에 맞는 창의적인 통합설계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자 하였다.<sup>44)</sup>

#### 행정중심복합도시 「통합설계가이드라인」 기본방향

- 도시 내 토지, 건축, 경관의 통합을 유도하여 주변과 조화롭고 현 시대에 어울리는 편의성과 안전성을 지닌 창의적인 통합설계 유형 마련

출처: 행정중심복합도시 각 생활권 별 통합설계가이드라인을 참고하여 작성,

<https://www.happycity2030.or.kr/urbandesign/?act=sub4>(접속일: 2019.9.17.)

또한, 앞서 언급된 계획지침들을 통합하여 행정중심복합도시 지구단위계획을 수립, 총 22개 생활권을 공동주택용지, 근린생활시설용지, 단독주택용지, 상업업무용지로 구분하여 경관 및 공공, 환경, 특별계획구역, 특화 부문으로 계획하였다. 이를 통하여 도시민의 공동체적 정주환경을 위하여 공공시설용지, 교육연구시설용지, 공공시설물 계획, 안전한 도시 조성계획, 장애물 없는 도시 조성 계획 등으로 생활권별 지침을 제시하였다. 대부분은 도로와 공원 등 공공에서 조성·관리·운영하는 공간에 적용되었으며 주민들의 다양한 정주환경 조성을 위한 사항들을 다루고 있다.<sup>45)</sup> 이들은 주로 자연적 공간과 주민공동체 공간 등을 통합, 보도 포장 등의 세부적인 공간에 이르기까지 자연친화적이고 개성 있는 경관 창출을 위한 장소적 영역성에 대하여 제시하고 있다. 세종시는 이러한 지구단위계획을 통하여 도시와 마을에 대하여 입체적인 건축물 계획과 평면적인 토지이용 계획의 조화를 추구하였으며 이러한 공간이용의 합리화와 양호한 환경 등을 모두 고려한 장소 형성에 기여하고 있다.

43) 행정중심복합도시 각 생활권 별 통합설계가이드라인, <https://www.happycity2030.or.kr/urbandesign/?act=sub4>(접속일: 2019.9.17.)

44) 위의 웹사이트(접속일: 2019.9.17.)

45) 행정중심복합도시 각 생활권 별 지구단위계획, <https://www.happycity2030.or.kr/plan/?act=sub5>(접속일: 2019.11.29.)

### 3.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과 세종시의 변화

#### 1) 인구학적 변화

행정중심복합도시가 착공된 2007년과 세종시가 출범(2012년)된 이후 2019년 인구수는 113,117명(2012)에서 339,571명(2019.9)으로 세 배 이상 증가하였다.<sup>46)</sup> 주목할 점은 젊은 층의 유입으로 평균 연령이 갈수록 낮아진다는 사실이다. 세종시의 평균 연령은 2012년 41.2세였으나 2017년에는 36.7세로 경기(39.8세), 광주(39.6세), 울산(39.5세)보다 낮은, 전국에서 가장 젊은 도시이다.

세종시는 국가균형발전정책에 따라 중앙행정기관과 공공기관이 이전하면서 성장하고 있는 도시로, 인구 구성과 생활양식에서 새로운 경향을 보인다. 2012년 세종시 출범 이후 인구 통계에서 눈에 띄는 점은 높은 출산율이다.

[표 3-1] 특별시·광역시 합계출산율 변화(2012~2018)

연도	전국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세종
2012	1.297	1.059	1.135	1.217	1.301	1.295	1.315	1.481	1.597
2013	1.187	0.968	1.049	1.127	1.195	1.170	1.234	1.391	1.435
2014	1.205	0.983	1.090	1.169	1.212	1.199	1.250	1.437	1.354
2015	1.239	1.001	1.139	1.216	1.216	1.207	1.277	1.486	1.893
2016	1.172	0.940	1.095	1.186	1.144	1.168	1.192	1.418	1.821
2017	1.052	0.836	0.976	1.067	1.007	1.053	1.075	1.261	1.668
2018	0.977	0.761	0.899	0.987	1.006	0.972	0.952	1.131	1.566

출처: 통계청(2019), 2018년 출생통계(확정) 보도자료(2019.8.28.), p.37의 표(시·도별 합계출산율 2008~2018)를 재구성

2019년 8월 통계청이 발표한 ‘2018년 출생통계(확정)’에 따르면, 우리나라 2018년 합계출산율은 0.98명으로 1970년 이래 최저치를 보이며, 2017년 대비 40대를 제외한 전 연령층에서 출산율이 감소하였다<sup>47)</sup>. 대한민국 출산율은 전 세계에서 유래를 찾기 힘들 정도로 낮은 뿐 아니라<sup>48)</sup>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으며 2018년 세종시만 유일하게 출산율이 5.7% 증가하였다. 세종시의 합계출산율(1.57)은 서울(0.76)의 두 배가 넘으며 모든 연령대에서 가장 높게 나타났다.

46) 국가통계포털, <http://kosis.kr/>, 행정안전부, 「주민등록인구현황」 (접속일: 2019. 10. 04.)

47) 통계청(2019), 2018년 출생통계(확정) 보도자료(2019.8.28.) 참조.

48) 2017년 36개 OECD 국가의 평균 합계출산율은 1.65명이다. 통계청(2019), 2018년 출생통계(확정) 보도자료(2019.8.28.), p.16 참조.

## 2) 건축·도시 환경 변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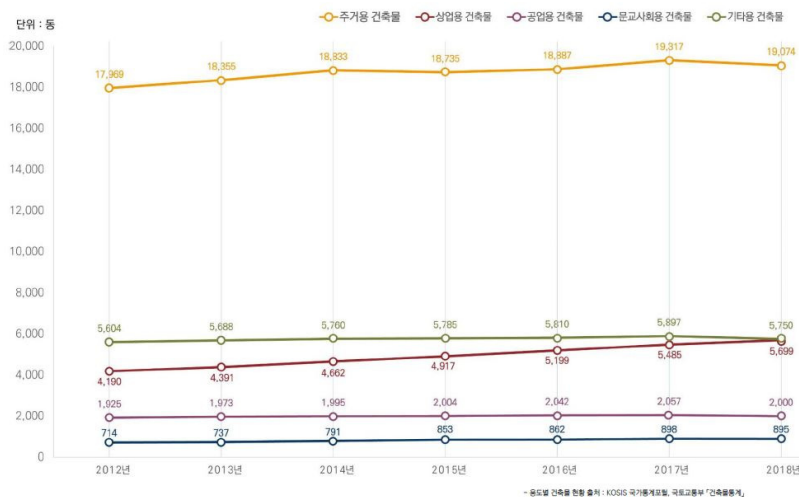
세종시 출범 이후 도시 건설과 인구 유입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지면서 세종시의 건축물은 빠른 속도로 증가하고 있다. 아래 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주택뿐 아니라, 의료, 문화, 체육, 보육, 장애인 복지시설 등 시민의 일상생활과 밀접한 시설이 2.3배(장애인 복지시설)에서 4.3배(문화시설)까지 큰 폭으로 증가하였다.

[표 3-2] 세종시 출범 이후 주요 변화상

구분	2012.6(출범 전)	2017.12
주택보급가구	46,592가구	106,757가구
의료 인프라(병·의원)	107개소	318개소
문화시설	16개	70개
체육시설	21개소	39개소
보육시설	106개소	289개소
도시공원	22개소	66개소
장애인 복지시설	9개소	21개소

출처: 세종특별자치시(2018), 「시민주권특별자치시 행정수도 세종백서」, p.290의 표를 재구성

아래 그림의 건축물 용도별 동수의 변화를 보면, 가장 큰 비율을 차지하는 것은 주거용 건축물이며, 상업용 건축물 동수는 지속적인 증가세를 보인다.



[그림 3-12] 세종시 출범 이후 용도별 건축물 동수 변화

출처: 이종민(2019), “세종시민의 일상생활과 장소인식”, 세종학포럼 발제자료집, p.85.

### 3) 세종시민의 인식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세종시는 인구, 건축도시 환경에서의 변화가 가장 역동적으로 일어나고 있는 도시이다. 이러한 변화 속에서 세종시민의 인식은 어떠한지를 파악해보는 것은 현재까지의 변화를 진단하고 향후 계획을 수립하는 데 있어 매우 중요하다.

이러한 관점에서 ‘안녕지수’는 주목할 만하다. 안녕지수는 서울대학교 행복연구센터에서 행복 연구의 전통과 최신 연구의 흐름을 반영하여 행복의 다양한 의미를 담아낼 수 있도록 10개의 지표로 구성한 지수이다. 10개의 하위 지표는 삶에 대한 만족감, 인생에서 경험하는 의미, 스트레스와 7가지 감정적 경험으로 구성된다.<sup>49)</sup>

서울대학교 행복연구센터에서 2018년 한 해 동안 국민 1,043,611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안녕지수 프로젝트 결과, 세종시가 행복 점수가 가장 높은 곳으로 나타났다. 세종시는 전체 안녕지수뿐 아니라 각 하위 요인에서 가장 높은 점수를 보였으며, 남녀 모두 행복감이 가장 높은 지역으로 나타났다(최인철 외, 2019:48).

안녕지수는 포털사이트 DAUM의 카카오 플랫폼인 ‘마음날씨’를 통해 365일 24시간 측정되고 있다. 안녕지수의 각 세부 지표에 대한 안녕지수를 지역별로 검색이 가능하다. 2019년 9월 10일 16시 21분 기준으로 누적 참여건수 5,349,036건의 데이터를 기반으로 대한민국의 안녕지수는 53점이었다.<sup>50)</sup> 이를 세부지표 및 지역별·성별 안녕지수를 살펴보면 [표 3-3]과 같다.

아래 표와 같이, 세종시는 종합적인 안녕지수(총점)에서 전국에서 가장 높은 점수를 기록하여 가장 행복한 지역으로 분석되었다. 또한 세부지표 중 긍정적 감정 경험을 나타내는 ‘삶의 만족’, ‘삶의 의미’, ‘정서 밸런스’, ‘즐거움’, ‘평안함’, ‘행복’ 부문에서 전국 최고치를 기록하였다. 이와 더불어 부정적 감정경험을 나타내는 ‘스트레스’, ‘지루함’, ‘불안함’, ‘짜증’, ‘우울’ 부문에서 전국 최저치를 기록하였다.

49) 안녕지수는 서울대학교 행복연구센터에서 행복 연구의 전통과 최근 연구의 흐름을 반영하여 행복의 다양한 의미를 담아낼 수 있도록 10개의 지표로 구성한 지수이다. 10개의 하위 지표는 삶에 대한 만족감, 인생에서 경험하는 의미, 스트레스와 7가지 감정적 경험으로 구성된다. 최인철 외(2019), 「About H, 대한민국 행복 리포트 2019」, 21세기북스, pp.15-1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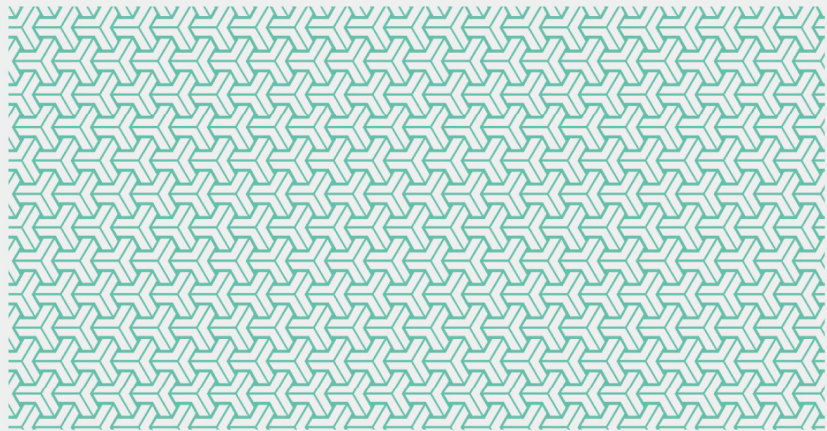
50) 카카오같이가치 마음날씨, <https://together.kakao.com/hello>(접속일: 2019.09.10.)

[표 3-3] 지역별·성별 안녕지수

구분	지역별 맑음날씨				성별	
	최고		최저		남자	여자
총점	세종	55	충북	52	55	52
삶의 만족	세종	62	전북	58	62	58
삶의 의미	세종	58	경북	54	59	54
스트레스	광주	62	세종	59	60	62
정서 밸런스	세종	55	충북	52	55	52
즐거움	세종	56	충북	54	57	53
평안함	세종	58	충북	55	57	55
행복	세종	61	충북	58	61	58
지루함	인천	54	제주, 세종	51	52	53
불안함	대전	48	세종	45	45	48
짜증	경기	48	제주, 세종	46	46	48
우울	인천	47	세종	44	43	47

출처: 카카오키가치 마음날씨, <https://together.kakao.com/hello>(접속일: 2019.09.10.)의 데이터를 참고하여 재구성

## 제4장 세종시민의 일상생활과 장소인식



1. 세종시민의 일상생활과 장소인식 조사 개요
2. 세종시민의 여가생활
3. 세종시민의 장소인식
4. 세종시민의 장소 인식 특성

## 1. 세종시민의 일상생활과 장소인식 조사 개요

### 1) 설문조사 개요

- 조사대상 : 세종시에 거주하고 있는 만 20세 ~ 59세 이하 남녀
- 조사시기 : 2019년 9월 23일 ~ 10월 16일
- 조사내용 : 세종시 주민의 여가생활 실태조사 및 장소인식 특성
- 조사표본 : 320명

### 2) 설문항목

[표 4-1] 설문항목 및 내용 구성

구분	조사 내용
세종시 거주 현황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세종시 거주기간</li> <li>• 세종시 거주방식 및 세종시 외 거주지</li> <li>• 근무(통학) 여부</li> <li>• 근무지역 및 세종시 외 근무지</li> <li>• 근무기간</li> </ul>
장소 인식 특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거주지 및 근무지</li> <li>• 자주 가는 장소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방문 목적</li> <li>- 선택 이유</li> </ul> </li> <li>• 중요하거나 의미있는 장소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중요 이유</li> <li>- 하는 행위</li> </ul> </li> <li>• 지인에게 소개하고 싶은 장소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소개하고 싶은 이유</li> </ul> </li> <li>• 각 장소별 방문 행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방문 빈도</li> <li>- 방문 요일</li> <li>- 방문시간대</li> <li>- 머무는 시간</li> <li>- 동반자</li> <li>- 이동수단</li> <li>- 이동시간</li> </ul> </li> </ul>
여가 참여 실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여가시간에 하는 활동(1~5순위)</li> <li>• 여가활동별 행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목적</li> <li>- 동반자</li> <li>- 빈도</li> <li>- 소요시간</li> <li>- 활동장소</li> </ul> </li> </ul>
응답자 특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직업</li> <li>• 혼인여부</li> <li>• 자녀수 및 막내 자녀 학령</li> <li>• 가족 구성원</li> <li>• 차량 소유 여부</li> <li>• 가구소득</li> </ul>

출처: 연구진 직접 작성



### 3) 응답자 특성

[표 4-2] 응답자 특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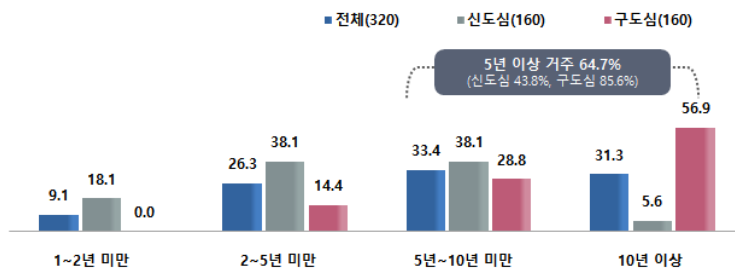
구 분		사례수(명)	비율(%)
전 체		(320)	100.0
지역	세종시 신도시(건설지역)	(160)	50.0
	세종시 구도심(건설지역 외)	(160)	50.0
성별	남성	(160)	50.0
	여성	(160)	50.0
연령	20대	(80)	25.0
	30대	(80)	25.0
	40대	(80)	25.0
	50대	(80)	25.0
거주기간	1-2년 미만	(29)	9.1
	2-5년 미만	(84)	26.3
	5년-10년 미만	(107)	33.4
	10년 이상	(100)	31.3
직업	화이트칼라	(111)	34.7
	블루칼라	(79)	24.7
	자영업	(18)	5.6
	전업주부	(76)	23.8
	대학(원) 생	(34)	10.6
	무직/기타	(2)	0.6
혼인 여부	미혼	(88)	27.5
	기혼	(232)	72.5
가구원 수	1인 가구	(18)	5.6
	2인 가구	(35)	10.9
	3인 가구	(89)	27.8
	4인 가구	(158)	49.4
	5인 이상	(20)	6.3
가구 구성원	1인 가구(본인 혼자)	(19)	5.9
	부부 가구	(33)	10.3
	2세대 가구(부부+자녀)	(261)	81.6
	3세대 가구(부부+자녀+조부모)	(5)	1.6
	기타	(2)	0.6
차량 소유 여부	있음	(236)	73.8
	없음	(84)	26.3
가구소득	200만원 미만	(7)	2.2
	200-400만원 미만	(88)	27.5
	400-600만원 미만	(139)	43.4
	600만원 이상	(86)	26.9

출처: 연구진 직접 작성

#### 4) 응답자 특성 분석

##### ① 세종시 거주기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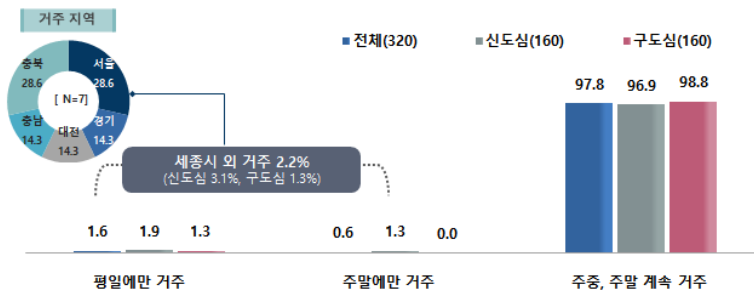
전체 응답자의 64.7%가 세종시에 5년 이상으로 거주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특히 구도심 거주자는 10년 이상 거주 비율이 과반수 이상(56.9%)으로 매우 높게 나타났다. 응답자 특성별로 살펴보면, 남성(36.9%), 50대(43.8%)에서 10년 이상 거주한 비율이 높게 나타났다. 응답자 특성별로 살펴보면 자영업(55.6%), 기혼(32.8%), 2인 가구(57.1%), 부부 가구(57.6%), 400-600만원 미만(38.8%)에서 10년 이상 거주한 비율이 높게 나타났다.



[그림 4-1] 세종시 거주기간 (단위 : %, 출처: 연구진 직접 작성)

##### ② 세종시 거주방식

세종시에 주중, 주말 계속 거주하는 비율은 97.8%, 세종시 외 거주 비율은 2.2%으로, 세종시 외 거주 비율은 신도심(3.1%)이 구도심(1.3%)에 비해 높았으며, 거주지역은 '서울'과 '충북'이 각 28.6%로 타 지역 대비 상대적으로 많은 편이다. 한편, 주중, 주말 계속 거주하는 비율은 여성(98.8%), 40대(100.0%), 거주기간 5-10년 미만(99.1%)에서 가장 높게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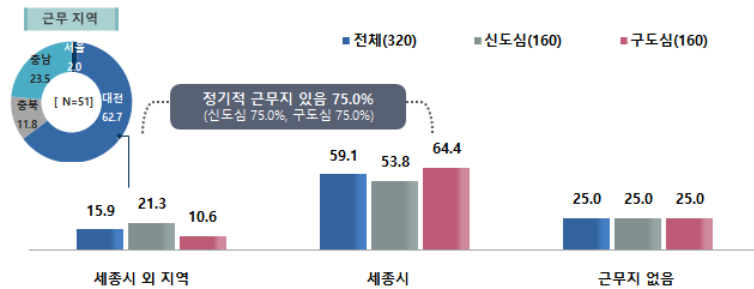
[그림 4-2] 세종시 거주방식 (단위 : %, 출처: 연구진 직접 작성)

직업별로 살펴보면, 화이트칼라의 경우 평일에만 거주한다는 응답이 5.9%로 나

타났으며, 그 외 직업은 모두 주중, 주말에 계속 거주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주중, 주말에 계속 거주하는 비율은 기혼(99.1%), 2인 가구(100.0%), 가구소득 400-600만원 미만(99.3%)에서 가장 높게 나타났다.

### ③ 근무지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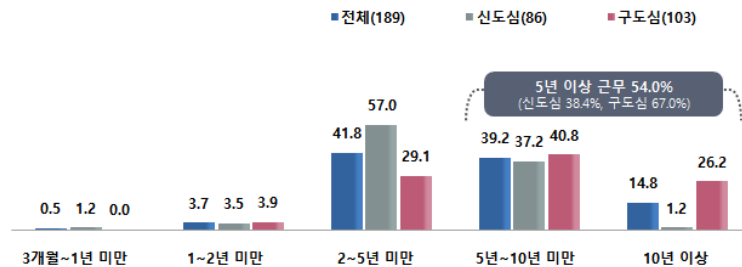
전체 응답자의 75.0%가 정기적으로 통학이나 출퇴근하는 곳이 있다고 응답하였으며, 59.1%는 세종시, 15.9%는 세종시 외 지역에서 근무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세종시 외 지역에서 근무하는 비율은 신도심(21.3%)이 구도심(15.9%)에 비해 높은 편이며, 근무지역은 대전(62.7%), 충남(23.5%), 충북(11.8%) 순으로 나타났다. 응답자 특성별로 살펴보면 블루칼라(84.8%), 미혼(65.9%), 1인 가구(94.4%), 3세대 가구(100.0%), 200만원 미만(71.4%)에서 세종시 근무 비중이 높게 나타났다.



[그림 4-3] 근무지 현황 (단위 : %, 출처: 연구진 직접 작성)

### ④ 세종시 내 근무기간

전체 응답자의 54.0%가 세종시에서 5년 이상 근무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특히 신도심에 비해 구도심 거주자의 근무기간이 길게 나타났다. 한편, 신도심 거주자는 과반수 이상이 2-5년 미만(57.0%) 근무한 것으로 나타났다. 응답자 특성별로는 남성이 여성에 비해 근무기간이 길었으며, 연령은 높을수록 근무기간이 길게 나타났다. 전반적으로 자영업, 기혼, 1인 가구에서 근무기간이 길게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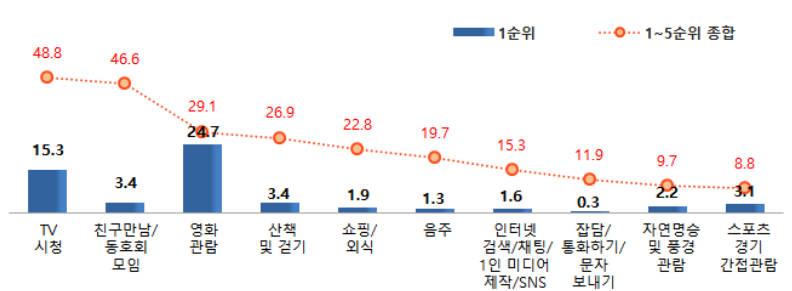
[그림 4-4] 세종시 내 근무 기간 (단위 : %, 출처: 연구진 직접 작성)

## 2. 세종시민의 여가생활

### 1) 여가활동 특성

#### ① 여가활동 종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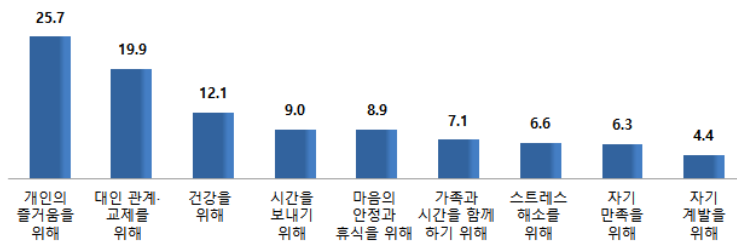
세종시민의 여가활동에 대한 1순위 응답별 비중을 살펴보면, 영화관람 24.7%, TV시청 15.3%, 산책 및 걷기와 친구 만남/동호회 모임 각 3.4% 순으로 높다. 종합순위별로는 TV시청 48.8%, 친구만남/동호회 모임 46.6%, 영화관람 29.1%, 산책 및 걷기 26.9%, 쇼핑/외식 22.8% 순으로 높았으며, 특히 'TV 시청'은 구도심 거주자(50.6%), 여성(55.0%), 40대(56.3%), 거주기간 10년 이상(53.0%)에서 가장 높게 나타났다. 응답자 특성별로 살펴보면, TV 시청은 전업주부(59.2%), 기혼(54.7%), 2인 가구(57.1%), 부부 가구(60.6%), 가구소득 600만 원 이상(60.5%)에서 가장 높게 나타났다.



[그림 4-5] 여가활동 종류 (단위 : %, 종합순위 기준 상위 10개만 제시, 출처: 연구진 직접 작성)

#### ② 여가활동 목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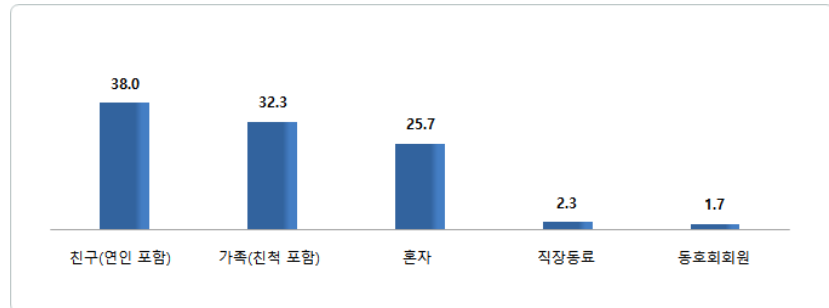
여가활동 목적을 살펴보면, 개인의 즐거움이 25.7%로 가장 높고, 다음으로 대인 관계·교제를 위해 19.9%, 건강을 위해 12.1% 순으로 나타났다. 한편, 남성은 '대인관계·교제'(24.7%), 여성은 '개인의 즐거움'(27.8%)을 가장 주된 목적으로 꼽고 있어 성별에 따른 차이를 보였다. 응답자 특성별로 살펴보면, 대학(원)생(38.4%), 미혼(33.0%), 4인 가구(27.0%), 2세대 가구(26.9%), 가구소득 600만 원 이상(31.8%)에서 개인의 즐거움을 가장 큰 여가활동의 목적으로 꼽고 있다.



[그림 4-6] 여가활동 목적 (종합순위 응답자 1,241명, 단위 : %, 출처: 연구진 직접 작성)

### ③ 여가활동 동반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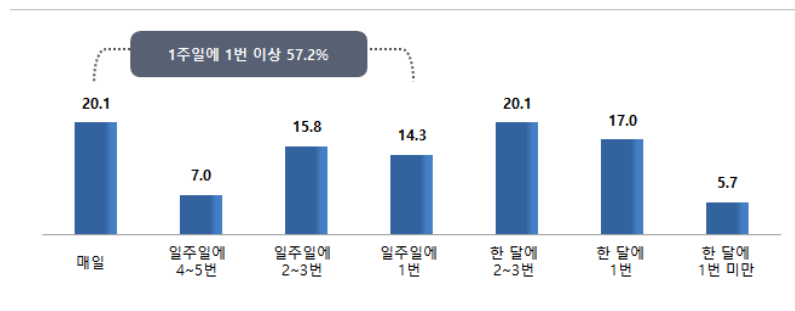
여가활동 시, 동반자는 친구가 38.0%로 가장 많고, 다음으로 가족 32.3%, 혼자 25.7% 순으로 나타났다. ‘친구’와 함께 여가활동을 한다는 응답은 남성(41.4%), 20대(59.6%)에서 가장 높은 반면, ‘가족’과 함께 한다는 응답은 여성(36.0%), 30대(44.2%)에서 상대적으로 높다. 응답자 특성별로 살펴보면, 대학(원)생(61.6%), 미혼(63.4%), 1인 가구(57.3%), 가구소득 200만원 미만(57.1%)에서 친구와 함께 여가활동을 한다는 응답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그림 4-7] 여가활동 동반자 (종합순위 응답자 1,241명, 단위 : %, 출처: 연구진 직접 작성)

### ③ 여가활동 빈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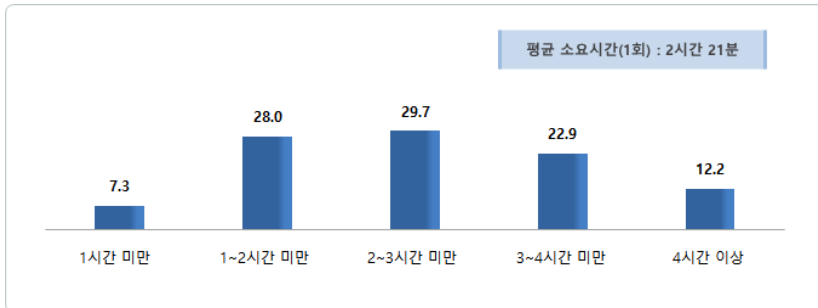
여가활동 빈도를 살펴보면 응답자의 과반수가 1주일에 1번 이상(57.2%) 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매일 여가활동을 한다는 응답은 20.1%이다. 한편, 남성은 ‘한 달에 2~3번’(23.2%), 여성은 ‘매일’(23.5%) 여가활동을 하는 비중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응답자 특성별로 살펴보면, 대학(원)생(28.3%), 기혼(20.5%), 2인 가구(23.3%), 가구소득 200만원 미만(32.1%)에서 매일 여가활동을 한다는 응답이 타 계층 대비 높게 나타났다.



[그림 4-8] 여가활동 빈도 (종합순위 응답자 1,241명, 단위 : %, 출처: 연구진 직접 작성)

#### ④ 여가활동 소요시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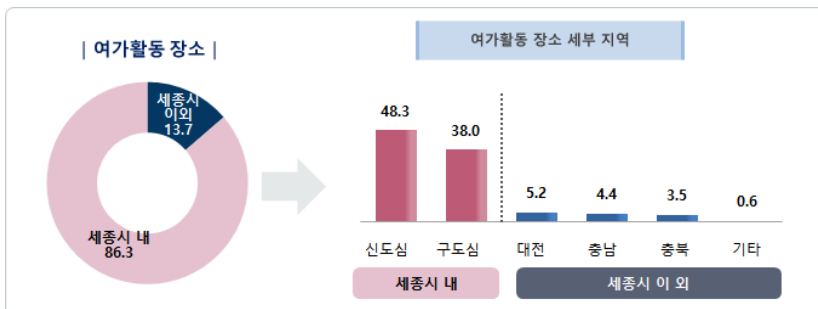
여가활동 소요시간 2~3시간미만이 29.7%로 가장 높고, 다음으로 1~2시간미만 28.0%, 3~4시간미만 22.9% 순으로 나타났다. 한편, 남성(2시간 29분)이 여성(2시간 13분)에 비해 여가활동 시간이 다소 긴 편이며, 연령별로는 40대(2시간 27분)가 여가활동 시간이 가장 길게 나타났다. 응답자 특성별로 살펴보면, 무직/기타(2시간 41분), 미혼(2시간 27분), 1인 가구(2시간 40분), 가구소득 200만원 미만(3시간 14분)에서 여가활동 시간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그림 4-9] 여가활동 소요시간 (종합순위 응답자 1,241명, 단위 : %, 출처: 연구진 직접 작성)

#### ⑤ 여가활동 장소

전체 응답자 중 86.3%가 세종시 내에서 여가활동을 한다고 응답하였으며, 13.7%는 세종시 이외 지역에서 여가활동을 한다고 응답했다. 여가활동을 하는 세종시 이외 지역으로는 대전 5.2%, 충남 4.4%, 충북 3.5%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한편, 구도심 거주자(90.0%), 여성(89.9%), 30대(88.4%)는 세종시 내에서 여가활동을 하는 비중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응답자 특성별로 살펴보면, 전업주부(91.7%), 기혼(87.8%), 가구원수가 많고 가구소득이 많을수록 세종시 내에서 여가활동을 하는 비중이 높게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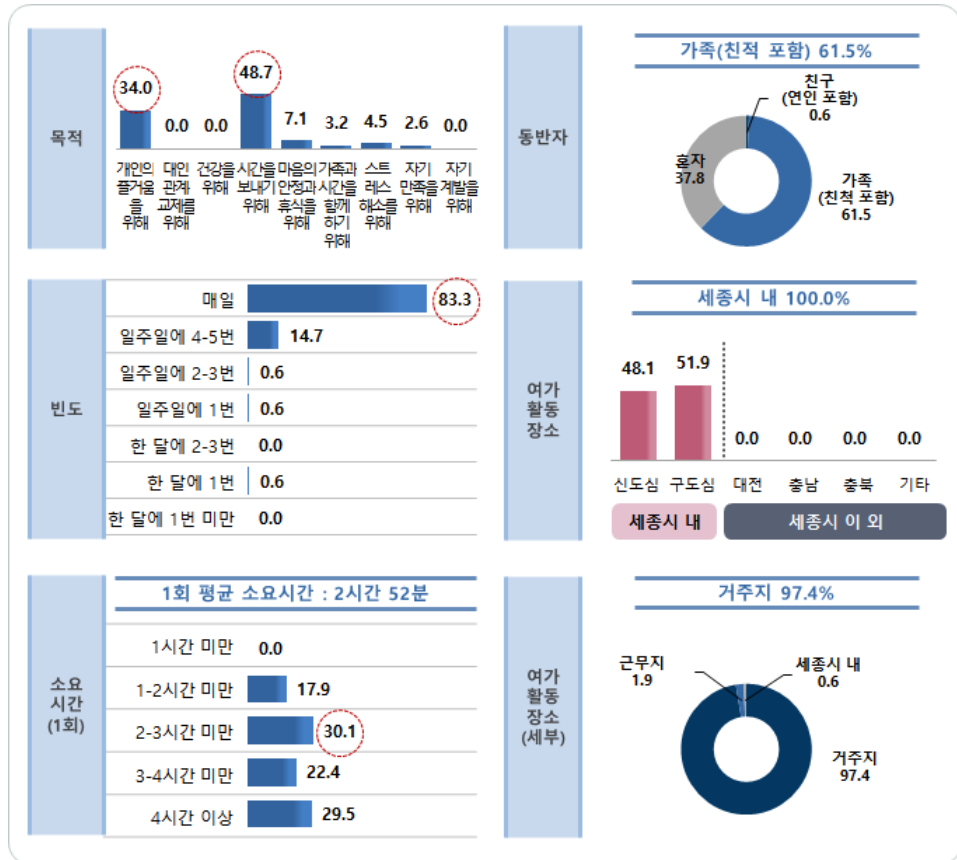


[그림 4-10] 여가활동 장소 (종합순위 응답자 1,241명, 단위 : %, 출처: 연구진 직접 작성)

## 2) 여가활동별 행태

### ① (1순위) TV시청 (전체 응답자 156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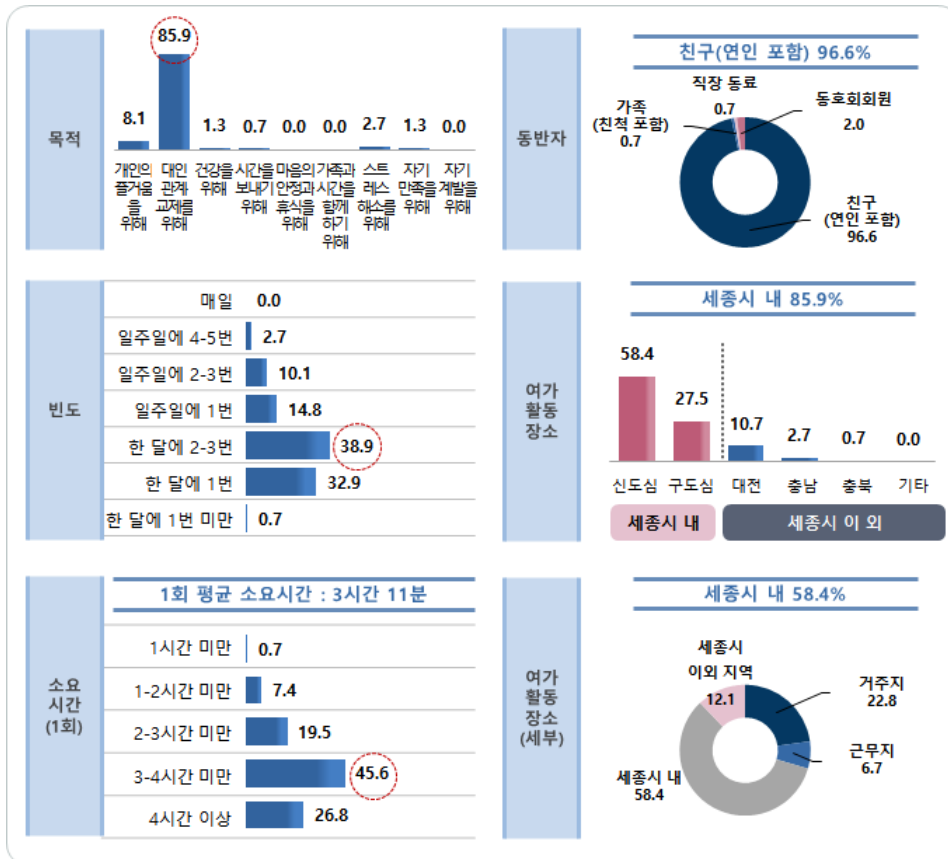
TV시청의 주된 목적은 시간을 보내기 위해(48.7%)와 개인의 즐거움을 위해서(34.0%)이며, 활동 빈도는 매일(83.3%), 소요시간(1회)은 2-3시간미만(30.1%)이 가장 높고, 주로 가족(61.5%)과 함께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4-11] 여가활동별 행태 - TV시청 장소 (단위 : %, 출처: 연구진 직접 작성)

## ② (2순위) 친구만남/동호회 모임 (전체 응답자 149명)

친구만남/동호회 모임의 주된 목적은 대인 관계·교제를 위해서(85.9%)이며, 활동 빈도는 한 달에 2-3번(38.9%), 소요시간(1회)은 3-4시간미만(45.6%) 가장 높다. 대다수가 친구(96.6%)와 함께 하며, 주 활동장소는 신도심(58.4%)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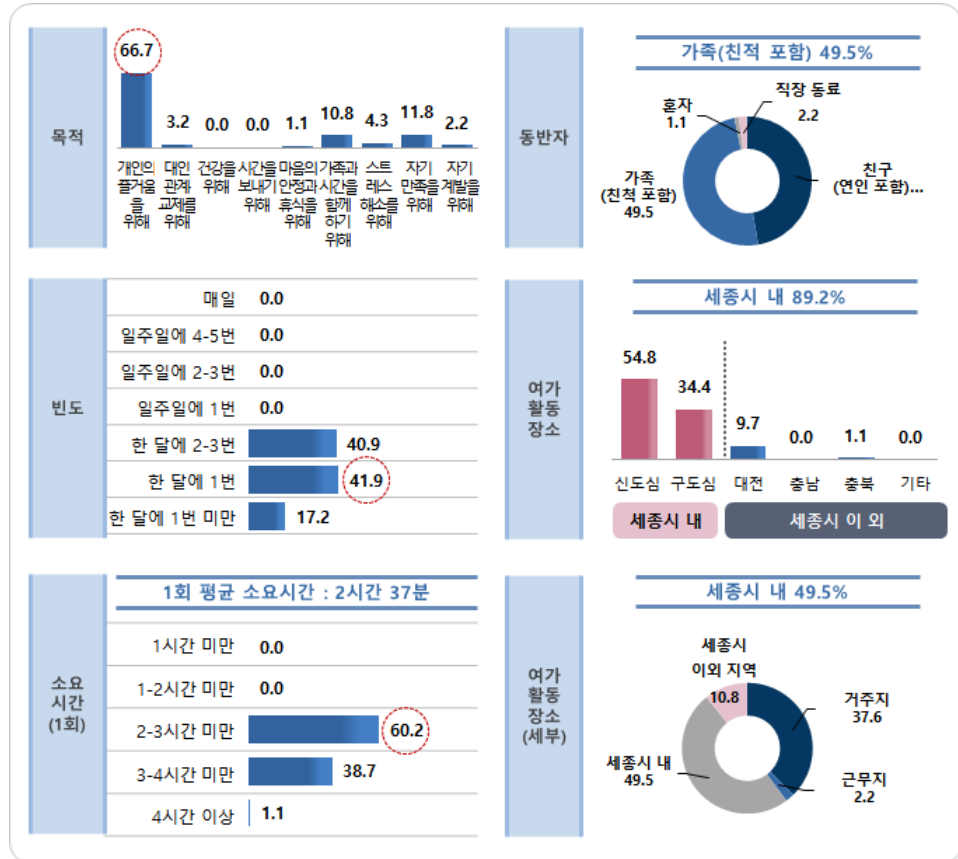


[그림 4-12] 여가활동별 행태 - 친구만남/동호회 모임 (단위 : %, 출처: 연구진 직접 작성)



### ③ (3순위) 영화관람 (전체 응답자 93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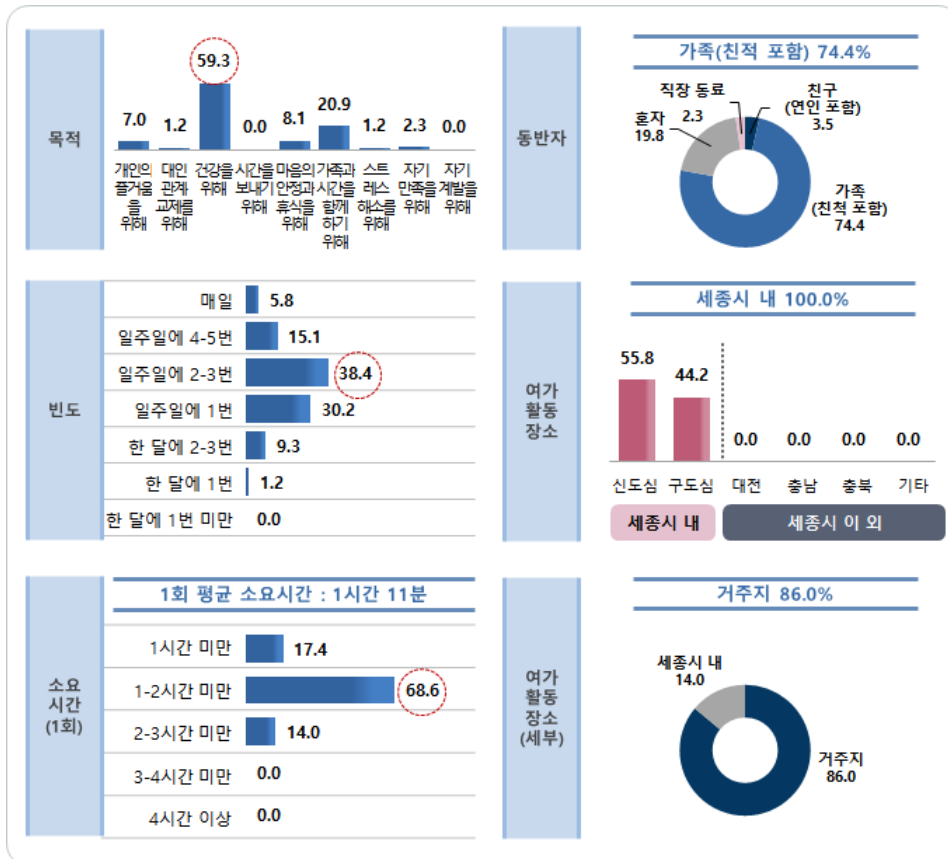
영화 관람의 가장 큰 목적은 개인의 즐거움을 위해서(66.7%)이며, 활동 빈도는 한 달에 1번(41.9%), 소요시간(1회)은 2-3시간미만(60.2%)이 가장 높다. 대부분 가족(49.5%)과 친구(47.3%)와 함께 하며, 주 활동장소는 신도심(54.8%)이다.



[그림 4-13] 여가활동별 행태 - 영화관람 (단위 : %, 출처: 연구진 직접 작성)

#### ④ (4순위) 산책 및 걷기 (전체 응답자 86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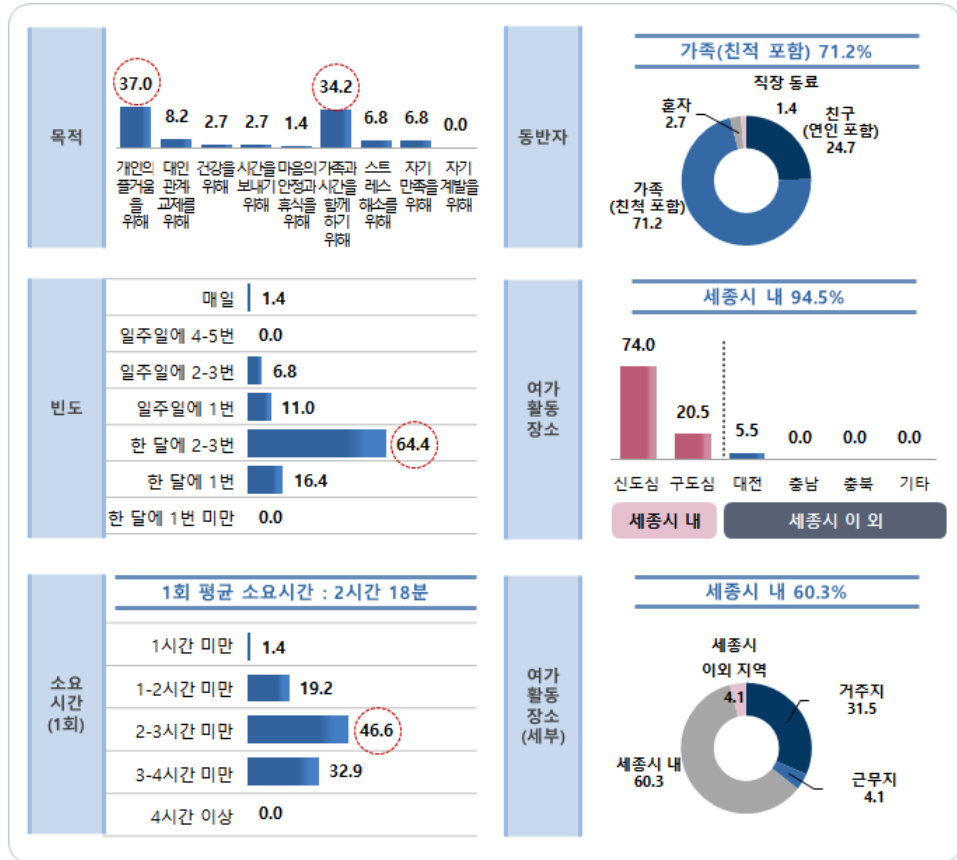
산책 및 걷기의 가장 큰 목적은 건강을 위해서(59.3%)이며, 활동 빈도는 일주일에 2-3번(38.4%), 소요시간(1회)은 1-2시간미만(68.6%)이 가장 높고, 대다수가 가족(74.4%)과 함께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4-14] 여가활동별 행태 - 산책 및 걷기 (단위 : %, 출처: 연구진 직접 작성)

### ⑤ (5순위) 쇼핑/외식 (전체 응답자 73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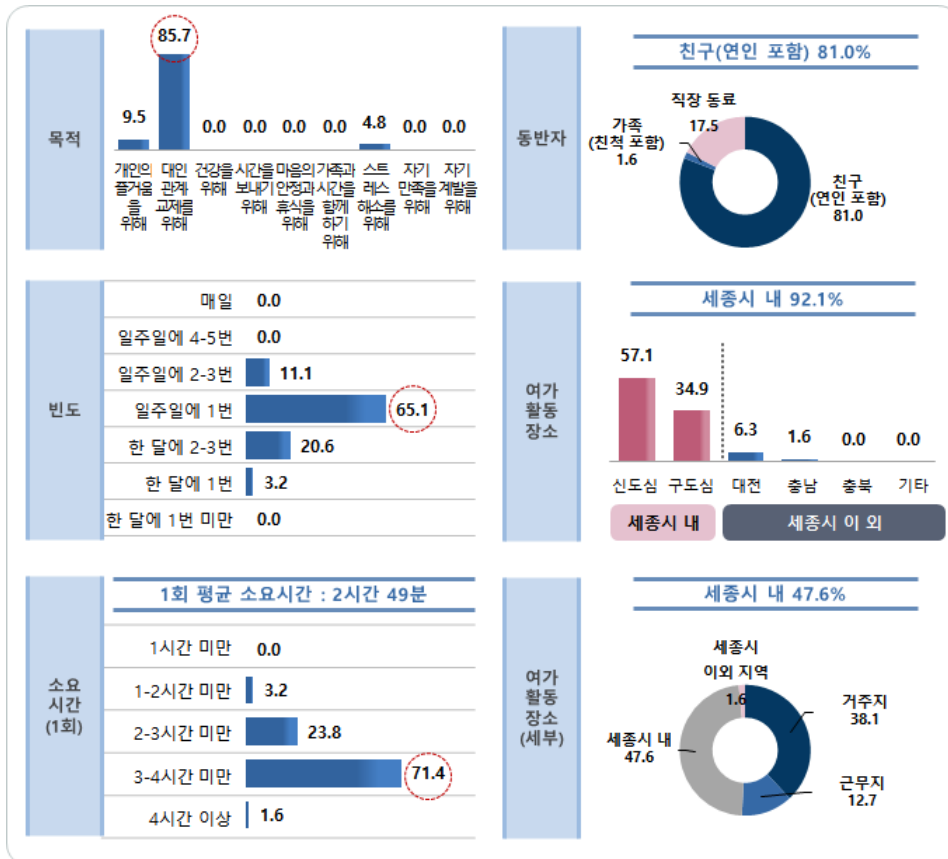
쇼핑/외식의 가장 큰 목적은 개인의 즐거움을 위해(37.0%)와 가족과 시간을 함께 하기 위해서(34.2%)이며, 활동 빈도는 한 달에 2-3번(64.4%), 소요시간(1회)은 2-3시간미만(46.6%)이 가장 높다. 대다수가 가족(71.2%)과 함께 하며, 주 활동장소는 신도심(74.0%)이다.



[그림 4-15] 여가활동별 행태 - 쇼핑/외식 (단위 : %, 출처: 연구진 직접 작성)

## ⑥ (6순위) 음주 (전체 응답자 63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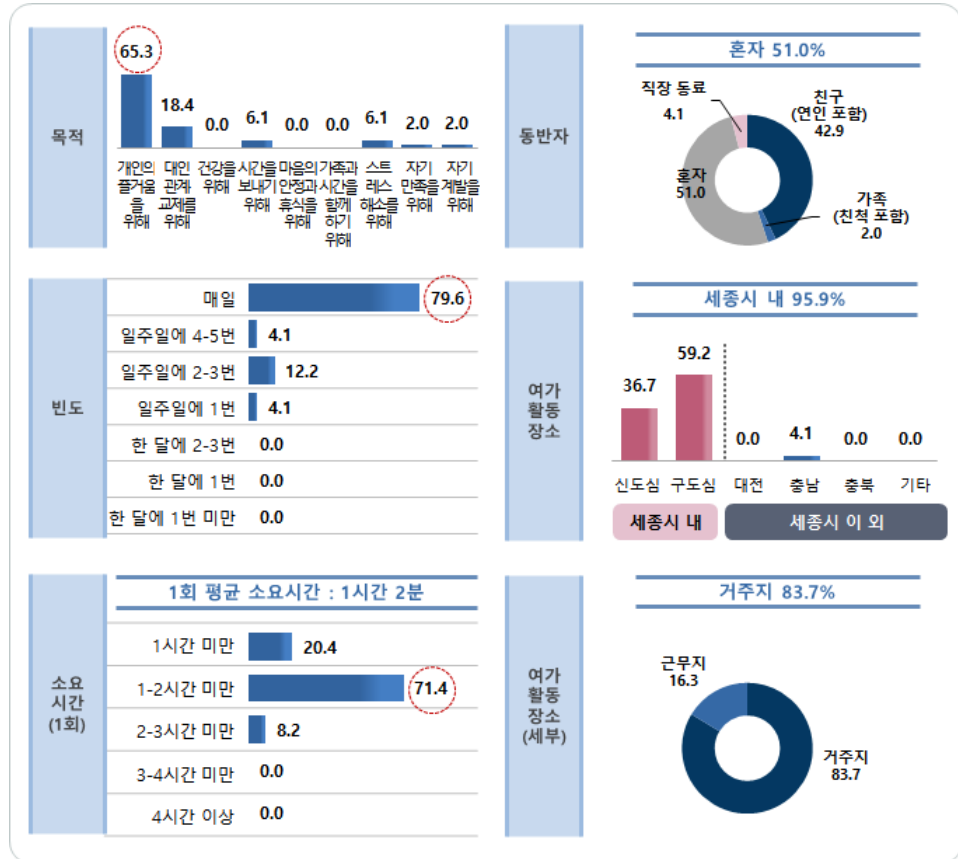
음주의 가장 큰 목적은 대인 관계·교제를 위해서(85.7%)이며, 활동 빈도는 일주일에 1번(65.1%), 소요시간(1회)은 3-4시간미만(71.4%)이 가장 높다. 대다수가 친구(81.0%)와 함께 하며, 주 활동장소는 신도심(57.1%)이다.



[그림 4-16] 여가활동별 행태 - 음주 (단위 : %, 출처: 연구진 직접 작성)

⑥ (7순위) 인터넷 검색/채팅/1인 미디어 제작/SNS (전체 응답자 49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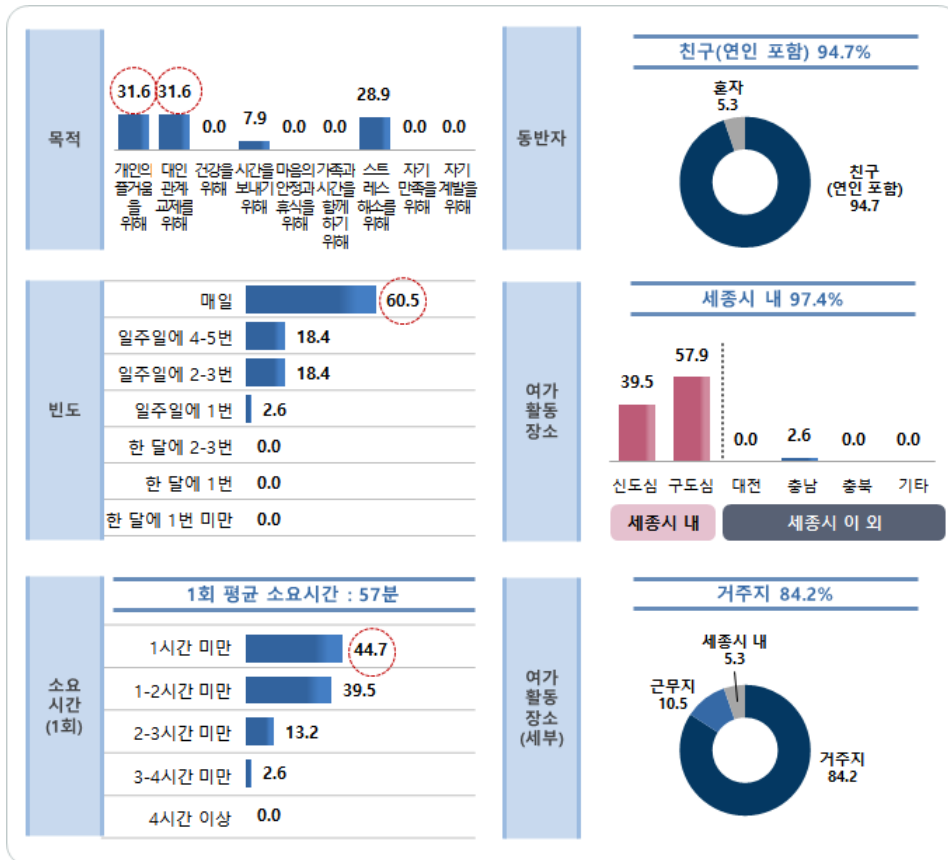
인터넷 검색/채팅/1인 미디어 제작/SNS의 가장 큰 목적은 개인의 즐거움을 위해(65.3%)이며, 활동 빈도는 매일(79.6%), 소요시간(1회)은 1-2시간미만 (71.4%)이 가장 높고, 응답자의 과반수가 혼자(51.0%) 활동한다고 응답했다.



[그림 4-17] 여가활동별 행태 - 인터넷 검색/채팅/1인 미디어 제작/SNS (단위 : %, 출처: 연구진 직접 작성)

⑦ (8순위) 잡담/통화하기/문자보내기 (전체 응답자 38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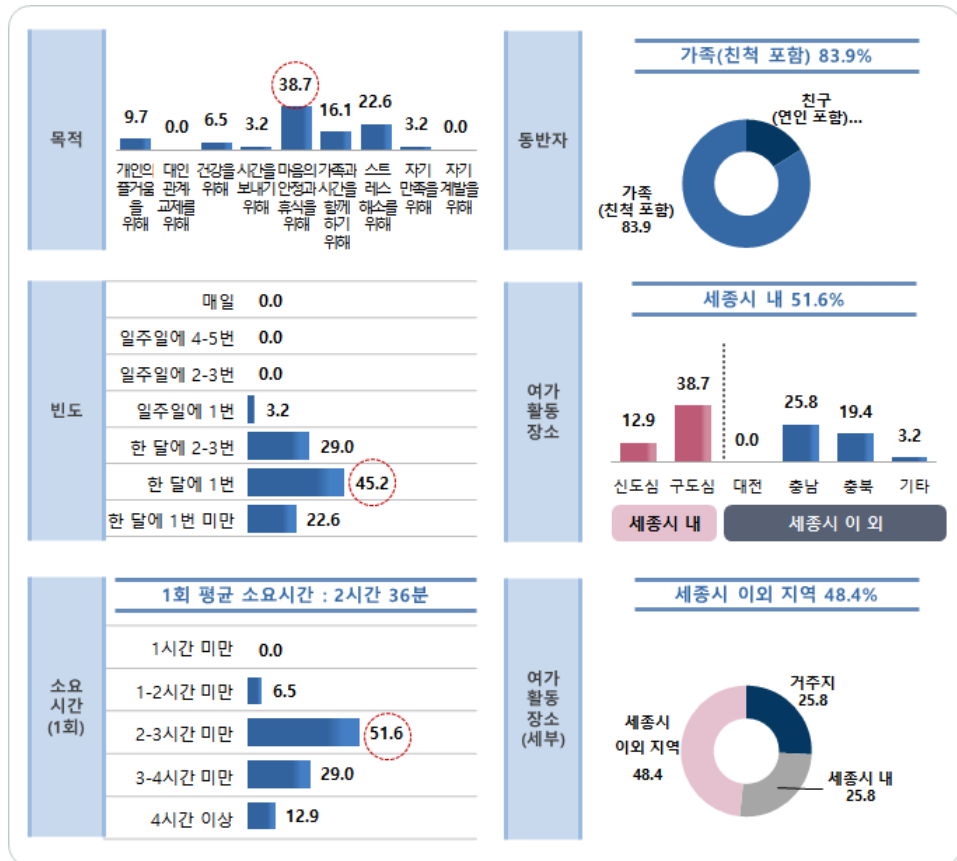
잡담/통화하기/문자보내기의 가장 큰 목적은 개인의 즐거움을 위해서와 관계·교제를 위해서(각 31.6%)이며, 스트레스 해소를 위해서(28.9%)도 주요한 목적으로 나타났다. 활동 빈도는 매일(60.5%), 소요시간(1회)은 1시간미만(44.7%)이 가장 높고, 대다수가 친구(94.7%)와 함께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4-18] 여가활동별 행태 - 잡담/통화하기/문자보내기 (단위 : %, 출처: 연구진 직접 작성)

### ⑧ (9순위) 자연명승 및 풍경 관람 (전체 응답자 31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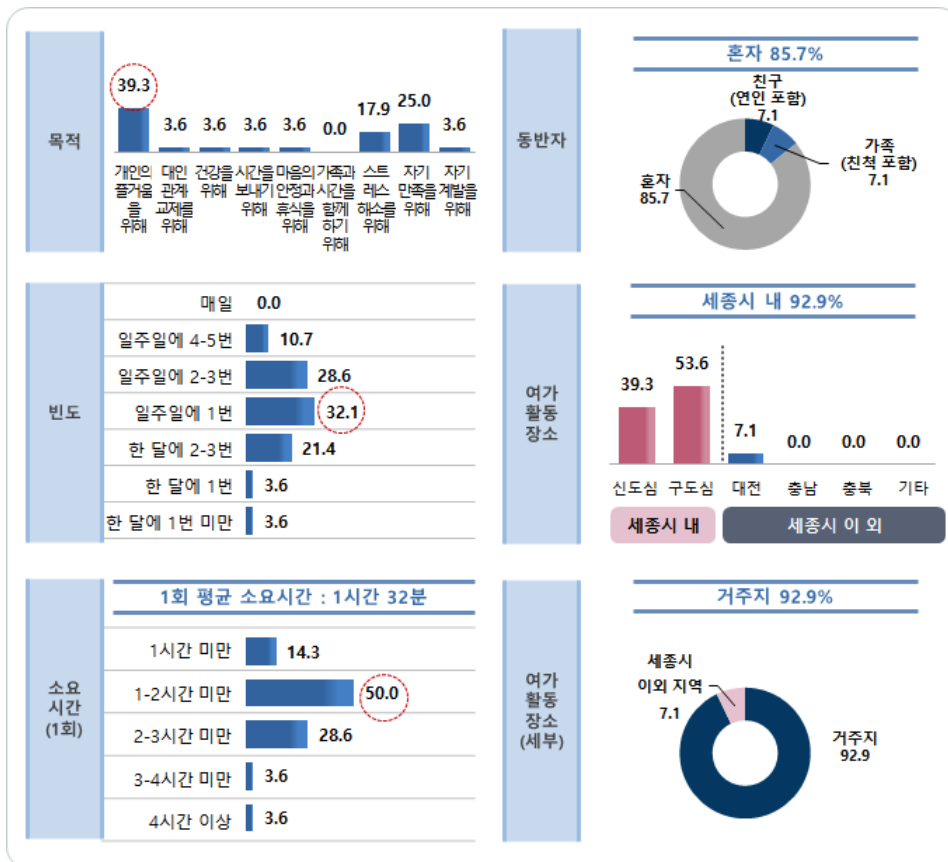
자연명승 및 풍경 관람의 가장 큰 목적은 마음의 안정과 휴식을 위해서(38.7%)와 스트레스 해소를 위해서(22.6%)이며, 활동 빈도는 한 달에 1번(45.2%), 소요시간(1회)은 2-3시간미만(51.6%)이 가장 높다. 대다수가 가족(83.9%)과 함께 하며, 주 활동장소는 구도심(38.7%), 충남(25.8%), 충북(19.4%)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그림 4-19] 여가활동별 행태 - 자연명승 및 풍경 관람 (단위 : %, 출처: 연구진 직접 작성)

### ⑨ (10순위) 스포츠 경기 간접관람 (전체 응답자 28명)

스포츠 경기 간접관람의 가장 큰 목적은 개인의 즐거움을 위해서(38.7%)이며, 다음으로 자기만족을 위해(25.0%), 스트레스 해소를 위해(17.9%)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활동 빈도는 일주일에 1번(32.1%), 소요시간(1회)은 1-2시간미만(50.0%)이 가장 높다. 대다수가 혼자(85.7%) 하며, 주 활동장소는 구도심(53.6%), 신도심(39.3%), 대전(7.1%)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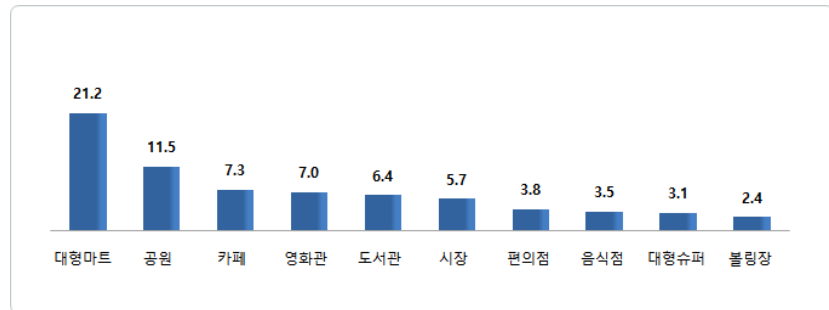
[그림 4-20] 여가활동별 행태 - 스포츠 경기 간접관람 (단위 : %, 출처: 연구진 직접 작성)



### 3. 세종시민의 장소인식

#### 1) 자주 가는 장소 (총 269개소 도출, 전체 응답자 860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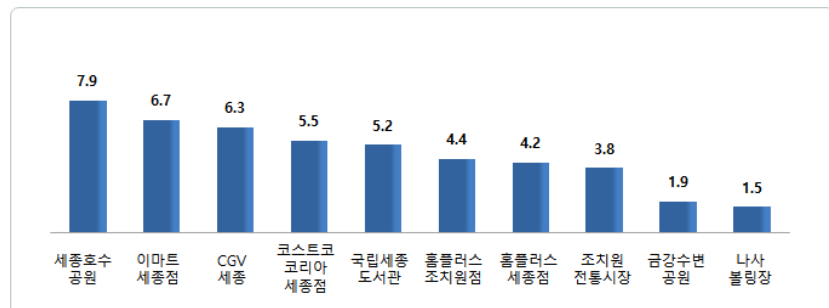
세종시민이 가장 자주 가는 장소는 대형마트(21.2%), 공원(11.5%), 카페(7.3%), 영화관(7.0%), 도서관(6.4%) 순으로 높으며, 특히 ‘대형마트’는 신도심 거주자(22.4%), 여성(21.6%), 30대(25.6%)가 가장 자주 방문한다. 응답자 특성별로 살펴보면 화이트칼라(24.4%), 기혼(25.7%), 4인 가구(22.4%), 가구소득 600만원 계층(23.4%)에서 특히 ‘대형마트’를 자주 방문한다.



[그림 4-21] 자주 가는 장소(대분류별) 상위 10개소 (단위: %, 출처: 연구진 직접 작성)

※ 중복응답 기준 상위 10개만 제시

세부장소별로 가장 자주 가는 장소를 살펴보면 세종호수공원(7.9%), 이마트 세종점(6.7%), CGV 세종(6.3%), 코스트코코리아세종점(5.5%), 국립세종도서관(5.2%) 순으로 높으며, 특히 ‘세종호수공원’은 신도심 거주자(10.2%), 남성(8.3%), 30대(9.3%), 거주기간 5~10년 미만 계층(10.1%)이 상대적으로 더 많이 찾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4-22] 자주 가는 장소(세부장소별) 상위 10개소 (단위: %, 출처: 연구진 직접 작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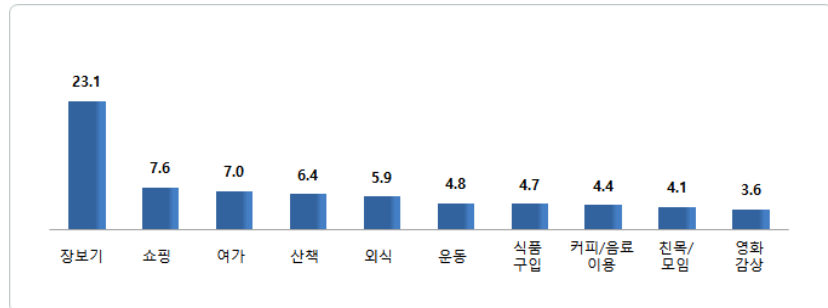
[표 4-3] 자주 가는 장소(세부장소별) 상위 10개소 (단위: %)

구 분		사려수 (명)	세종 호수 공원	이마트 세종점	CGV 세종	코스트코 코리아 세종점	국립 세종 도서관	홈 플러스 조치원점	홈 플러스 세종점	조치원 전통 시장	금강 수변 공원	나사 불량장
전 체		(860)	7.9	6.7	6.3	5.5	5.2	4.4	4.2	3.8	1.9	1.5
거주지	신도심	(442)	10.2	8.4	7.7	8.1	7.2	0.5	4.8	1.8	2.0	0.9
	구도심	(418)	5.5	5.0	4.8	2.6	3.1	8.6	3.6	6.0	1.7	2.2
성별	남성	(420)	8.3	5.7	7.4	5.7	4.8	3.6	5.2	2.4	2.1	2.6
	여성	(440)	7.5	7.7	5.2	5.2	5.7	5.2	3.2	5.2	1.6	0.5
연령	20대	(225)	6.7	3.6	13.3	2.7	11.1	2.7	1.3	0.4	1.3	4.0
	30대	(227)	9.3	9.7	7.0	6.2	5.3	3.5	6.2	3.1	3.1	0.9
	40대	(209)	7.7	7.7	3.3	4.8	2.9	5.7	5.7	6.7	1.4	1.0
	50대	(199)	8.0	6.0	0.5	8.5	1.0	6.0	3.5	5.5	1.5	0.0
거주 기간	1-2년 미만	(89)	5.6	9.0	9.0	5.6	5.6	0.0	6.7	4.5	1.1	2.2
	2-5년 미만	(240)	8.3	10.0	7.1	7.5	4.6	2.5	2.9	1.3	2.9	1.7
	5년-10년 미만	(267)	10.1	6.4	6.0	6.7	8.6	3.4	5.6	2.6	1.5	0.7
	10년 이상	(264)	6.1	3.4	4.9	2.3	2.3	8.7	3.0	7.2	1.5	1.9
직업	화이트칼라	(303)	8.6	7.3	7.6	8.3	5.3	2.3	6.3	2.3	2.3	1.0
	블루칼라	(204)	8.3	7.4	8.3	2.9	0.5	4.4	4.9	3.4	1.0	2.5
	자영업	(41)	9.8	4.9	0.0	7.3	0.0	7.3	0.0	2.4	2.4	0.0
	전업주부	(211)	7.1	8.1	1.4	5.2	4.3	7.1	3.3	8.5	2.8	0.0
	대학(원) 생	(94)	6.4	2.1	10.6	2.1	20.2	4.3	0.0	0.0	0.0	5.3
	무직/은퇴	(7)	0.0	0.0	14.3	0.0	0.0	0.0	0.0	0.0	0.0	0.0
혼인 여부	미혼	(245)	5.7	3.7	13.1	2.0	9.8	2.4	1.6	0.0	1.2	4.1
	기혼	(615)	8.8	8.0	3.6	6.8	3.4	5.2	5.2	5.4	2.1	0.5
가구원수	1인 가구	(44)	9.1	2.3	6.8	0.0	4.5	2.3	6.8	0.0	4.5	0.0
	2인 가구	(87)	5.7	3.4	4.6	8.0	2.3	4.6	3.4	4.6	1.1	1.1
	3인 가구	(241)	10.0	7.9	7.1	4.6	5.0	5.0	3.3	2.9	2.1	1.2
	4인 가구	(434)	7.4	7.1	5.8	6.0	6.2	3.9	4.8	4.1	1.8	1.8
	5인 이상	(54)	5.6	7.4	9.3	5.6	3.7	7.4	1.9	7.4	0.0	1.9
	1인 가구	(46)	10.9	2.2	6.5	0.0	4.3	2.2	6.5	0.0	4.3	0.0
가구 구성원	부부 가구	(81)	6.2	3.7	3.7	8.6	2.5	4.9	3.7	4.9	1.2	0.0
	2세대 가구	(716)	8.1	7.5	6.3	5.6	5.4	4.6	4.2	4.1	1.7	1.8
	3세대 가구	(13)	0.0	0.0	23.1	0.0	15.4	0.0	0.0	0.0	7.7	0.0
	기타	(4)	0.0	0.0	0.0	0.0	0.0	0.0	0.0	0.0	0.0	0.0
차량 소유 여부	있음	(629)	8.6	8.1	5.9	6.5	3.7	4.0	4.9	3.3	2.5	1.3
	없음	(231)	6.1	3.0	7.4	2.6	9.5	5.6	2.2	5.2	0.0	2.2
가구 소득	200만원 미만	(14)	7.1	0.0	0.0	0.0	0.0	7.1	0.0	0.0	0.0	0.0
	200-400만원 미만	(231)	11.7	4.8	3.5	4.3	5.6	4.3	3.5	3.0	3.0	0.4
	400-600만원 미만	(367)	7.4	7.1	5.7	5.4	4.6	5.2	4.6	4.1	2.2	1.1
	600만원 이상	(248)	5.2	8.5	10.1	6.9	6.0	3.2	4.4	4.4	0.4	3.2

출처: 연구진 직접 작성

### ① 자주 가는 장소 방문 목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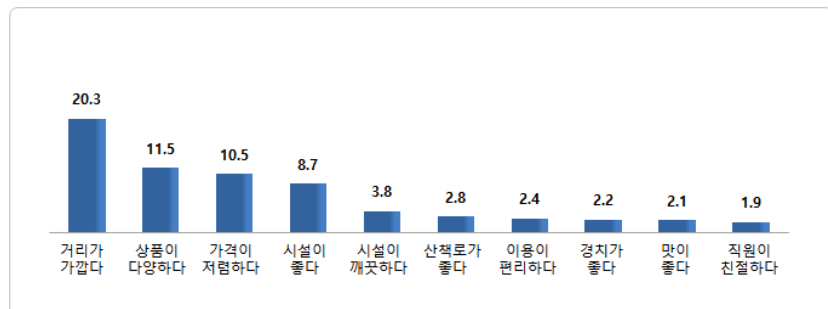
자주 가는 장소를 찾는 이유로는 장보기(23.1%), 쇼핑(7.6%), 여가(7.0%), 산책(6.4%), 외식(5.9%) 순으로 높게 나타났으며, 특히 '장보기'는 구도심 거주자(24.6%), 여성(25.9%), 40대(29.7%), 거주기간 1-2년 미만(29.2%) 계층에서 높게 나타났다. 응답자 특성별로 살펴보면 전업주부(30.3%), 기혼(27.3%), 5인 이상 가구(33.3%), 가구소득이 높을수록 '장보기' 위해서 방문하는 비중이 높게 나타났다.



[그림 4-23] 자주 가는 장소 방문 목적, 상위 10개소 (단위: %, 출처: 연구진 직접 작성)

### ② 자주 가는 장소 선택 이유

자주 가는 장소를 선택한 이유는 거리가 가깝다가 20.3%로 가장 많고, 다음으로 상품이 다양하다 11.5%, 가격이 저렴하다 10.5%, 시설이 좋다 8.7% 순으로 높다. 특히 '가까운 거리' 때문에 자주 방문한다는 응답은 신도심 거주자(24.0%), 여성(22.0%), 20대(23.1%), 거주기간이 짧을수록 더 높게 나타났다. 응답자 특성별로 살펴보면 무직/은퇴(28.6%), 미혼(22.0%), 1인 가구(23.9%), 가구소득 200만원 미만(35.7%)에서 '가까운 거리'를 가장 중요한 장소 선택 이유로 꼽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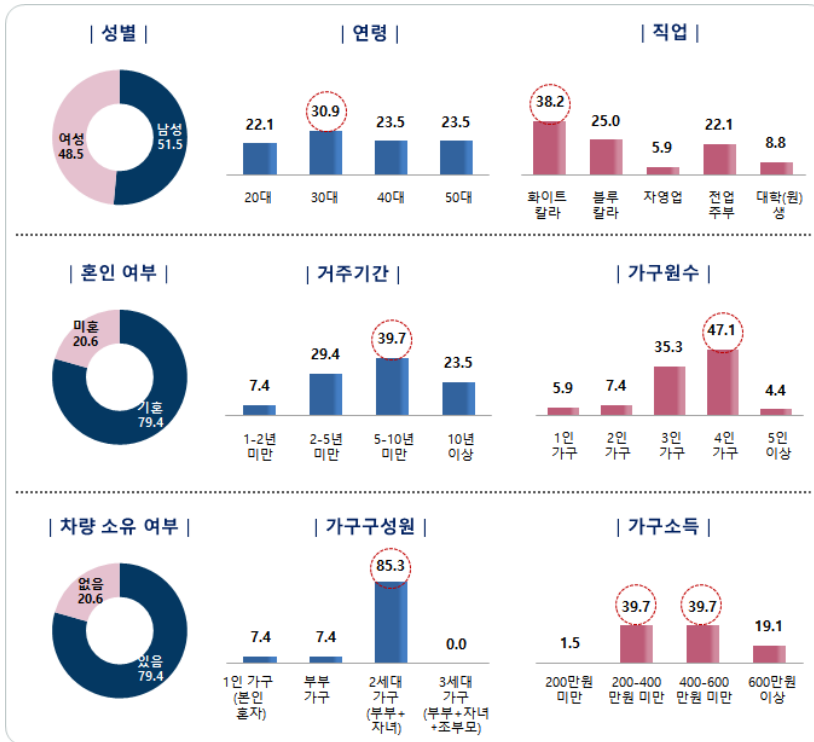


[그림 4-24] 자주 가는 장소 선택 이유, 상위 10개소 (단위: %, 출처: 연구진 직접 작성)

### ③ 자주 가는 장소별 인식 특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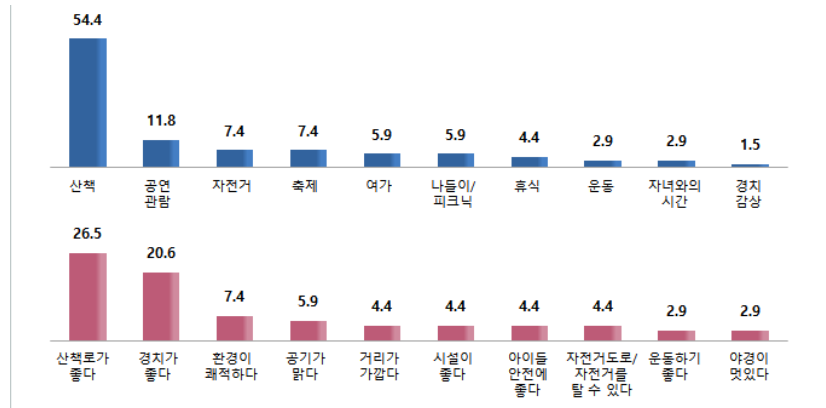
#### □ (1순위) 세종호수공원 (전체 응답자 68명)

세종시민이 가장 많이 방문하는 세종호수공원의 방문자 특성을 살펴보면, 남성(51.5%), 30대(30.9%), 화이트칼라(38.2%), 기혼(79.4%), 거주기간 5-10년 미만(39.7%)에서 가장 많이 방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구 특성별로는 차량 소유자(79.4%), 4인 가구(47.1%), 부부와 자녀로 구성된 2세대 가구(85.3%)의 방문 비율이 높게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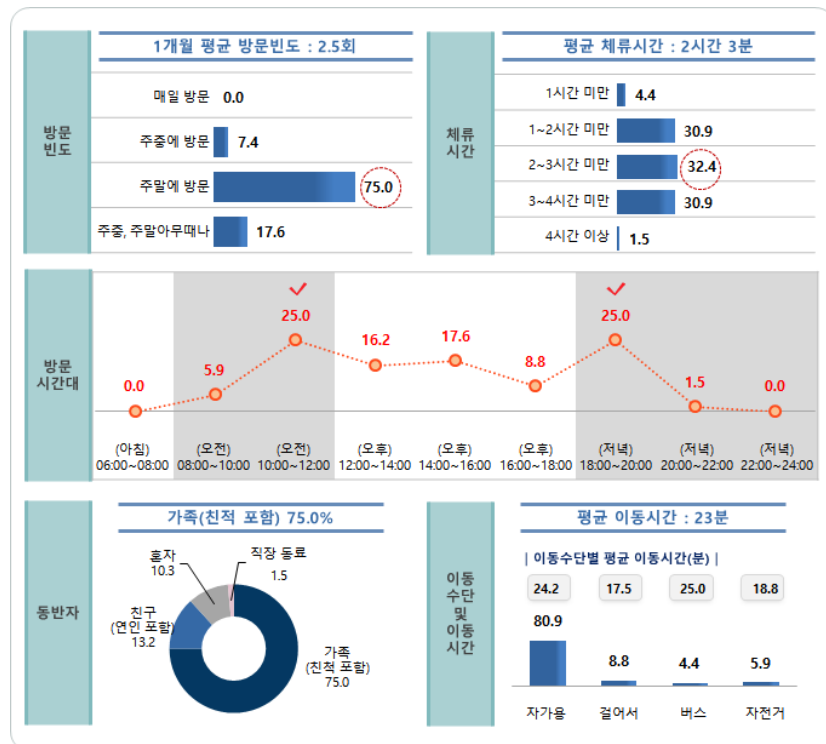
[그림 4-25] 세종호수공원 방문자 특성 (단위: %, 출처: 연구진 직접 작성)

세종호수공원을 방문하는 가장 큰 목적은 산책(54.4%)이며, 다음으로 공연 관람(11.8%), 자전거 및 축제(각 7.4%) 순으로 높게 나타났으며, 세종호수공원을 선택한 이유는 산책로가 좋다 26.5%, 경치가 좋다 20.6%, 환경이 쾌적하다 7.4% 순으로 높다.



[그림 4-26] 세종호수공원 방문 목적 및 선택 이유 (단위: %, 출처: 연구진 직접 작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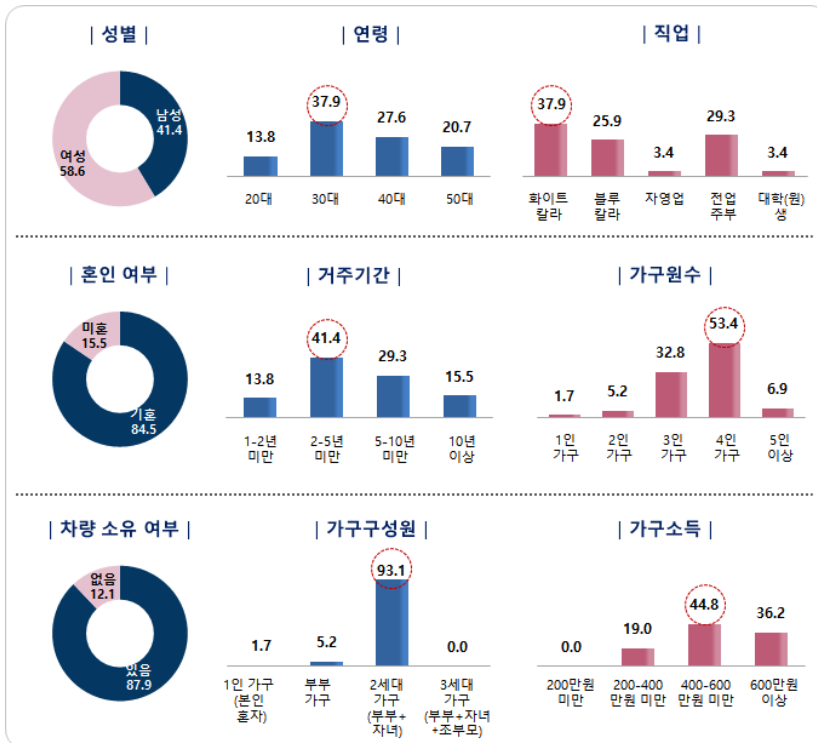
세종호수공원 방문 빈도는 한 달 평균 2.5회, 주로 주말에 방문(75.0%)하고 있으며, 머무르는 시간은 평균 2시간 3분으로 나타났다. 방문시간대를 살펴보면, 오전 10시부터 12시(25.0%), 저녁 6시부터 8시 사이(25.0%)에 가장 많이 방문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주로 가족(친척 포함)과 함께 방문(75.0%)하고 있으며, 대다수가 자가용(80.9%)을 이용, 평균 이동시간은 23분 정도이다.



[그림 4-27] 세종호수공원 방문 현황 (출처: 연구진 직접 작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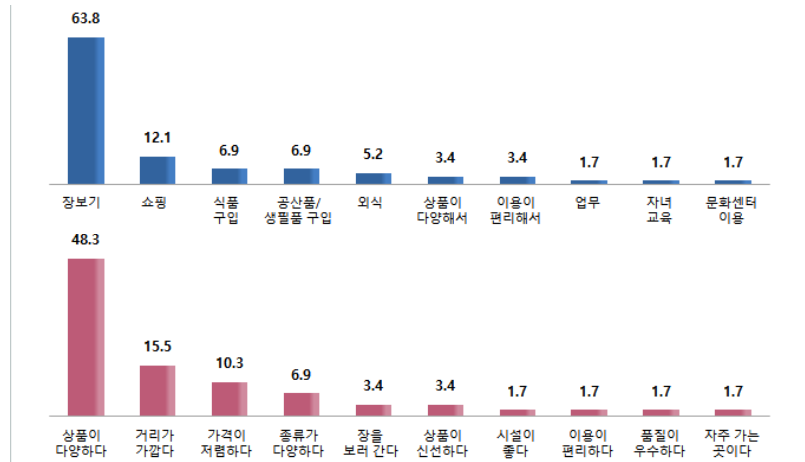
□ (2순위) : 이마트 세종점 (전체 응답자 58명)

세종시민이 2순위로 많이 방문하는 이마트 세종점의 방문자 특성을 살펴보면, 여성(58.6%), 30대(37.9%), 화이트칼라(37.9%), 기혼(84.5%), 거주기간 2-5년 미만(41.4%)에서 가장 많이 방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구 특성별로는 차량 소유자(87.9%), 4인 가구(53.4%), 부부와 자녀로 구성된 2세대 가구(93.1%), 가구 소득 400-600만원 미만(44.8%)이 방문 비율이 높게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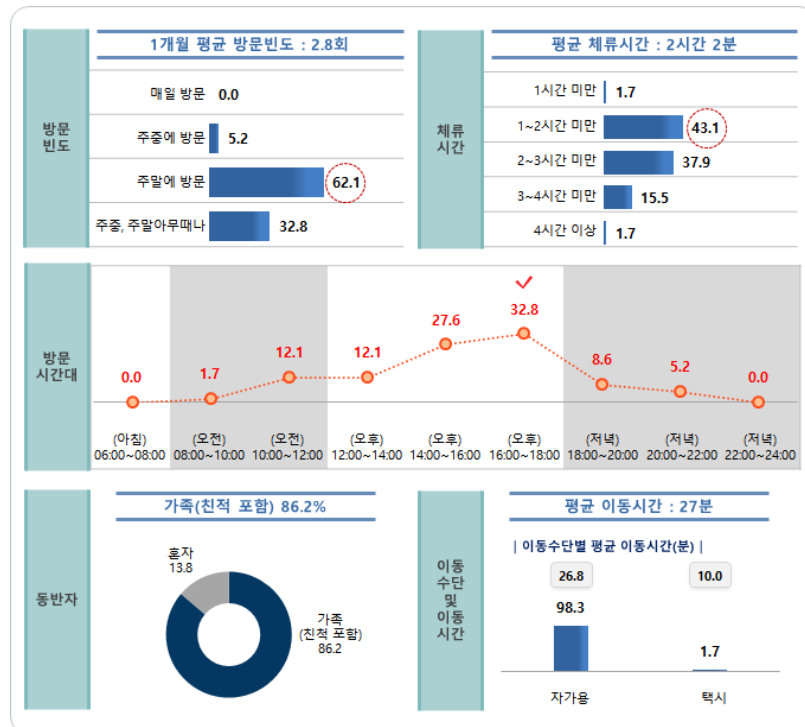
[그림 4-28] 이마트 세종점 방문자 특성 (출처: 연구진 직접 작성)

이마트 세종점을 방문하는 가장 큰 목적은 장보기(63.8%)이며, 다음으로 쇼핑(12.1%), 식품 구입과 공산품/생필품 구입(각 6.9%)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이마트 세종점을 선택한 이유는 상품이 다양하다는 48.3%로 가장 높고, 거리가 가깝다 15.5%, 가격이 저렴하다 10.3% 순으로 나타났다.



[그림 4-29] 이마트 세종점 방문 목적, 선택 이유 (출처: 연구진 직접 작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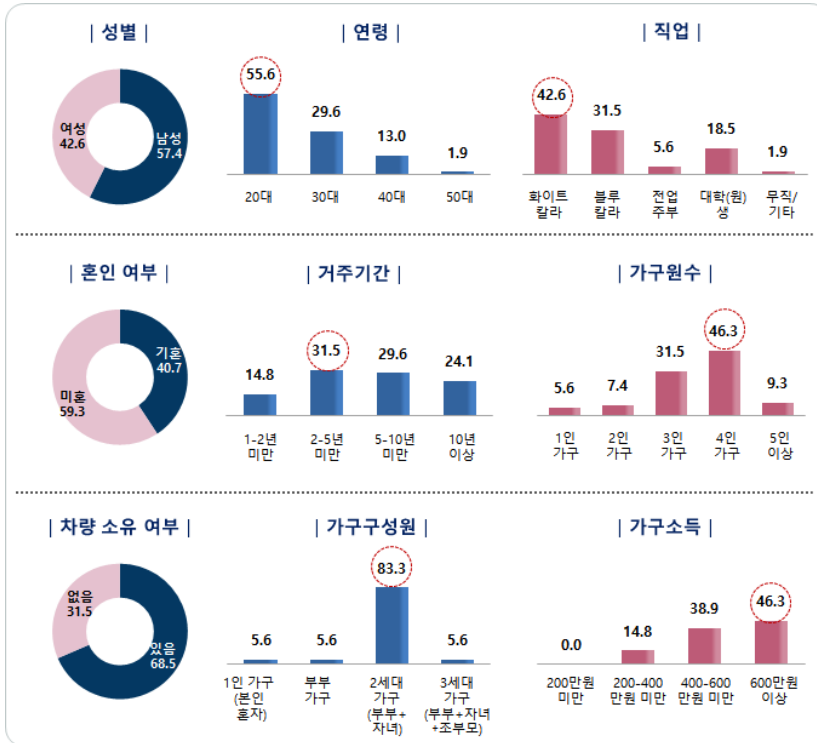
이마트 세종점 방문 빈도는 한 달 평균 2.8회, 주로 주말에 방문(62.1%)하고 있으며, 머무르는 시간은 평균 2시간 2분으로 나타났다. 방문시간대를 살펴보면, 오후 4시부터 6시 사이(32.8%)에 가장 많고, 다음으로 오후 2시부터 4시 사이(27.6%)에 비교적 많이 방문하고 있으며, 대다수는 가족(친척 포함)과 함께 방문(86.2%)하고 있으며, 자가용(98.3%)을 이용, 평균 이동시간은 27분 정도이다.



[그림 4-30] 이마트 세종점 방문 현황 (출처: 연구진 직접 작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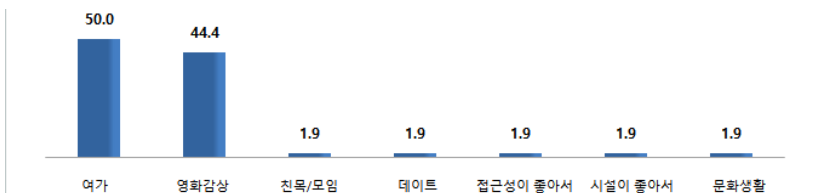
### □ (3순위) CGV 세종 (전체 응답자 54명)

세종시민이 3순위로 많이 방문하는 CGV 세종의 방문자 특성을 살펴보면, 남성(57.4%), 20대(55.6%), 화이트칼라(42.6%), 미혼(59.3%), 거주기간 2-5년 미만(31.5%)에서 가장 많이 방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구 특성별로는 차량 소유자(68.5%), 4인 가구(46.3%), 부부와 자녀로 구성된 2세대 가구(83.3%), 가구소득 600만 원 이상(46.3%)에서 방문 비율이 높게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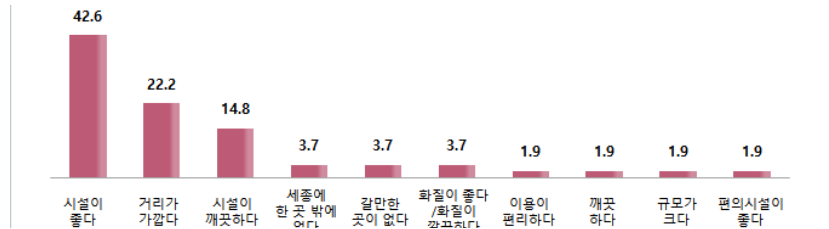
[그림 4-31] CGV 세종 방문자 특성 (출처: 연구진 직접 작성)

CGV 세종을 방문하는 가장 큰 목적은 여가(50.0%)와 영화감상(44.4%)으로 나타났으며, CGV 세종을 선택한 이유로는 시설이 좋다 42.6%, 거리가 가깝다 22.2%, 시설이 깨끗하다 14.8%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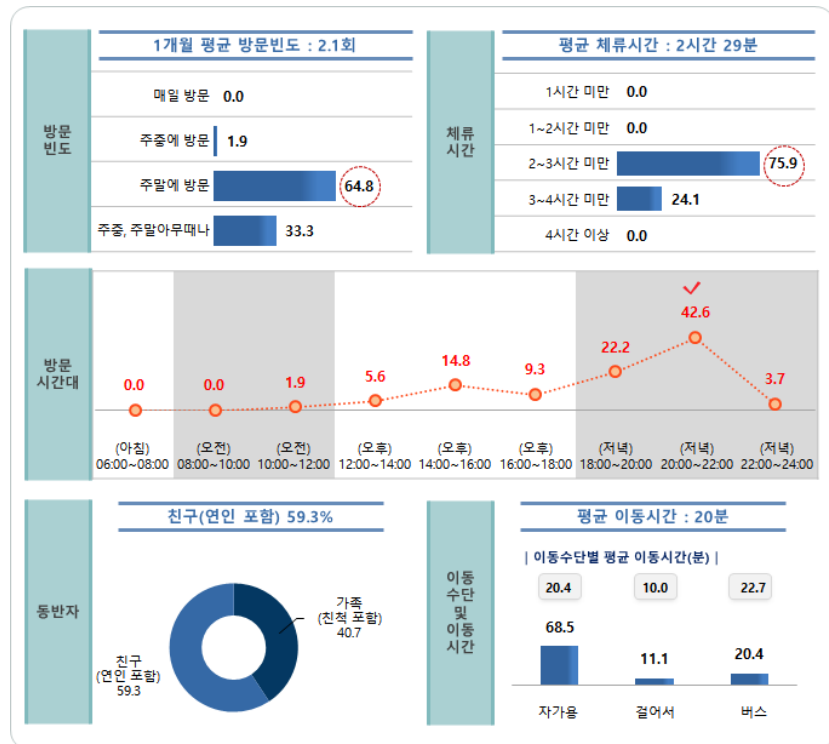
[그림 4-32] CGV 세종 방문 목적 (출처: 연구진 직접 작성)





[그림 4-33] CGV 세종 선택 이유 (출처: 연구진 직접 작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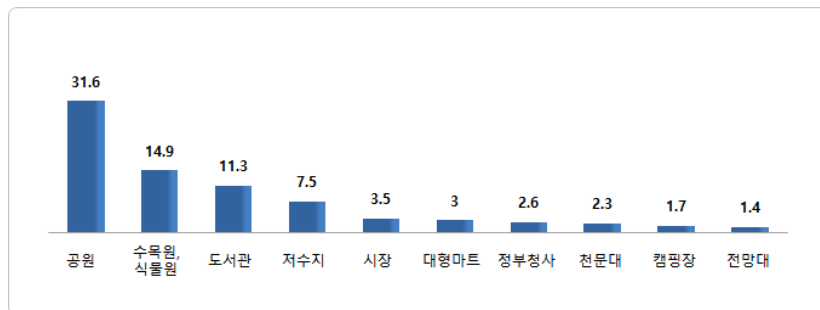
CGV 세종 방문 빈도는 한 달 평균 2.1회, 주로 주말에 방문(64.8%)하고 있으며, 머무르는 시간은 평균 2시간 29분으로 나타났다. 방문시간대를 살펴보면, 저녁 8시부터 10시 사이(42.6%)에 가장 많이 방문하고 있다. 가족(친척 포함) 보다는 친구(연인 포함)와 함께 방문(59.3%)하는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은 편이며, 주로 자가용(68.5%)을 이용, 평균 이동시간은 20분 정도이다.



[그림 4-34] 이마트 세종점 방문 현황 (출처: 연구진 직접 작성)

## 2) 중요하거나 의미 있는 장소 (총 122개소 도출, 전체 응답자 664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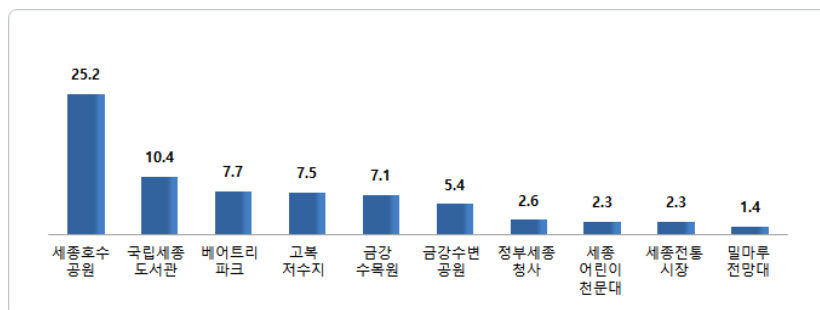
세종시민이 꼽은 중요하거나 의미 있는 장소는 공원(31.6%)이 가장 많고, 다음으로 수목원, 식물원(14.9%), 도서관(11.3%), 저수지(7.5%), 시장(3.5%)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특히 ‘공원’은 신도심 거주자(35.9%), 여성(33.0%), 50대(32.3%), 거주기간 1-2년 미만(42.9%)에서 가장 의미 있는 곳으로 꼽았다. 응답자 특성별로 살펴보면 자영업(36.1%), 4인 가구(33.6%), 2세대 가구(32.3%), 가구소득 600만 원 이상(37.8%) 계층에서 ‘공원’을 가장 중요하거나 의미 있는 장소로 생각하고 있다.



[그림 4-35] 중요하거나 의미 있는 장소(대분류별) 상위 10개소(단위: %, 출처: 연구진 직접 작성)

※ 중복응답 기준 상위 10개만 제시

중요하거나 의미 있는 장소를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세종호수공원 25.2%, 국립세종도서관 10.4%, 베어트리파크 7.7%, 고북저수지 7.5%, 금강수목원 7.1% 순으로 높게 나타났으며, 특히 ‘세종호수공원’은 신도심 거주자(27.7%), 여성(25.9%), 50대(25.9%), 거주기간 1-2년 미만(30.0%) 계층에서 상대적으로 더 중요한 장소로 인식하고 있다. 응답자 특성별로 살펴보면 자영업(33.3%), 기혼(25.5%), 4인 가구(27.4%), 2세대 가구(25.9%), 가구소득 600만 원 이상(28.4%)에서 세종호수공원을 중요한 장소로 응답한 비중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그림 4-36] 중요하거나 의미 있는 장소(세부장소별) 상위 10개소(단위: %, 출처: 연구진 직접 작성)

※ 중복응답 기준 상위 10개만 제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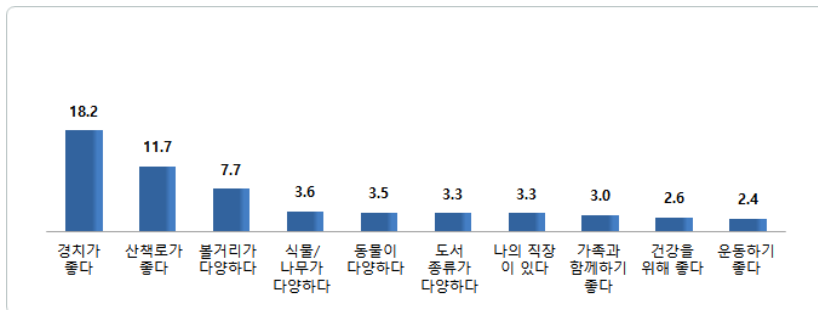
[표 4-4] 중요하거나 의미 있는 장소(세부장소별) 상위 10개소 (단위: %)

구 분		사례수 (명)	세종 호수 공원	국립 세종 도서관	베어 트리 파크	고북 저수지	금강 수목원	금강 수변 공원	정부 세종 청사	세종 어린이 천문대	세종 전통 시장	밀마루 전망대
전 체		(860)	25.2	10.4	7.7	7.5	7.1	5.4	2.6	2.3	2.3	1.4
거주지	신도심	(329)	27.7	13.1	7.0	4.9	4.6	7.3	3.0	2.4	2.4	0.3
	구도심	(335)	22.7	7.8	8.4	10.1	9.6	3.6	2.1	2.1	2.1	2.4
성별	남성	(328)	24.4	11.3	7.6	8.8	6.4	4.9	3.0	3.7	1.8	1.8
	여성	(336)	25.9	9.5	7.7	6.3	7.7	6.0	2.1	0.9	2.7	0.9
연령	20대	(174)	25.3	13.2	9.8	8.6	5.2	5.7	1.1	4.6	1.7	0.0
	30대	(167)	25.7	12.6	9.0	5.4	7.8	4.8	3.0	2.4	1.2	1.8
	40대	(165)	23.6	10.3	7.9	4.8	6.7	7.3	3.6	1.2	2.4	3.0
	50대	(158)	25.9	5.1	3.8	11.4	8.9	3.8	2.5	0.6	3.8	0.6
거주 기간	1-2년 미만	(70)	30.0	7.1	14.3	7.1	7.1	12.9	1.4	1.4	1.4	0.0
	2-5년 미만	(174)	24.7	10.9	8.6	5.2	5.7	6.9	2.9	4.6	1.1	0.6
	5년-10년 미만	(216)	26.9	15.7	4.6	4.6	6.0	3.2	3.7	0.9	2.8	2.8
	10년 이상	(204)	22.1	5.4	7.8	12.7	9.3	3.9	1.5	2.0	2.9	1.0
직업	화이트칼라	(219)	24.7	12.8	5.9	8.7	5.9	5.9	3.2	1.8	3.2	1.8
	블루칼라	(166)	23.5	9.0	12.0	6.0	9.6	4.2	1.2	3.0	0.0	1.2
	자영업	(36)	33.3	5.6	2.8	2.8	5.6	0.0	5.6	0.0	5.6	2.8
	전업주부	(168)	24.4	6.5	6.5	7.7	7.1	8.3	2.4	1.2	3.6	1.2
	대학(원) 생	(73)	28.8	17.8	8.2	9.6	5.5	2.7	2.7	5.5	0.0	0.0
	무직/은퇴	(2)	0.0	0.0	0.0	0.0	0.0	0.0	0.0	0.0	0.0	0.0
혼인 여부	미혼	(185)	24.3	13.5	9.7	8.6	4.9	5.9	1.6	3.8	1.1	0.0
	기혼	(479)	25.5	9.2	6.9	7.1	7.9	5.2	2.9	1.7	2.7	1.9
가구원수	1인 가구	(29)	17.2	24.1	3.4	3.4	6.9	6.9	0.0	0.0	6.9	0.0
	2인 가구	(66)	24.2	4.5	9.1	7.6	6.1	3.0	3.0	3.0	4.5	0.0
	3인 가구	(176)	22.2	13.1	6.3	6.3	4.0	6.3	2.8	1.7	1.1	1.7
	4인 가구	(351)	27.4	9.1	7.4	8.5	8.3	5.7	2.8	2.6	2.3	1.7
	5인 이상	(42)	26.2	9.5	16.7	7.1	11.9	2.4	0.0	2.4	0.0	0.0
가구 구성원	1인 가구	(31)	19.4	25.8	3.2	3.2	6.5	6.5	0.0	0.0	6.5	0.0
	부부 가구	(61)	24.6	3.3	9.8	8.2	4.9	3.3	3.3	3.3	4.9	0.0
	2세대 가구	(560)	25.9	10.2	7.9	7.9	7.5	5.5	2.3	2.3	1.8	1.6
	3세대 가구	(9)	11.1	22.2	0.0	0.0	0.0	11.1	11.1	0.0	0.0	0.0
	기타	(3)	0.0	0.0	0.0	0.0	0.0	0.0	33.3	0.0	0.0	0.0
차량소유 여부	있음	(486)	24.9	10.3	7.8	7.0	6.6	6.0	2.7	2.3	2.7	1.9
	없음	(178)	25.8	10.7	7.3	9.0	8.4	3.9	2.2	2.2	1.1	0.0
가구 소득	200만원 미만	(12)	0.0	25.0	0.0	0.0	8.3	0.0	8.3	0.0	0.0	0.0
	200-400만원 미만	(160)	24.4	11.9	3.8	5.0	5.0	3.8	5.0	0.6	3.8	2.5
	400-600만원 미만	(291)	24.4	9.6	8.9	6.9	6.9	4.1	2.4	1.7	3.1	1.7
	600만원 이상	(201)	28.4	9.5	9.5	10.9	9.0	9.0	0.5	4.5	0.0	0.0

출처: 연구진 직접 작성

### ① 중요하거나 의미 있는 이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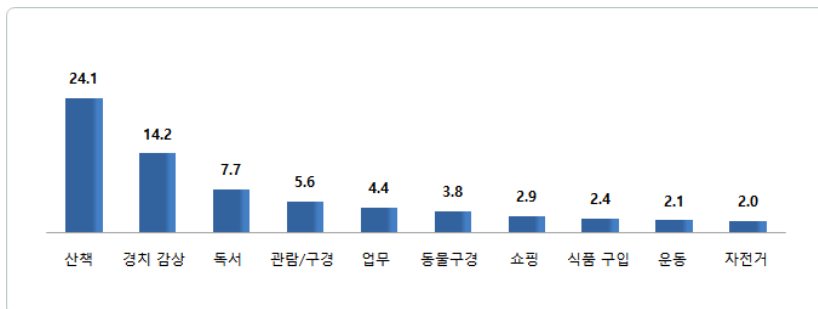
중요하거나 의미 있는 이유로는 경치가 좋다(18.2%), 산책로가 좋다(11.7%), 볼거리가 다양하다(7.7%)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특히 ‘경치가 좋다’는 응답은 수도권 거주자(18.5%), 남성(18.6%), 40대(18.8%), 거주기간 1-2년 미만(34.3%) 계층에서 높게 나타났다. 응답자 특성별로 살펴보면 전업주부(19.6%), 미혼(20.0%), 4인 가구(21.9%), 2세대 가구(19.5%), 가구소득 600만 원 이상(25.4%)에서 특히 경치가 좋은 장소를 중요하게 인식하는 비중이 높게 나타났다.



[그림 4-37] 자주 가는 장소 방문 목적 상위 10개 (단위: %, 출처: 연구진 직접 작성)

### ② 중요하거나 의미 있는 장소에서의 주요 활동

중요하거나 의미 있는 장소에서의 주요 활동을 살펴보면 산책(24.1%)이 가장 많고, 다음으로 경치 감상(14.2%), 독서(7.7%) 등의 활동을 하는 것으로 응답하였다. 주로 ‘산책’을 한다는 응답은 수도권 거주자(26.1%), 여성(25.0%), 연령이 높을수록 많았으며, 거주기간 1-2년 미만에서 높게 나타났다. 응답자 특성별로 살펴보면 자영업(30.6%), 기혼(24.6%), 5인 이상 가구(33.3%), 부부 가구(26.2%), 가구소득이 높을수록 ‘산책’ 활동을 많이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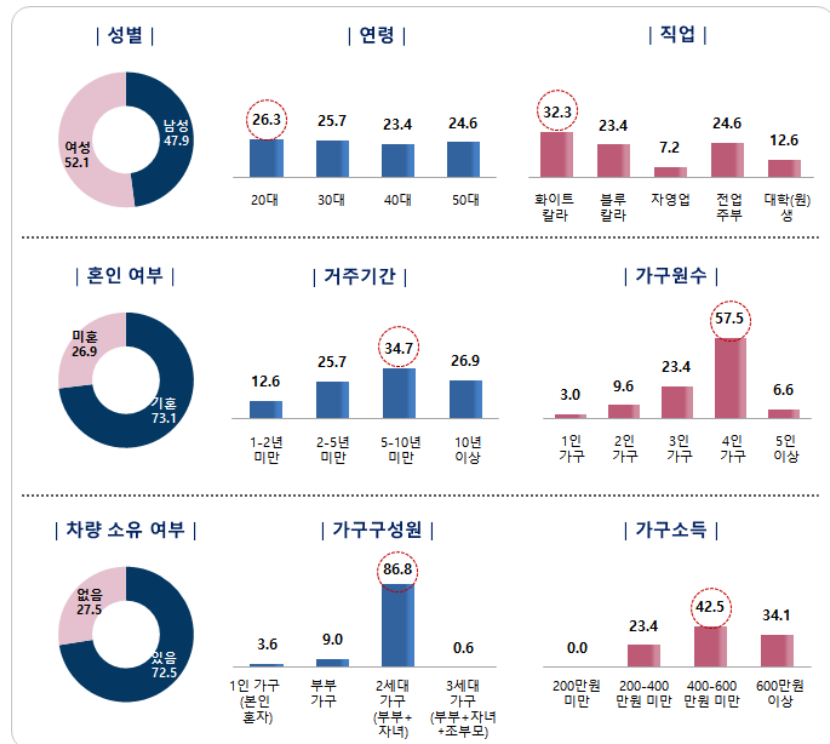


[그림 4-38] 중요하거나 의미 있는 장소에서의 주요 활동 (단위: %, 출처: 연구진 직접 작성)

### ③ 중요하거나 의미 있는 장소별 인식 특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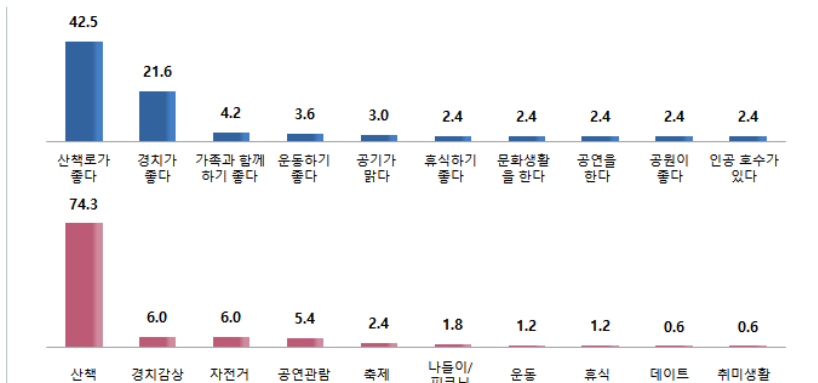
#### □ (1순위) 세종호수공원 (전체 응답자 167명)

세종시민이 가장 중요하거나 의미 있는 장소로 꼽은 세종호수공원은 여성(52.1%), 20대(26.3%), 화이트칼라(32.3%), 기혼(73.1%), 거주기간 5-10년 미만(34.7%)에서 가장 응답 비율이 높게 나타났다. 가구 특성별로는 차량 소유자(72.5%), 4인 가구(57.5%), 부부와 자녀로 구성된 2세대 가구(86.8%), 가구소득 400-600만원 미만(42.5%)에서 응답 비율이 높게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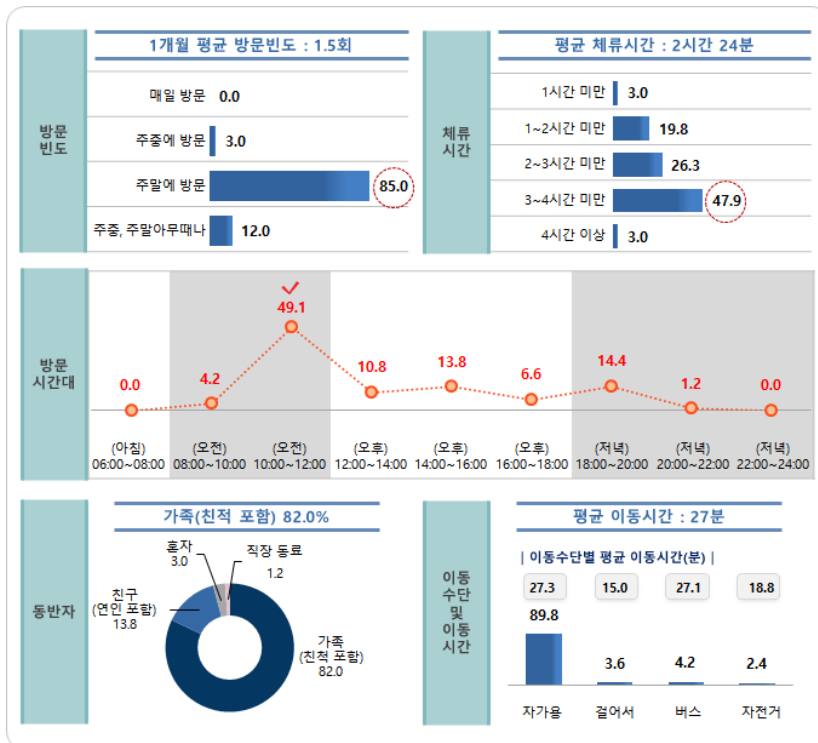
[그림 4-39] 세종호수공원 응답자 특성 (단위: %, 출처: 연구진 직접 작성)

세종호수공원을 중요하거나 의미 있는 장소로 꼽은 가장 큰 이유는 산책로가 좋다(42.5%)이며, 다음으로 경치가 좋다(21.6%), 가족과 함께 하기 좋다(4.2%) 순서이다. 한편, 세종호수공원에서 주로 하는 활동은 산책이 74.3%로 가장 많고, 다음으로 경치 감상과 자전거 각 6.0%, 공연 관람 5.4% 순으로 나타났다.



[그림 4-40] 세종호수공원 선택 이유 및 주요 활동 (단위: %, 출처: 연구진 직접 작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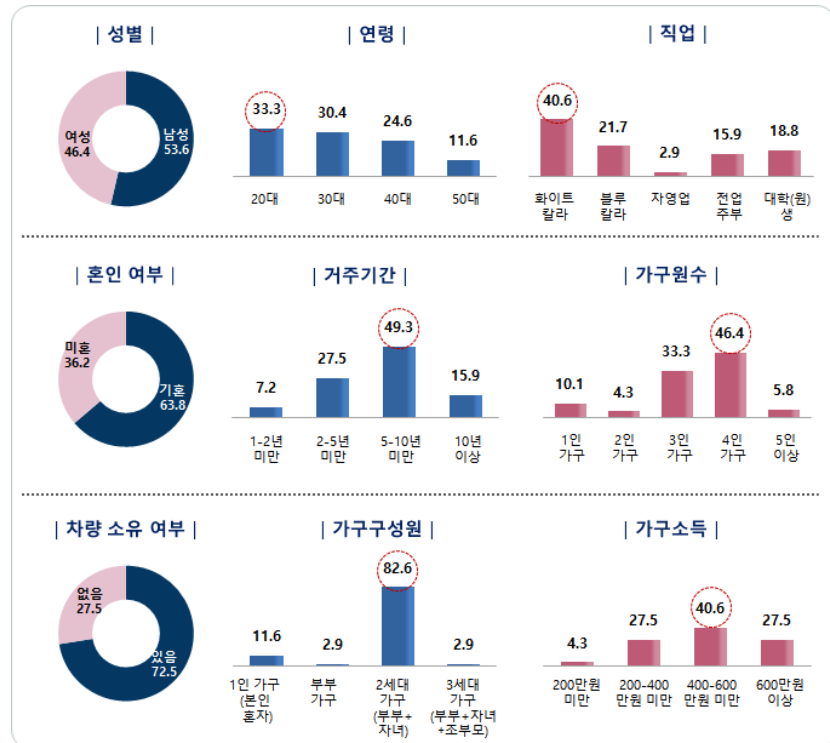
세종호수공원 방문 빈도는 한 달 평균 1.5회, 주로 주말에 방문(85.0%)하고 있으며, 머무르는 시간은 평균 2시간 24분으로 나타났다. 방문시간대를 살펴보면, 오전 10시부터 12시(49.1%)에 주로 방문 한다. 대다수가 가족(친척 포함)과 함께 방문(82.0%)하고 있으며, 주로 자가용(89.8%)을 이용, 평균 이동시간은 27분 정도이다.



[그림 4-41] 세종호수공원 방문 현황 (단위: %, 출처: 연구진 직접 작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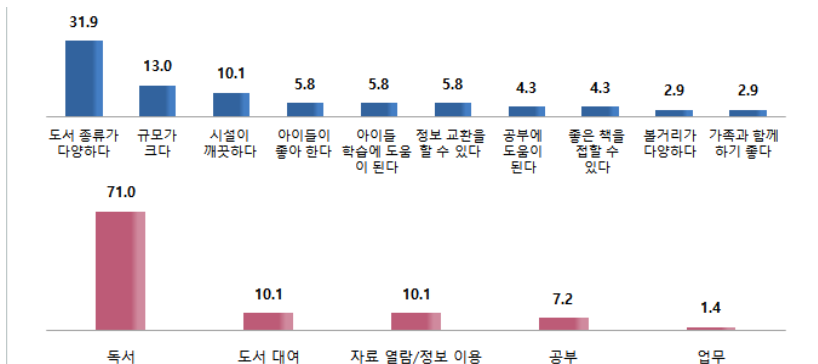
□ (2순위) 국립세종도서관 (전체 응답자 69명)

세종시민이 중요하거나 의미 있는 장소 2순위로 많이 꼽은 국립세종도서관은 남성(53.6%), 20대(33.3%), 화이트칼라(40.6%), 기혼(63.8%), 거주기간 5-10년 미만(49.3%)에서 가장 응답 비율이 높게 나타났다. 가구 특성별로는 차량 소유자(72.5%), 4인 가구(46.4%), 부부와 자녀로 구성된 2세대 가구(82.6%), 가구소득 400-600만원 미만(40.6%)에서 응답 비율이 높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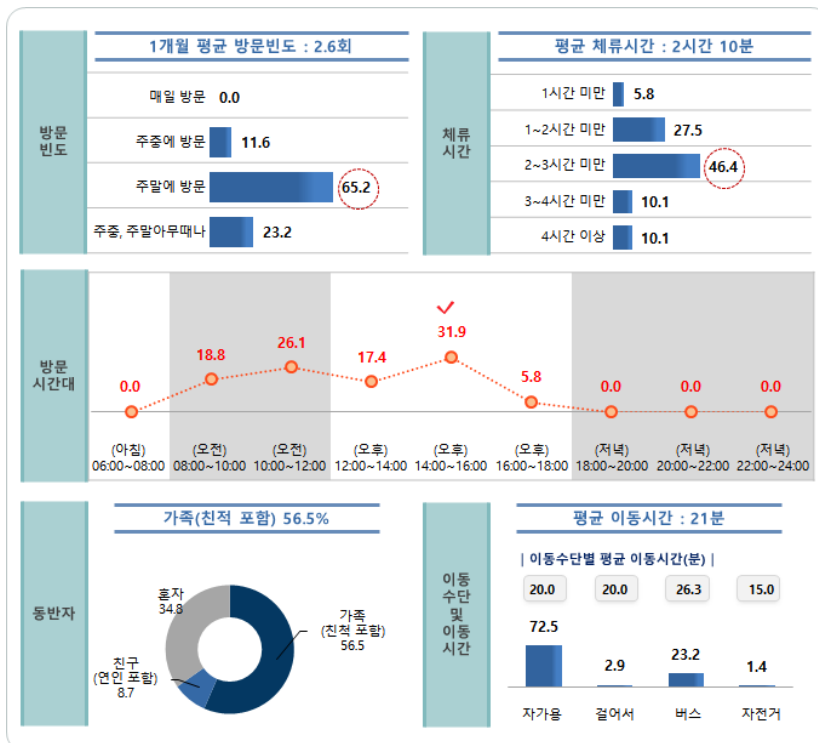
[그림 4-42] 국립세종도서관 응답자 특성 (단위: %, 출처: 연구진 직접 작성)

국립세종도서관을 중요하거나 의미 있는 장소로 꼽은 가장 큰 이유는 도서 종류가 다양하다(31.9%)이며, 다음으로 규모가 크다(13.0%), 시설이 깨끗하다(10.1%)이다. 한편, 국립세종도서관에서 주로 하는 활동은 독서(71.0%)이며, 그 외 도서 대여와 자료 열람/정보 이용(각 10.1%), 공부(7.2%) 등의 활동도 하고 있다.



[그림 4-43] 국립세종도서관 선택 이유 및 주요 활동 (단위: %, 출처: 연구진 직접 작성)

국립세종도서관 방문 빈도는 한 달 평균 2.6회, 주로 주말에 방문(65.2%)하고 있으며, 머무르는 시간은 평균 2시간 10분으로 나타났다. 방문시간대를 살펴보면, 오후 2시부터 4시 사이(31.9%)에 가장 많이 방문하며, 다음으로 오전 10시부터 12시 사이(26.1%)에 방문하는 비율이 비교적 높은 편이다. 응답자의 과반수가 가족(친척 포함)과 함께 방문(56.5%)하고 있으며, 주로 자가용(72.5%)을 이용, 평균 이동시간은 21분 정도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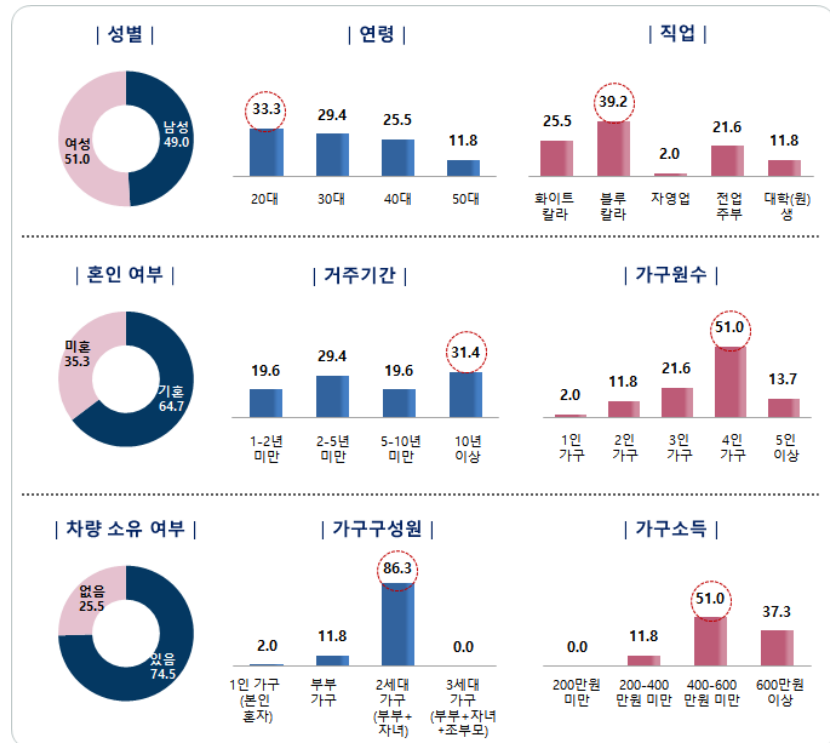


[그림 4-44] 국립세종도서관 방문 현황 (단위: %, 출처: 연구진 직접 작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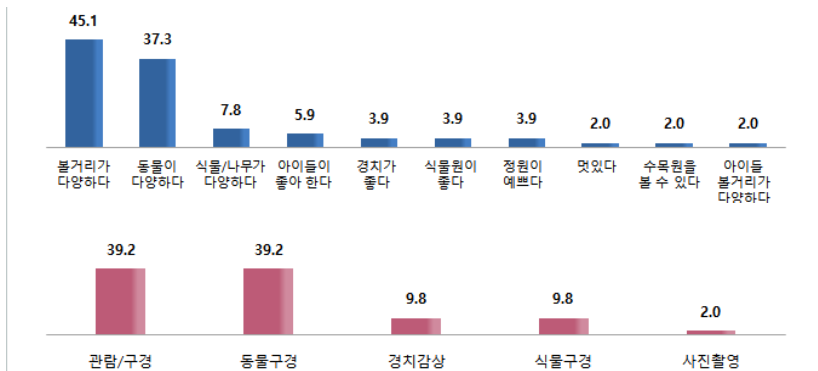
□ (3순위) 베어트리파크 (전체 응답자 51명)

세종시민이 중요하거나 의미 있는 장소 3순위로 많이 꼽은 베어트리파크는 여성(51.0%), 20대(33.3%), 블루칼라(39.2%), 기혼(64.7%), 거주기간 10년 이상(31.4%)에서 응답 비율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가구 특성별로는 차량 소유자(74.5%), 4인 가구(51.0%), 부부와 자녀로 구성된 2세대 가구(86.3%), 가구소득 400~600만원 미만(51.0%)에서 응답 비율이 높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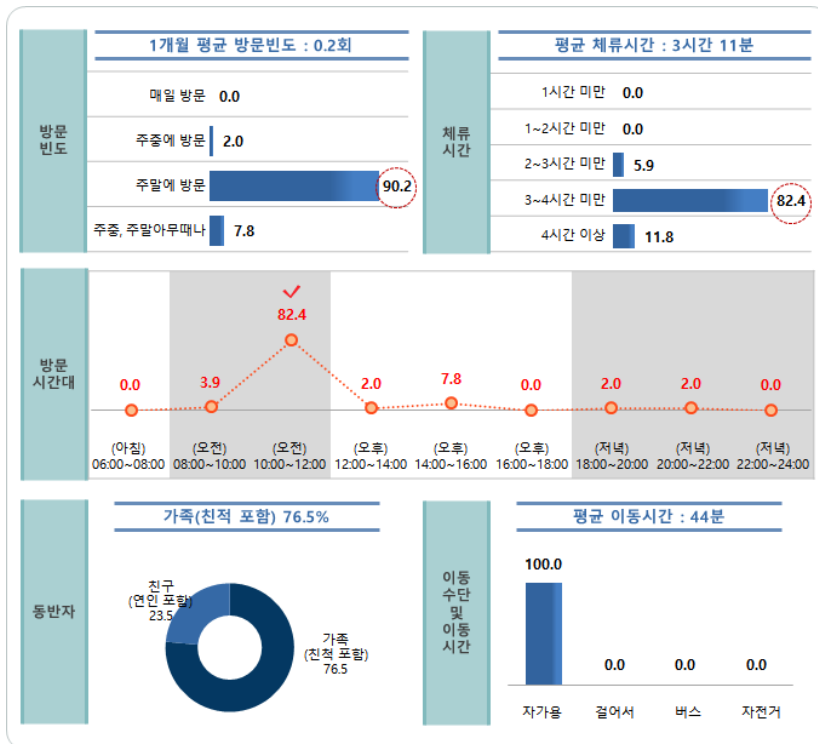
[그림 4-45] 베어트리파크 응답자 특성 (단위: %, 출처: 연구진 직접 작성)

베어트리파크를 중요하거나 의미 있는 장소로 꼽은 가장 큰 이유는 볼거리가 다양하다(45.1%)이며, 다음으로 동물이 다양하다(37.3%), 식물/나무가 다양하다(7.8%)이다. 한편, 베어트리파크에서 주로 하는 활동은 관람/구경(39.2%)과 동물 구경(39.2%)이다.



[그림 4-46] 베어트리파크 선택 이유 및 주요 활동 (단위: %, 출처: 연구진 직접 작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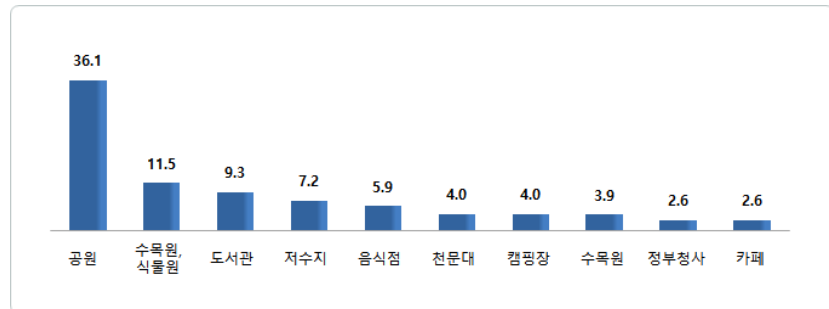
베어트리파크 방문 빈도는 한 달 평균 0.2회, 주로 주말에 방문(90.2%)하고 있으며, 머무르는 시간은 평균 3시간 11분이다. 방문시간대를 살펴보면, 오전 10시부터 12시(82.4%)에 가장 많이 방문하고 있다. 주로 가족(친척 포함)과 함께 방문(76.5%)하고 있으며, 모두 자가용(100.0%)을 이용, 평균 이동시간은 44분이다.



[그림 4-47] 베어트리파크 방문 현황 (단위: %, 출처: 연구진 직접 작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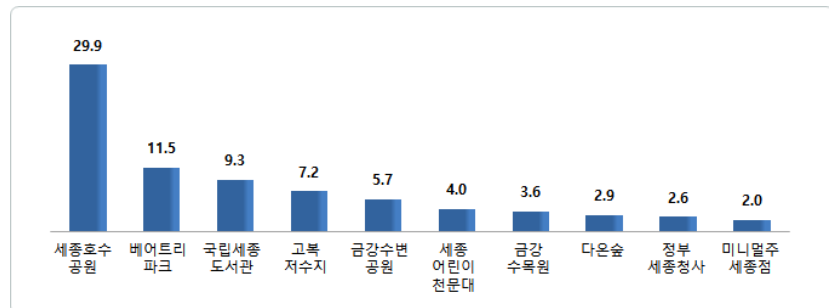
### 3) 지인에게 소개하고 싶은 장소 (총 70개소 도출, 전체 응답자 698명)

세종시에 위치한 장소 중, 지인에게 소개하고 싶은 장소로는 공원(36.1%)이 가장 많으며, 다음으로 수목원·식물원(11.5%), 도서관(9.3%), 저수지(7.2%), 음식점(5.9%)이다. 특히 ‘공원’은 신도심 거주자(37.9%), 남성(39.2%), 30대(39.4%), 거주기간 5-10년 미만(38.2%)에서 가장 추천하고 싶은 장소로 응답하였다. 응답자 특성별로 살펴보면 자연업(43.3%), 기혼(36.4%), 5인 가구(38.0%), 차량 소유자(37.0%), 가구소득 200만원 미만(40.0%) 계층에서 ‘공원’을 가장 소개하고 싶은 장소로 꼽았다.



[그림 4-48] 지인에게 소개하고 싶은 장소 (대분류별) 상위 10개소 (단위: %, 출처: 연구진 직접 작성)

가장 소개하고 싶은 장소를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세종호수공원(29.9%), 베어트리파크(11.5%), 국립세종도서관(9.3%), 고북저수지(7.2%), 금강수변공원(5.7%) 순으로 높게 나타났으며, 특히 ‘세종호수공원’은 신도심 거주자(31.0%), 남성(32.6%), 30대(32.0%), 거주기간 5-10년 미만(34.1%) 계층에서 가장 소개하고 싶은 장소로 나타났다. 응답자 특성별로 살펴보면 자연업(40.0%), 기혼(30.4%), 5인 이상 가구(34.0%), 차량 소유자(30.3%), 가구소득 400-600만원 미만(32.2%)에서 세종호수공원을 가장 소개하고 싶은 장소로 꼽았다.



[그림 4-49] 지인에게 소개하고 싶은 장소 (세부장소별) 상위 10개소 (단위: %, 출처: 연구진 직접 작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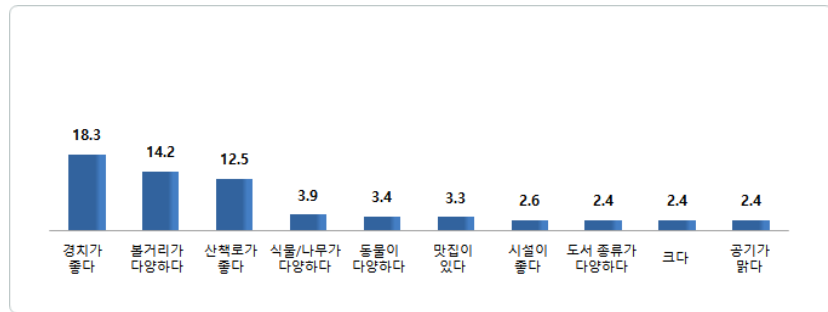
[표 4-5] 지인에게 소개하고 싶은 장소(세부장소별) 상위 10개소 (단위: %)

구 분		사례수 (명)	세종 호수 공원	베어 트리 파크	국립 세종 도서관	고북 저수지	금강 수변 공원	세종 어린이 천문대	금강 수목원	다운 숲	정부 세종 청사	미니 멀주 세종점
전 체		(698)	29.9	11.5	9.3	7.2	5.7	4.0	3.6	2.9	2.6	2.0
거주지	신도심	(335)	31.0	9.9	13.1	4.2	6.3	4.5	3.0	3.3	1.8	3.3
	구도심	(363)	28.9	12.9	5.8	9.9	5.2	3.6	4.1	2.5	3.3	0.8
성별	남성	(347)	32.6	9.8	8.1	8.4	5.8	6.1	3.2	2.0	3.2	1.4
	여성	(351)	27.4	13.1	10.5	6.0	5.7	2.0	4.0	3.7	2.0	2.6
연령	20대	(187)	28.3	12.3	12.3	4.8	5.9	4.8	2.1	3.7	1.6	4.3
	30대	(175)	32.0	10.9	9.7	6.9	7.4	4.0	2.3	2.9	1.7	2.3
	40대	(173)	30.1	11.6	7.5	8.1	4.0	4.6	4.6	4.0	2.9	1.2
	50대	(163)	29.4	11.0	7.4	9.2	5.5	2.5	5.5	0.6	4.3	0.0
거주 기간	1-2년 미만	(74)	24.3	13.5	2.7	6.8	9.5	9.5	5.4	4.1	0.0	6.8
	2-5년 미만	(176)	26.7	10.8	11.4	3.4	9.7	4.0	3.4	4.0	1.1	3.4
	5년-10년 미만	(220)	34.1	9.5	15.9	6.8	3.6	2.3	1.4	1.8	3.6	0.9
	10년 이상	(228)	30.3	13.2	3.5	10.5	3.5	3.9	5.3	2.6	3.5	0.4
직업	화이트칼라	(237)	30.8	8.9	9.3	7.6	7.2	4.2	2.5	3.0	1.3	1.3
	블루칼라	(174)	28.2	13.2	6.9	8.6	6.3	5.2	3.4	3.4	4.0	2.3
	자영업	(30)	40.0	0.0	10.0	13.3	0.0	3.3	0.0	0.0	10.0	0.0
	전업주부	(170)	27.1	14.7	10.0	6.5	5.3	1.8	5.9	2.4	1.8	2.4
	대학(원) 생	(82)	32.9	13.4	13.4	2.4	3.7	6.1	2.4	3.7	2.4	3.7
	무직/은퇴	(5)	40.0	0.0	0.0	0.0	0.0	0.0	20.0	0.0	0.0	0.0
혼인 여부	미혼	(204)	28.9	12.3	11.3	3.9	5.9	4.9	2.5	3.9	2.0	3.4
	기혼	(494)	30.4	11.1	8.5	8.5	5.7	3.6	4.0	2.4	2.8	1.4
가구원수	1인 가구	(31)	22.6	9.7	25.8	3.2	0.0	0.0	3.2	3.2	3.2	0.0
	2인 가구	(70)	32.9	7.1	8.6	5.7	4.3	4.3	5.7	1.4	5.7	1.4
	3인 가구	(183)	29.5	10.4	10.9	7.1	5.5	3.8	2.7	1.1	2.7	2.7
	4인 가구	(364)	29.7	12.1	8.5	7.1	6.9	4.1	3.8	3.0	1.9	2.2
	5인 이상	(50)	34.0	18.0	0.0	12.0	4.0	6.0	2.0	10.0	2.0	0.0
가구 구성원	1인 가구	(33)	24.2	9.1	27.3	3.0	0.0	0.0	3.0	3.0	3.0	0.0
	부부 가구	(64)	32.8	6.3	7.8	6.3	4.7	4.7	6.3	1.6	6.3	1.6
	2세대 가구	(585)	29.9	12.3	8.4	7.7	6.2	4.3	3.4	3.1	1.9	2.2
	3세대 가구	(12)	25.0	8.3	16.7	0.0	8.3	0.0	0.0	0.0	16.7	0.0
	기타	(4)	50.0	0.0	0.0	0.0	0.0	0.0	0.0	0.0	0.0	0.0
차량 소유 여부	있음	(508)	30.3	10.2	8.7	8.1	6.3	4.1	3.3	2.8	2.8	1.8
	없음	(190)	28.9	14.7	11.1	4.7	4.2	3.7	4.2	3.2	2.1	2.6
가구 소득	200만원 미만	(10)	40.0	10.0	20.0	0.0	0.0	0.0	0.0	0.0	10.0	0.0
	200-400만원 미만	(164)	31.7	9.1	14.6	4.9	4.3	1.2	2.4	1.2	6.7	1.2
	400-600만원 미만	(304)	32.2	10.5	10.2	7.6	4.6	3.0	3.9	1.3	1.6	1.3
	600만원 이상	(220)	25.0	14.5	3.6	8.6	8.6	7.7	4.1	6.4	0.5	3.6

출처: 연구진 직접 작성

### ① 지인에게 소개하고 싶은 이유

지인에게 소개하고 싶은 이유로는 경치가 좋다(18.3%), 볼거리가 다양하다(14.2%), 산책로가 좋다(12.5%), 식물/나무가 다양하다(3.9%)이며, 특히 경치가 좋기 때문에 소개하고 싶다는 응답은 구도심 거주자(20.1%), 남성(19.3%), 30대(21.1%), 거주기간 1-2년 미만(27.0%) 계층에서 높게 나타났다. 응답자 특성별로 살펴보면 블루칼라(23.6%), 미혼(19.1%), 5인 이상 가구(24.0%), 2세대 가구(19.1%), 가구소득 600만 원 이상(21.4%)에서 특히 경치가 좋은 장소를 소개하고 싶다는 응답이 높게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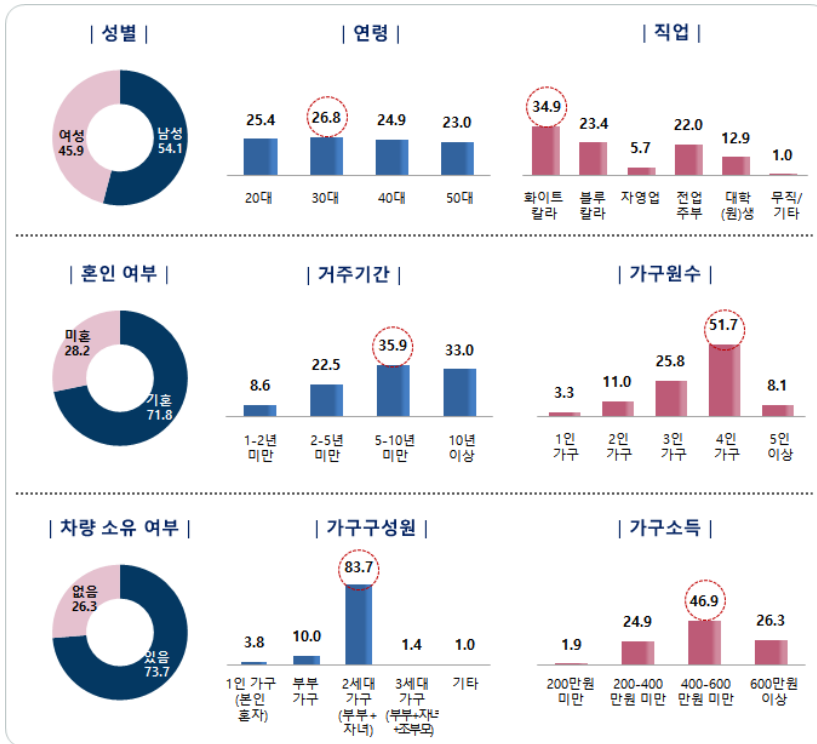


[그림 4-50] 지인에게 소개하고 싶은 이유 (단위: %, 출처: 연구진 직접 작성)

## ② 지인에게 소개하고 싶은 장소별 인식 특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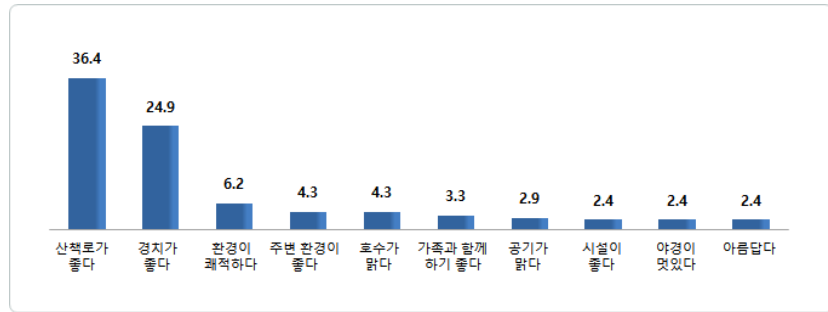
□ (1순위) 세종호수공원 (전체 응답자 209명)

세종시민이 가장 소개하고 싶은 장소로 꼽은 세종호수공원은 남성(54.1%), 30대(26.8%), 화이트칼라(34.9%), 기혼(73.1%), 거주기간 5-10년 미만(35.9%)에서 가장 응답 비율이 높게 나타났다. 가구 특성별로는 차량 소유자(73.7%), 4인 가구(51.7%), 부부와 자녀로 구성된 2세대 가구(83.7%), 가구소득 400-600만원 미만(46.9%)에서 응답 비율이 높게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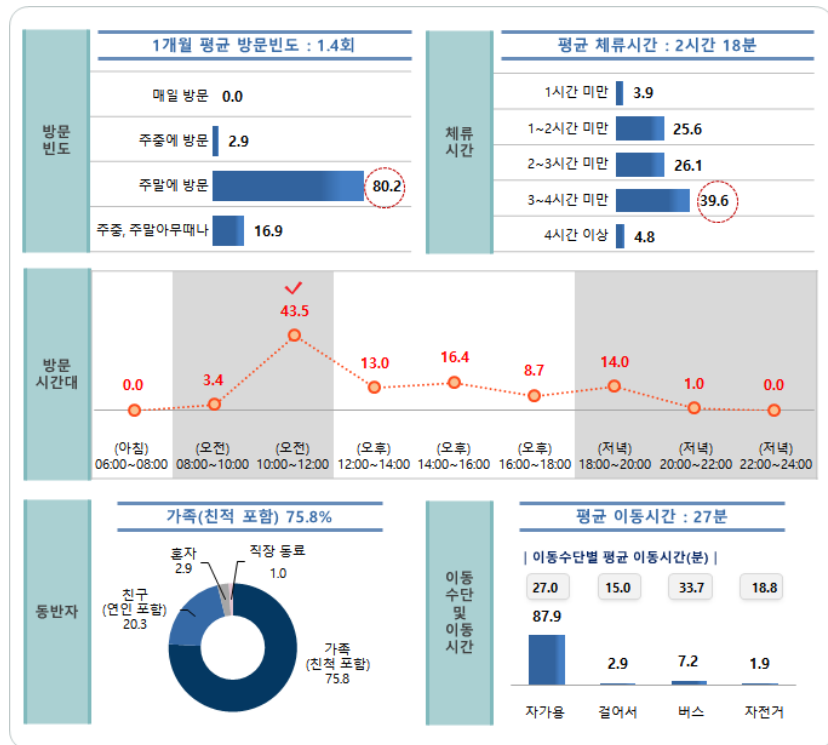
[그림 4-51] 세종호수공원 응답자 특성 (단위: %, 출처: 연구진 직접 작성)

세종호수공원을 소개하고 싶은 장소로 꼽은 가장 큰 이유는 산책로가 좋다(36.4%)이며, 다음으로 경치가 좋다(24.9%), 환경이 쾌적하다(6.2%)이다.



[그림 4-52] 세종호수공원 소개하고 싶은 이유 (단위: %, 출처: 연구진 직접 작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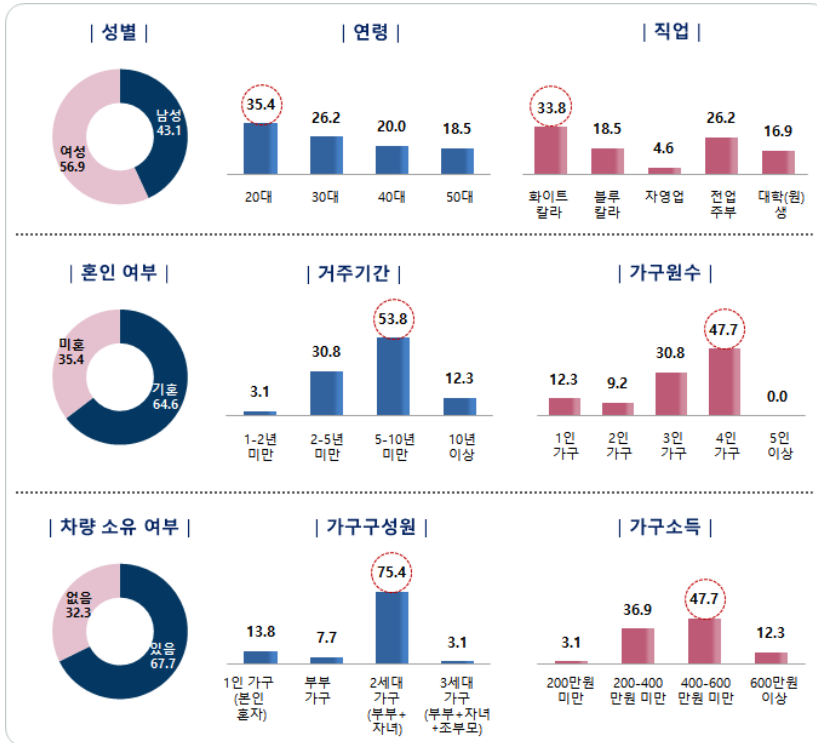
세종호수공원 방문 빈도는 한 달 평균 1.4회, 주로 주말에 방문(80.2%)하고 있으며, 머무르는 시간은 평균 2시간 18분 정도로 나타났다. 방문시간대를 살펴보면, 오전 10시부터 12시(43.5%)에 주로 방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다수가 가족(친척 포함)과 함께 방문(75.8%)하고 있으며, 주로 자가용(87.9%)을 이용, 평균 이동시간은 27분 정도이다.



[그림 4-53] 세종호수공원 방문 현황 (단위: %, 출처: 연구진 직접 작성)

□ (2순위) 베어트리파크 (전체 응답자 80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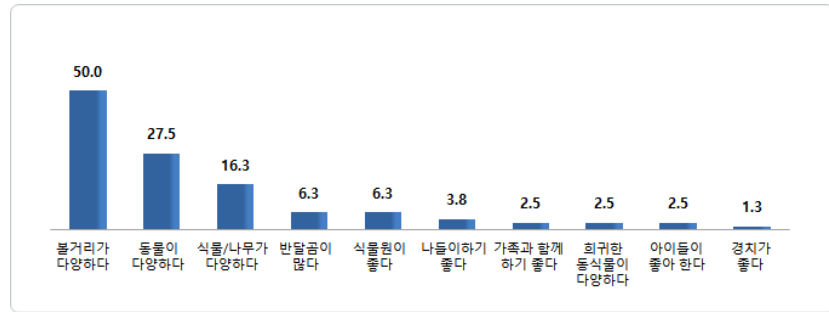
세종시민이 소개하고 싶은 장소 2순위로 많이 꼽은 베어트리파크는 여성(56.9%), 20대(35.4%), 화이트칼라(33.8%), 기혼(64.6%), 거주기간 5-10년 미만(53.8%)에서 가장 응답 비율이 높게 나타났다. 가구 특성별로는 차량 소유자(67.7%), 4인 가구(47.7%), 부부와 자녀로 구성된 2세대 가구(75.4%), 가구소득 400-600만원 미만(47.7%)에서 응답 비율이 높다.



[그림 4-54] 베어트리파크 응답자 특성 (단위: %, 출처: 연구진 직접 작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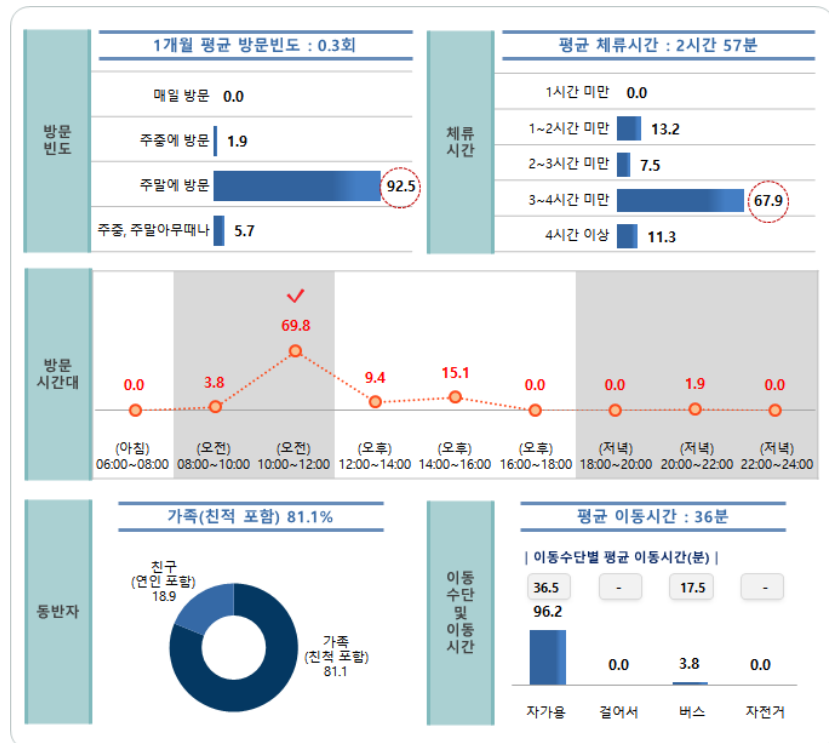
베어트리파크를 소개하고 싶은 장소로 꼽은 가장 큰 이유는 볼거리가 다양하다(50.0%)이며, 다음으로 동물이 다양하다(27.5%), 식물/나무가 다양하다(16.3%)이다.





[그림 4-55] 베어트리파크 소개하고 싶은 이유 (단위: %, 출처: 연구진 직접 작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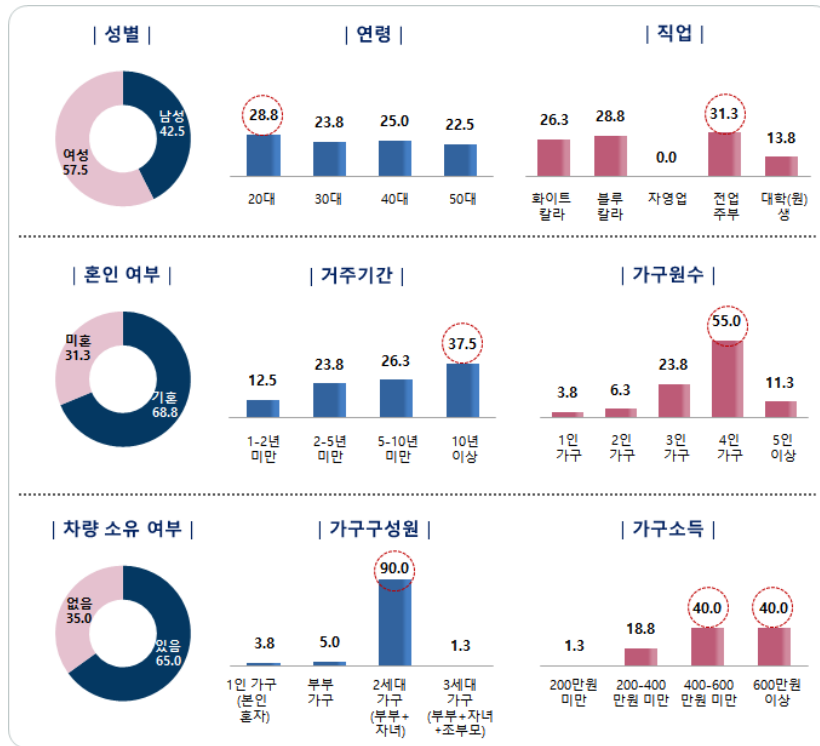
베어트리파크 방문 빈도는 한 달 평균 0.3회, 주로 주말에 방문(92.5%)하고 있으며, 머무르는 시간은 평균 2시간 57분으로 나타났다. 방문시간대를 살펴보면, 오전 10시부터 12시(69.8%)에 가장 많이 방문하고 있다. 주로 가족(친척 포함)과 함께 방문(81.1%)하고 있으며, 대다수가 자가용(96.2%)을 이용, 평균 이동시간은 36분 정도이다.



[그림 4-56] 베어트리파크 방문 현황 (단위: %, 출처: 연구진 직접 작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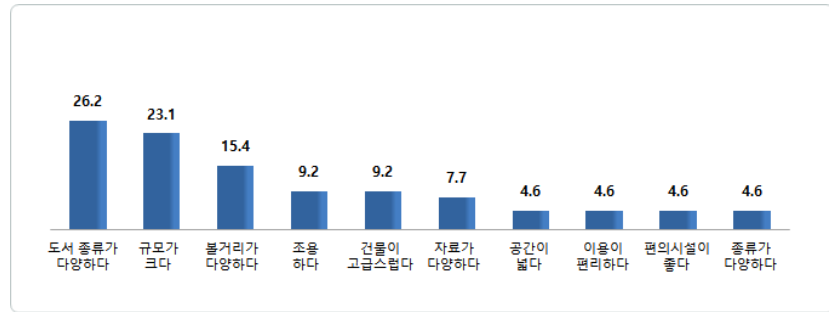
□ (3순위) 국립세종도서관 (전체 응답자 65명)

세종시민이 소개하고 싶은 장소 3순위로 많이 꼽은 국립세종도서관은 여성(57.5%), 20대(28.8%), 전업주부(31.3%), 기혼(68.8%), 거주기간 10년 이상(37.5%)에서 가장 응답 비율이 높게 나타났다. 가구 특성별로는 차량 소유자(65.0%), 4인 가구(55.0%), 부부와 자녀로 구성된 2세대 가구(90.0%)에서 응답 비율이 높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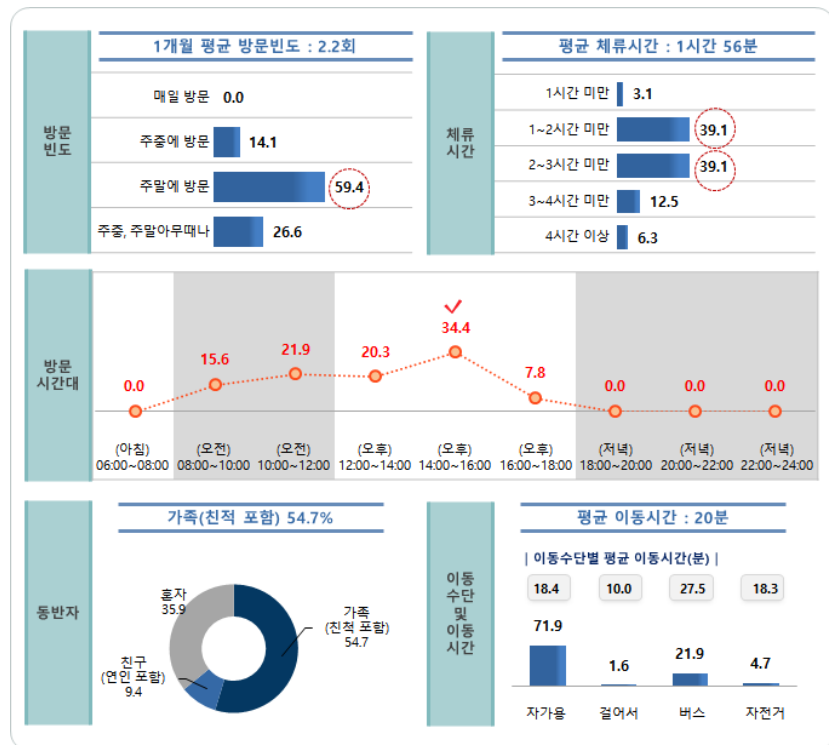
[그림 4-57] 국립세종도서관 응답자 특성 (단위: %, 출처: 연구진 직접 작성)

국립세종도서관을 소개하고 싶은 장소로 꼽은 가장 큰 이유는 도서 종류가 다양하다(26.2%)이며, 다음으로 규모가 크다(23.1%), 볼거리가 다양하다(15.4%) 이다.



[그림 4-58] 국립세종도서관 소개하고 싶은 이유 (단위: %, 출처: 연구진 직접 작성)

국립세종도서관 방문 빈도는 한 달 평균 2.2회, 주로 주말에 방문(59.4%)하고 있으며, 머무르는 시간은 평균 1시간 56분 정도로 나타났다. 방문시간대를 살펴보면, 오후 2시부터 4시 사이(34.4%)에 가장 많이 방문하며, 다음으로 오전 10시부터 12시 사이(21.9%)에 방문하는 비율이 높게 나타났다. 응답자의 과반수가 가족(친척 포함)과 함께 방문(54.7%)하고 있으며, 주로 자가용(71.9%)을 이용, 평균 이동시간은 20분 정도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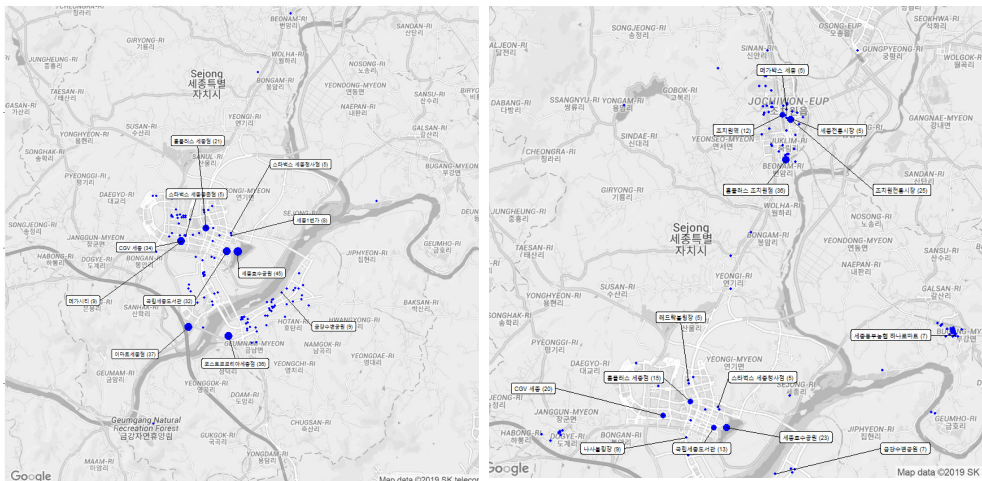
[그림 4-59] 국립세종도서관 방문 현황 (단위: %, 출처: 연구진 직접 작성)



자주 가는 장소 상위 10개소 중 8소가 건설도시지역 내에 위치하고 있어 신도시로 장소가 많이 집중되어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표 4-6] 자주 가는 장소 상위 10개소

구 분	장소 (세부장소별)	장소 위치	응답비율	응답인원	응답자 거주지역	
					신도시	구도심
1순위	세종호수공원	신도시	7.9%	68명	45명	23명
2순위	이마트 세종점	신도시	6.7%	58명	37명	21명
3순위	CGV 세종	신도시	6.3%	54명	34명	20명
4순위	코스트코코리아 세종점	신도시	5.5%	47명	36명	11명
5순위	국립세종도서관	신도시	5.2%	45명	32명	13명
6순위	홈플러스 조치원점	구도심	4.4%	38명	2명	36명
7순위	홈플러스 세종점	신도시	4.2%	36명	21명	15명
8순위	조치원 전통시장	구도심	3.8%	33명	8명	25명
9순위	금강수변공원	신도시	1.9%	16명	9명	7명
10순위	나사불링장	신도시	1.5%	13명	4명	9명
총			47.4%	408명	228명	180명



[그림 4-61] 자주 가는 장소 맵핑(응답자 거주 지역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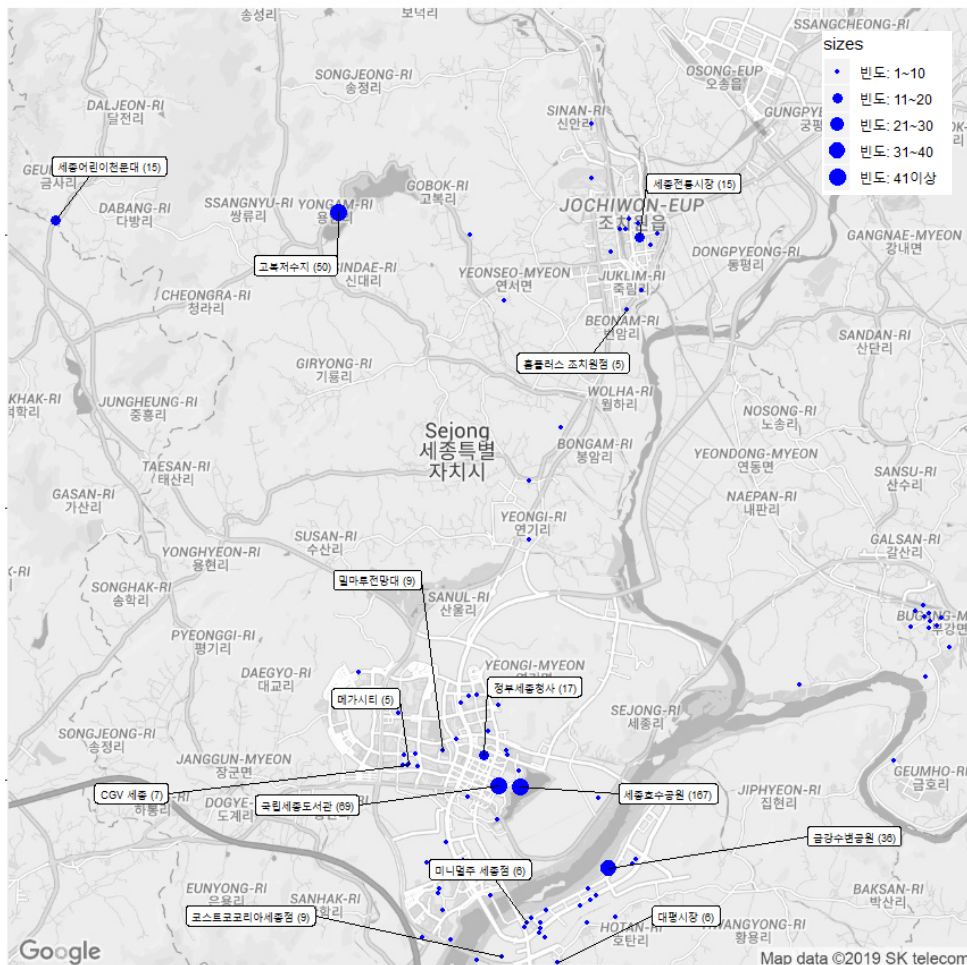
※ 좌측: 신도시 거주자의 자주 가는 장소, 우측: 구도심 거주자의 자주 가는 장소

(출처: Google 지도(<https://www.google.com/maps>) 기반으로 연구진 직접 작성)

응답자 거주지역 별 자주 가는 장소를 구분해봤을 때 신도시 거주민들은 자주 가는 장소 대부분이 신도시에 한정되어 있는 반면 구도심 거주민들의 자주 가는 장소는 상당수 신도시에 위치하고 있다.

#### □ 의미 있거나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장소

세종시민에게 의미 있거나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장소는 신도시와 구도심에 고루 분포되어 있다. 장소 상위 10개소 중 5개소가 건설도시지역 내, 5개소가 구도심에 위치하고 있으며 주로 공원, 수목원과 식물원, 저수지 같이 자연적·인공적 환경이 조성되어 있는 장소를 가장 의미 있는 곳으로 생각하며, 의미 있는 이유로 '경치가 좋거나 산책로가 좋고, 동·식물 등의 볼거리가 다양하다고' 응답하였다.



[그림 4-62] 의미 있거나 중요한 장소 맵핑(전체)

(출처: Google 지도(<https://www.google.com/maps>) 기반으로 연구진 직접 작성)



의미 있거나 중요한 장소 특성으로는 자주 가는 장소와 다르게 응답자 거주지역과 관계없이 신도시와 구도심에 위치한 장소를 자유롭게 방문한다는 것이다. 1순위 장소인 '세종호수공원'의 경우 신도시에 위치하고 있음에도 응답인원 167명 중 신도시 거주자 응답 비율이 54%(91명), 구도심 거주자 응답 비율이 45%(76명)로 큰 차이가 나지 않는다. 3순위 장소인 '베어트리파크' 역시 응답인원 51명 중 신도시 거주자 응답비율은 45%(23명), 구도심 거주자 응답비율은 54%(28명)으로 구도심에 위치하고 있음에도 신도시 거주자의 장소 선택 비율이 높게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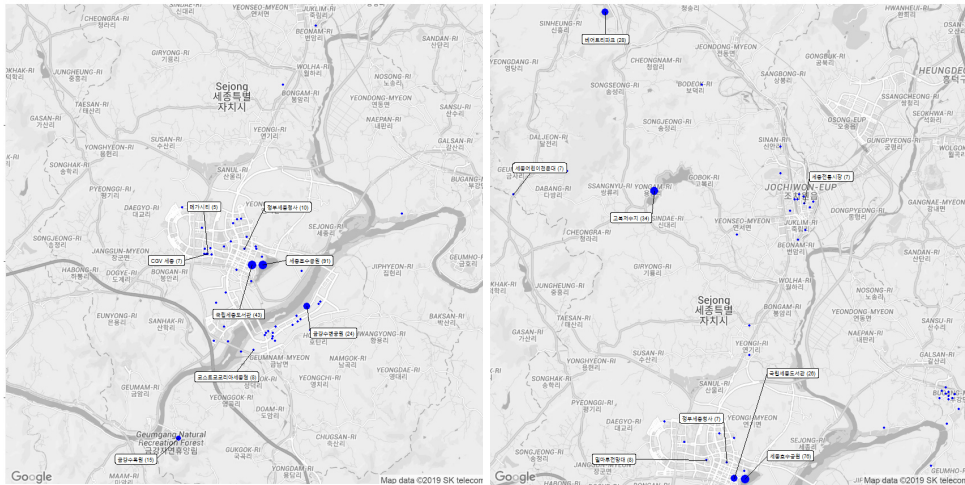
이는 의미 있거나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장소가 본인이 살고 있는 거주지에 영향을 받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한다.

[표 4-7] 의미 있거나 중요한 장소 상위 10개소

구 분	장소 (세부장소별)	장소 위치	응답비율	응답인원	응답자 거주지역	
					신도시	구도심
1순위	세종호수공원	신도시	25.2%	167명	91명	76명
2순위	국립세종도서관	신도시	10.4%	69명	43명	26명
3순위	베어트리파크	구도심	7.7%	51명	23명	28명
4순위	고북저수지	구도심	7.5%	50명	16명	34명
5순위	금강수목원	구도심	7.1%	47명	15명	32명
6순위	금강수변공원	신도시	5.4%	36명	24명	12명
7순위	정부세종청사	신도시	2.6%	17명	10명	7명
8순위	세종어린이천문대	구도심	2.3%	15명	8명	7명
9순위	세종전통시장	구도심	2.3%	15명	8명	7명
10순위	밀마루전망대	신도시	1.4%	9명	1명	8명
총			71.7%	476명	239명	237명

출처: 연구진 직접 작성

응답자 거주지역 별 의미 있거나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장소를 구분해봤을 때 구도심 거주민들의 장소 반경이 넓은 것을 알 수 있다. 반면 신도시 거주민들은 자주 가는 장소와 같이 대부분이 신도시에 한정되어 있다.



[그림 4-63] 의미 있거나 중요한 장소 맵핑(응답자 거주 지역별)

※ 좌측: 신도시 거주자의 자주 가는 장소, 우측: 구도심 거주자의 자주 가는 장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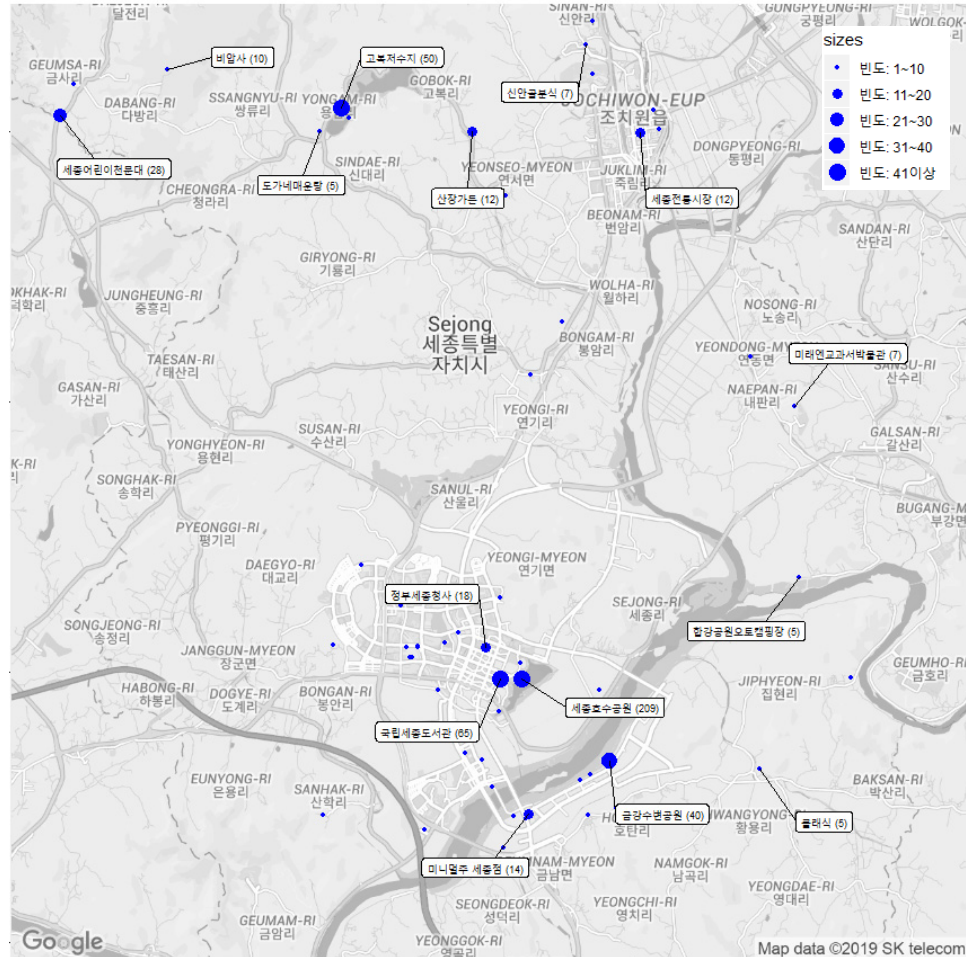
(출처: Google 지도(<https://www.google.com/maps>) 기반으로 연구진 직접 작성)

## □ 지인에게 소개해주고 싶은 장소, 세종시 랜드마크

세종시민이 지인에게 소개해주고 싶은 장소 역시 신도시와 구도심에 고루 분포되어 있다. 장소 상위 10개소 중 5개소가 건설도시지역 내, 5개소가 구도심에 위치하고 있으며 주로 공원, 수목원과 식물원, 저수지 같이 자연적·인공적 환경이 조성되어 있는 장소가 높은 비율을 차지한다. 지인에게 소개해주고 싶은 세종시의 장소 중 음식점과 카페와 같이 먹거리와 천문대, 세종정부청사와 같이 세종시에서만 볼 수 있는 건물 등을 소개해주고 싶은 장소로 응답한 비율도 상당수를 차지한다. 특히, 방문한 적이 없는 장소를 응답한 비율이 있는 것이 특징이다.

지인에게 소개해주고 싶은 장소 특성 역시 의미 있는 장소와 같이 응답자 거주지역과 관계없이 신도시와 구도심에 위치한 장소를 자유롭게 응답하였다. 1순위 장소인 '세종호수공원'의 경우 신도시에 위치하고 있음에도 구도심 거주자 응답 비율이 50%(105명)를 차지하며, 9순위인 '정부세종청사' 역시 신도시에 위치하고 있음에도 구도심 거주자 응답비율은 66%(12명)를 차지해 세종의 랜드마크 성격을 갖는 다고 할 수 있다.





[그림 4-64] 지인에게 소개해주고 싶은 장소 맵핑(전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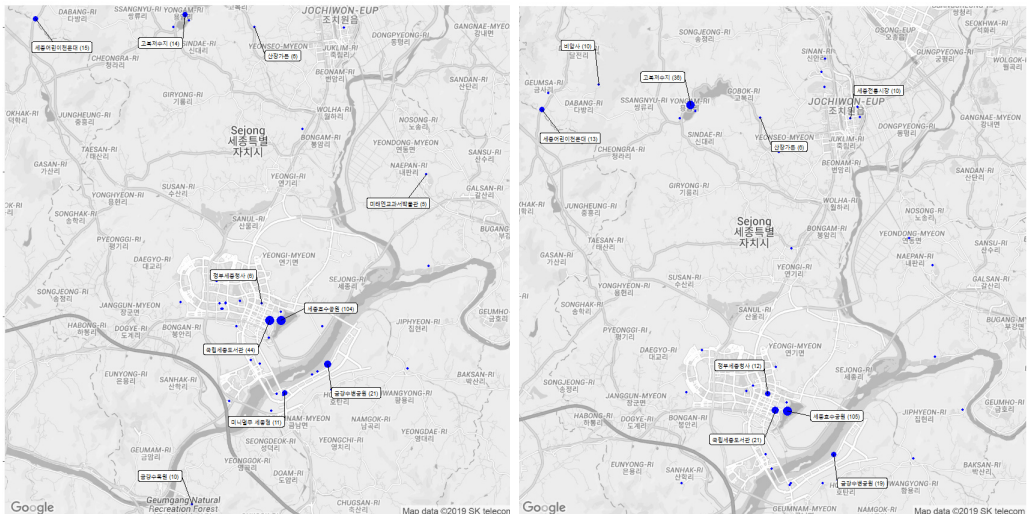
(출처: Google 지도(<https://www.google.com/maps>) 기반으로 연구진 직접 작성)

응답자 거주지역 별 지인에게 소개해주고 싶은 장소를 구분해봤을 때 구도심 거주민들의 장소는 건설지역 내 일부와 고북저수지와 같이 구도심의 중심지이고 할 수 있는 조치원읍이 아닌 세종시의 랜드마크적 성격을 가진 장소의 응답 비율이 높았다. 신도시 거주민들 역시 건설지역 내의 장소를 많이 응답하였지만 고북저수지, 세종어린이천문대 등 구도심에 위치한 장소도 높은 응답비율을 나타냈다.

[표 4-8] 지인에게 소개해주고 싶은 장소 상위 10개소

구 분	장소 (세부장소별)	장소 위치	응답비율	응답인원	응답자 거주지역	
					신도시	구도심
1순위	세종호수공원	신도시	29.9%	209명	104명	105명
2순위	베어트리파크	구도심	11.5%	80명	33명	47명
3순위	국립세종도서관	신도시	9.3%	65명	44명	21명
4순위	고북저수지	구도심	7.2%	50명	14명	36명
5순위	금강수변공원	신도시	5.7%	40명	21명	19명
6순위	세종어린이천문대	구도심	4.0%	28명	15명	13명
7순위	금강수목원	구도심	3.6%	25명	10명	15명
8순위	다운숲	구도심	2.9%	20명	11명	9명
9순위	정부세종청사	신도시	2.6%	18명	6명	12명
10순위	미니멀주 세종점	신도시	2.0%	14명	11명	3명
총			78.7%	549명	269명	280명

출처: 연구진 직접 작성



[그림 4-65] 지인에게 소개해주고 싶은 장소 맵핑(응답자 거주 지역별)

※ 좌측: 신도시 거주자의 자주 가는 장소, 우측: 구도심 거주자의 자주 가는 장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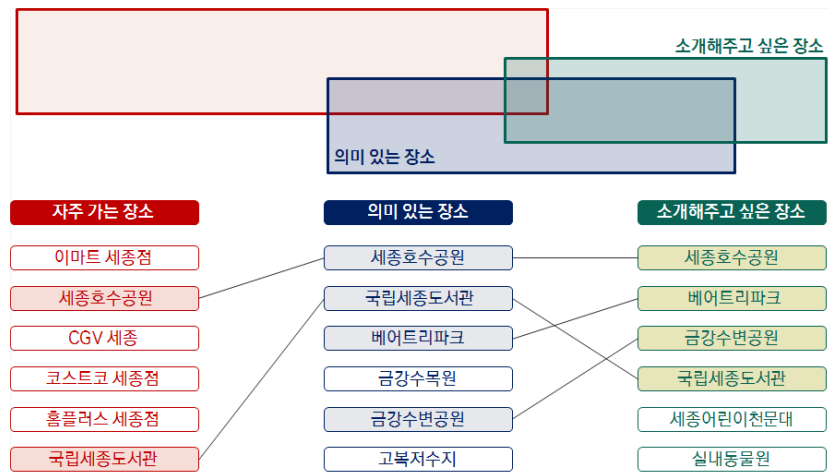
(출처: Google 지도(<https://www.google.com/maps>) 기반으로 연구진 직접 작성)

## 2) 종합분석

세종시민을 대상으로 한 장소 인식 및 여가생활 실태조사 결과, 세종시민이 가장 많은 시간을 투자하고, 가장 자주 하는 여가생활은 ‘TV시청(48.8%, 종합순위)’이며, 세종시민이 가장 자주 가고, 중요하거나 의미 있으며, 지인에게 소개하고 싶은 장소는 ‘세종호수공원’으로 나타났다.

세종시의 경우, 자주 가는 장소로 도출된 “세종호수공원”과 “국립세종도서관”은 세종시민에게 의미 있는 장소이자 소개해주고 싶은 장소로 나타났으며, 의미 있는 장소로 도출된 장소들은 소개해주고 싶은 장소와 거의 일치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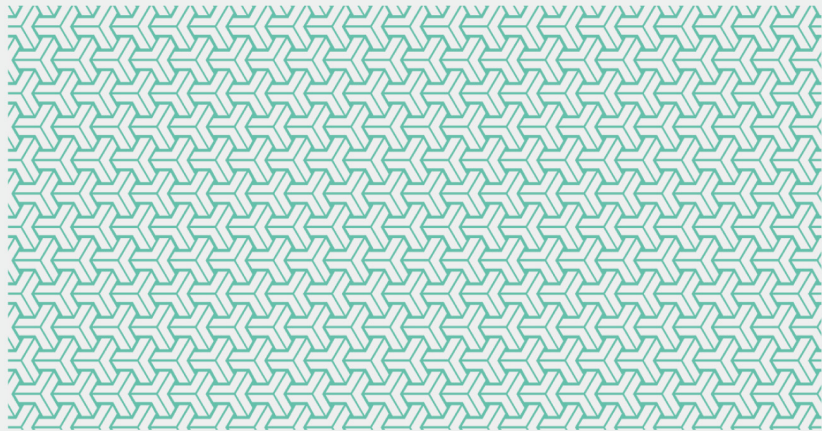
세종시민을 대상으로 장소 인식 분석 결과, 건축도시 환경은 크게 자주 가는 장소, 의미 있는 장소, 지인에게 소개해주고 싶은 장소로 구분될 수 있다. 향후 세종시의 건축도시 환경은 세종시민이 자주 이용하고, 의미를 주고, 남에게 소개해주고 싶은 장소의 교집합이 점점 증대되는 방향으로 조성될 필요가 있다.



[그림 4-66] 세종시 장소의 교집합 (출처: 연구진 직접 작성)



## 제5장 장소만들기를 위한 제언



1. 장소 관점에서 건축·도시환경
2. 세종시 장소 만들기를 위한 제언

# 1. 장소 관점에서 건축·도시환경

## 1) 장소의 의미

지리학 분야에서 연구되기 시작한 ‘장소(place)’는 ‘공간(space)’과 구분되는 개념으로 사용되었으며, 인간의 경험이 초래하는 경험론적 결과로서 논의되고 있다. 즉 장소는 단순히 물리적 공간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한 공간에서 인간의 삶과 경험방식이 유기적으로 결부된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개인마다 장소에 대한 정의가 다를 수 있으며, 장소에 대한 인식 또한 차이가 있을 수 있다.

사람들은 장소에 어떤 특정한 의미를 부여하기도 하며, 장소가 사람들에게 어떤 특정한 의미를 전달하기도 한다. 즉 사람과 장소는 ‘의미’를 매개체로 하여 결부되어 있다. 이러한 의미는 개인에 따라 매우 다양하지만, 이를 유형화하여 크게 3가지 의미로 분류하면 아래 표와 같다.

[표 5-1] 장소의 의미: 존재, 행위, 감정

Meaning/Value	Personal	Group
Ontological (Place Identity)	Self-identity, Sense of belonging to place, Rootedness, Insideness	Social(group) identity, Sense of belonging to group and its place, Sense of community, Being with significant others
Behavioral (Place Dependence and Specificity)	Place as a physical context for individual's behavior and survival	Place of group as a significant backdrop for communal behavior and collective survival, Shared actions, Interaction with others
Emotional (Place Attachment)	Person's psychological and affective tie to place	Shared attachment to place, Role of place in community/neighborhood attachment, Communal reactions to external threats

출처: 민병호(2006), 「도시주거의 비판적 휴머니즘」, 시공사, p.238, [표 6-2]

장소 의미의 첫 번째 유형은 ‘존재론적 의미(Ontological)’이며, 장소가 ‘자신’을 대변하는 하나의 수단임을 의미한다. 장소의 존재론적 의미에 대해서는 여러 학자들이 주장하였다. 볼노우<sup>51)</sup>는 장소를 ‘나에 관한 최저 기준(zero point of the reference system)’이라 하였고, 시몬<sup>52)</sup>은 ‘존재의 기초(basic platform for existence)’라 하였다. 특히 장소이론의 대표적 연구자인 프로샨스키<sup>53)</sup>는 장소

51) Bollnow, O.(1967), “Lived-space”, [In N. Lawrence & D. O’ Connor(Eds.)], 「Readings in existential phenomenology」, Englewood Cliffs: Prentice Hall, pp.178-186.

52) Seamon, D.(1982), “The phenomenological contribution to environmental psychology”, 「Journal of Environmental Psychology」, 2, pp.119-140.

가 인간 존재의 의미와 수준을 결정한다고 주장하였으며, 장소를 가지고 있다는 사실, 장소를 이용한다는 것 자체가 사람이 스스로의 일상적 존재를 인지하고 확인하는 작업이라고 주장하였다.<sup>54)</sup>

두 번째 의미는 ‘행동적 의미(behavioral)’이다. 사람은 일상의 기능적이며 현실적인 목적을 위해 장소에 의존하게 된다. 이는 스토클스가 말한 행동-장소 고유성 즉 한 장소에서 개인 혹은 집단이 특정 행동을 정기적으로 혹은 지속적으로 수행하는 현상(place specificity)이며<sup>55)</sup>, 개인 또는 집단이 특정 행동을 위해 하나의 장소에 의존하는 현상(place dependence)<sup>56)</sup>이다. 이처럼 장소와 행동은 분리하여 생각할 수 없으며, 사람들에게 있어 장소는 삶의 중요한 부분을 수행하는데 반드시 필요하다. 즉 장소는 이러한 행동의미론적 역할을 가지고 있다.

세 번째 장소의 의미는 ‘정서적 의미(Emotional)’이다. 한 공간이 장소가 되면 사람의 감정에 변화가 일어나며, 장소에 대한 애착(place attachment)이 생기게 된다. 장소가 감정적 안정과 친근감, 평안과 위로를 주기 때문에 사람들은 장소를 중요하게 생각하여 장소에 대한 감정이 유착됨을 의미한다. 이러한 감정의 유착은 장소가 사라지게 될 위기에 처했을 때 가장 명확하게 확인된다.<sup>57)</sup>

## 2) 장소로서의 건축·도시 환경

위와 같이 장소는 한 인간의 존재를 대변하고 일상생활을 영위하기 위해 의존하는, 또 그러한 과정에서 감정적 유착이 일어나는 물리적 실체(건축도시 환경)이다. 여기에 ‘시간’이라는 차원과 ‘개인 또는 하나의 사회적 그룹’이라는 차원을 고려해보면, 건축·도시 환경은 한 개인(또는 그룹)이 시간에 따라 이용하는 장소들의 집합체임과 동시에 의미들의 시퀀스라고 볼 수 있다. 즉 사람들의 생활 무대인 건축·도시환경은 존재론적, 행동적, 정서적 의미가 얹혀 있는 도시민의 삶과 존재의 공간적 네트워크로 이해될 수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민병호·이종민의 연구<sup>58)</sup>장소의 존재론적 의미와 정서적 의미

---

53) Proshansky, H. M. & Fabian, A. K. & Kaminoff, R.(1983), "Place identity: Physical world socialization of the self", 『Journal of Environmental psychology』 3, pp.57-83.

54) 민병호(2006), 「도시주거의 비판적 휴머니즘」, 시공사, p.233.을 참조하여 작성함.

55) Stokols, D. & Shumaker, S. A.(1981), "People in places: A transactional view of settings", [In J. Harvey(Ed.)], 『Cognition, social behavior and the environment』, Hillsdale, NJ: Erlbaum, p.456.

56) Ibid., p.40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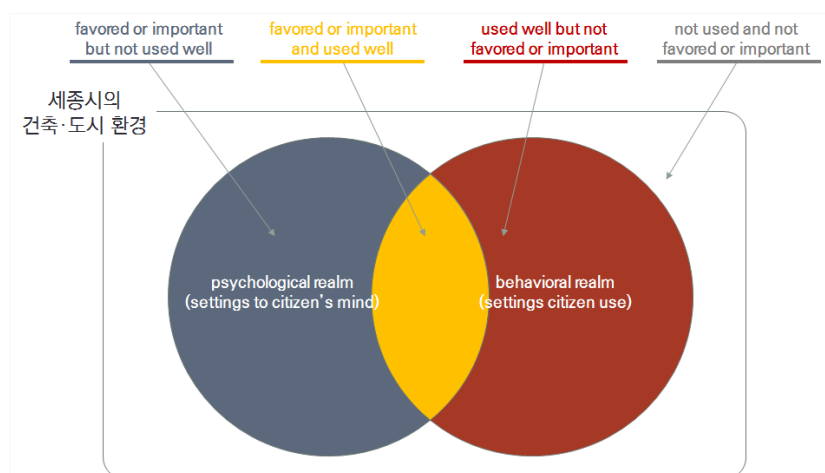
57) 민병호(2006), 「도시주거의 비판적 휴머니즘」, 시공사, p.244를 참조하여 작성함.

58) Min, B. & Lee, J.(2006), "Children's neighborhood place as a psychological



를 심리적 영역(psychological realm) 으로 함께 고려하여, 건축·도시환경은 크게 심리적 영역과 행동적 영역(behavioral realm)으로 구분하였다. 도시민이 인지하고 있는 영역을 “선호”와 “중요도”를 기준으로 구분하고, 이용하는 영역을 그 이용 빈도로 구분하여 도식화 하면 건축·도시환경은 크게 4가지 영역(① 도시민에게 선호되고 중요하지만 잘 이용되지 않는 영역, ② 도시민에게 선호되고 중요하면서 잘 이용되는 영역, ③ 도시민에게 잘 이용되지만 중요하거나 선호되지 않는 영역, ④ 도시민에게 잘 이용되지도 않고 선호되거나 중요하지 않은 영역)으로 구분된다(그림 5-1 참조).

건축·도시환경을 조성함에 있어 어떤 방향으로 조성해야하는가를 고민해야할 때 교집합(② 도시민에게 선호되고 중요하면서 잘 이용되는 영역)의 범위가 점점 넓혀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림 5-1] 장소 관점에서의 건축·도시환경 다이어그램

출처: Min, B. & Lee, J.(2006), p.52, Fig.1을 재작성함

and behavioral domain”, 『Journal of Environmental Psychology』, Vol.26, pp.51-71.



## 2. 세종시 장소 만들기를 위한 제언

### 1) 생활권 중심 장소 만들기

세종특별자치시 건설지역(신도심)은 총 22개 생활권을 대상으로 공동주택용지, 근린생활시설용지, 단독주택용지, 상업업무용지로 구분하여 경관 및 공공, 환경, 특별계획구역, 특화 부문으로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였다. 이를 통하여 도시민의 공동체적 정주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공공시설용지, 교육연구시설용지, 공공시설물 계획, 안전한 도시 조성계획, 장애물 없는 도시 조성 계획 등 생활권별 지침을 제시하였다. 대부분은 도로와 공원 등 공공에서 조성·관리·운영하는 공간에 적용되었으며 주민들의 다양한 정주환경 조성을 위한 사항들을 다루고 있다.<sup>59)</sup>

하지만 본 연구에서 세종시민을 대상으로 중요한 장소를 조사한 결과, 세종호수공원, 베어트리파크, 금강수목원 등 대부분 도시차원에서 조성된 ‘자연환경’이 중요한 장소로 언급되었다. 생활권 단위로 조성된 자연환경은 세종시민의 중요한 장소로 거의 언급되지 않았다. 이러한 시점에서 세종시민의 장소 인식 조사는 매우 큰 의미가 있다고 판단된다.

장소 인식 조사 결과, 도시 전체 차원에서의 장소만들기는 일정 부분 성공을 거두었다고 평가된다. 하지만 도시민의 일상생활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생활권 내에서의 장소만들기는 아직 선불리 평가할 수 없다고 판단된다. 이는 생활권 계획에 따라 세종특별자치시 건설지역 내 건축·도시 환경의 조성이 완료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는 아직 현재 진행형이기 때문에 장소의 네트워크라는 관점에서 생활권을 재평가하고 조성할 수 있는 여지와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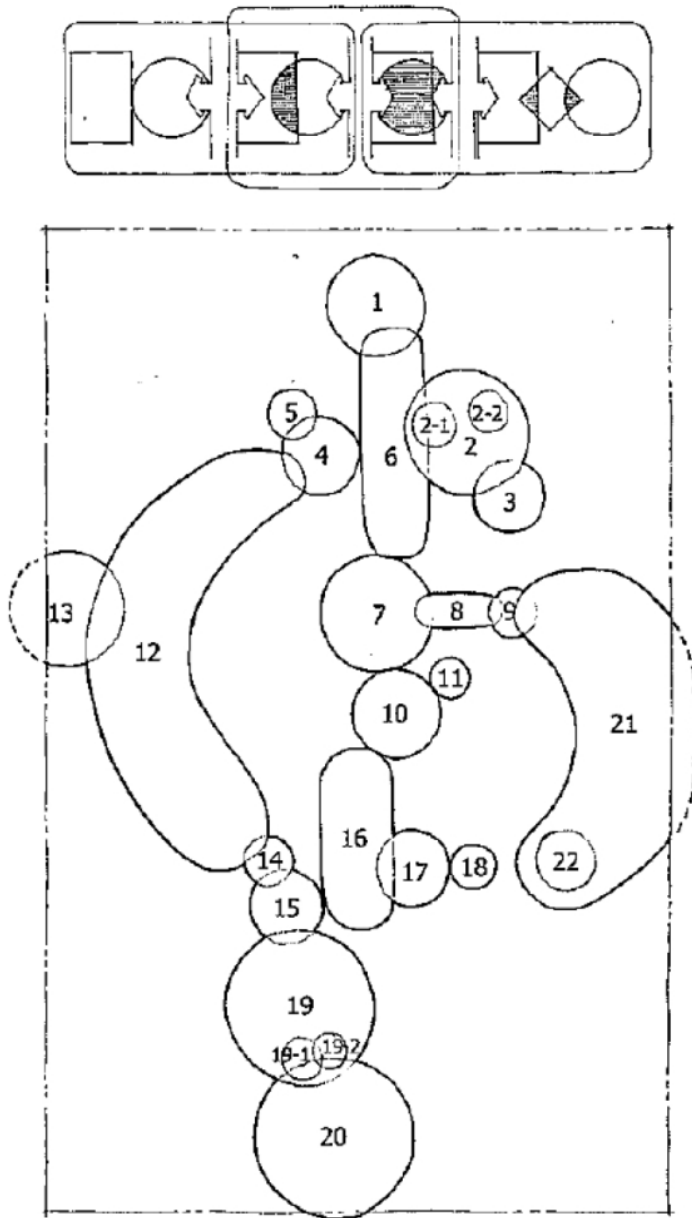
개별 장소에 대해서는 도시 차원에서의 장소 인식 조사 결과에서도 알 수 있듯이, ‘자연(적) 환경’은 도시민에게 매우 중요한 장소로 인식되고 있다. 따라서 생활권 내 자연(적)환경은 중요한 장소로서의 가능성이 매우 높을 것으로 판단된다. 생활권 내에 ‘자연(적) 환경’의 유무도 중요하지만, 이러한 자연(적) 환경이 거주민의 일상생활과 어떻게 유기적으로 연계시킬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심도있는 고민이 필요하다.

사람과 건축·도시환경의 유기적 연계는 거주민의 일상생활을 기반으로 이루어져야 할 필요가 있다. 세종시민들이 생활권 내에서 어떤 일상생활을 위해서 어떤

---

59) 행정중심복합도시 각 생활권별 지구단위계획,  
<https://www.happycity2030.or.kr/plan/?act=sub5>(접속일: 2019.11.29.)

건축·도시환경을 이용하가 있는지를 파악하고, 더 나아가 일상생활과 건축·도시환경 사이에서 어떤 의미들이 형성되고 내재되어 있는지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 이러한 의미들의 연결체계가 바로 장소의 네트워크이자 거주민의 '생활세계(lifeworld)'가 되며, 이는 다시 공간 네트워크로 해석될 수 있다.



[그림 5-2] 공간 네트워크 예시

출처 : 민병호(2006), 도시주거의 비판적 휴머니즘, 시공사, p.326, 그림9

이러한 공간 네트워크는 [그림 5-2]와 같이 공간의 인접, 공간간의 중첩, 여러 공간들의 통합 등으로 이루어질 수 있다. 이러한 공간들의 네트워크 속에서 거주민의 일상생활이 공간 내, 공간 간의 관계 속에서 다양하고 풍요로워질 수 있도록 생활권 내 장소가 형성될 필요가 있다. 세종시민이 ‘자연(적) 환경’을 중요한 장소라고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미루어 볼 때, 생활권이 ‘자연(적) 환경’을 중심으로 하여 일상생활에서 이용하는 공간들의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방향으로 조성될 필요가 있다.

## 2) 향후 연구과제

현 정부 출범 전 ‘연방제에 준하는 지방분권’을 공약으로 내세웠으며, 출범 후에는 자치분권 강화를 위해 국정과제와 로드맵을 마련하고 자치분권 종합계획 수립 등을 추진하였다. 또한 ‘제4차 국가균형발전 5개년계획’에서는 ‘사람’, ‘공간’, ‘산업’ 등 균형발전 3대 전략과 9대 핵심과제가 도출되었으며, 향후 5년간 국비 113조원 및 지방비 42조원 등 총 175조원을 투입할 계획이다.<sup>60)</sup> 이를 통해 2022년까지 수도권을 제외한 지역의 일자리 비중 50% 이상 달성을 유지하고, 농촌과 어촌 순수 유입 인구 90만 명 이상을 달성할 계획이다.<sup>61)</sup>

[표 5-2] 제4차 국가균형발전 5개년계획의 3대 전략 9대 핵심과제

전략	핵심과제	관계기관
사람 안정되고 품격있는 삶	지역인재-일자리 선순환 교육체계	교육부 등
	지역자산을 활용한 특색있는 문화·관광	문화부 등
	기본적 삶의 질 보장을 위한 보건·복지체계 구축	복지부, 여가부, 국토부 등
공간 방방곡곡 생기도는 공간	매력있게 되살아나는 농산어촌	농식품부, 해수부, 산업부 등
	도시재생 뉴딜 및 중소도시 재도약	국토부 등
	인구감소지역을 거주감소지역으로	행안부, 농식품부 등
산업 일자리가 생겨나는 지역혁신	혁신도시 시즌 2	국토부 등
	지역산업 혁신	산업부, 중기부, 과기정통부 등
	지역 유흥자산의 경제적 자산화	기재부, 산림청, 해수부 등

출처: 국가균형발전위원회·산업통상자원부 보도자료(2019년1월29일), “『지역이 강한 나라, 균형잡힌 대한민국』 실현에 2022년까지 175조원 이상 투자한다”, p.8.

60) 국가균형발전위원회·산업통상자원부 보도자료(2019년1월29일), “『지역이 강한 나라, 균형잡힌 대한민국』 실현에 2022년까지 175조원 이상 투자한다”, p.1.

61) 위의 자료, p.6.

위와 같이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정책이 추진되고 있는 상황에서, 지역 특성화 전략을 마련하는 것은 매우 의미 있는 일이다. 본 연구는 지역 특성화 전략 마련을 위한 지역 연구의 틀을 제시하고, 이에 따른 주요 쟁점들을 발굴하는 부분까지만 진행된 기초연구였기 때문에 다음과 같은 후속 연구과제를 제안하고자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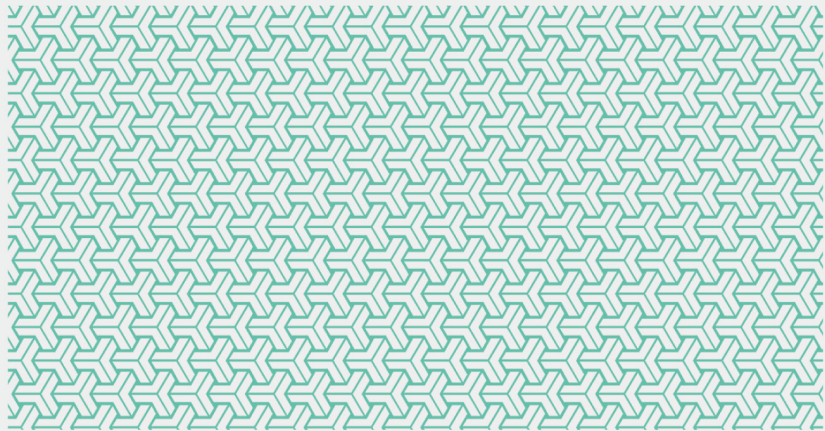
#### □ 거주민의 일상생활에 대한 심층연구 필요

본 연구에서 가장 비중을 두었던 부분은 ‘장소 인식’ 부분이었다. 세종특별자치시 거주민을 대상으로 어떤 건축·도시환경이 장소로 인식되고 있는지를 파악하였다. 하지만 구체적으로 거주민의 삶에 어떠한 의미를 주는 장소이며, 한 거주민의 일상생활 속에서 그 장소에서 영위하는 행동이 가지는 위상 등에 대해 면밀하게 조사하지 못하였다. 향후에는 거주민을 대상으로 어떤 일상생활 패턴을 가지고 있는지, 그 패턴 속에서 삶의 의미를 만들어가는 ‘중요한 행동’은 무엇이며, 그 행동을 위한 ‘중요한 장소’가 어디인지를 파악할 필요가 있다. 건축·도시환경을 이러한 중요한 장소들의 네트워크라고 볼 때, 먼저 거주민의 일상생활과 장소에 대한 심층연구가 필요하다.

#### □ 공간-장소 비교를 통한 장소만들기 구체화 필요

본 연구에서는 세종특별자치시 거주민이 중요하다고 인식하는 ‘장소’들을 조사하였을 뿐 구체적인 장소만들기에 대한 방안을 제시하지 못한 한계가 있다. 어떤 공간들은 위치, 규모, 속성 등이 유사함에도 불구하고 단순히 기능적 역할을 담당하거나 의미가 부여되지 못한 채 ‘공간’으로 인식되는 경우가 있는 반면, 거주민에게 삶의 의미가 부여되거나 부여하는 중요한 ‘장소’라고 인식되는 경우도 있다. 따라서 향후에는 장소와 공간의 비교 연구를 통해 장소만들기를 위한 구체적인 전략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 참고문헌



- 감미아·송민(2012), “텍스트 마이닝을 활용한 신문에 따른 내용 및 논조 차이점 분석”, 「지능정보연구」 제18권 제2호, pp.53-77.
- 건설교통부(2006), 「인간과 환경중심의 미래형 교통체계 구축방안」, 건설교통부.
- 고운문화재연구원(2018), 「세종 내판리(산39-2번지 일원) 대지조성사업부지 내 국비지원 문화재 지표조사 보고서」, 고운문화재연구원.
- 공주대학교 방재연구센터(2012), 「세종시 자전거 이용 활성화를 위한 전략수립 연구」,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 국립중앙도서관, 「여지도(輿地圖)3」, 간사지미상, 간사자미상, 영조 52(1776) 이후
- 국토연구원(2016), 「세종특별자치시 비전 2030 중장기발전 전략계획」, 세종특별자치시.
- 국토연구원(2010), 「세종시 발전안 및 법률개정방향」, 국토연구원.
- 국토정보맵, 「淸州203」, 1914, 일부.
- 권선정(2017), “한국의 전통보시 읍치를 통해 본 세종시의 지역역사지리”, 「문화역사지리」 제29권 제4호, pp.59-77.
- 권영상(2012), “도시계획의 새로운 이정표, 세종시 계획수립과정”, 「LHI Archives」 v.010, 토지주택연구원, pp.26-37.
- 김백영·김승욱·박해균·안상준·유승희·정재정(2009), 「도시공간의 형성 원리와 도시민의 삶」, 서울시립대학교 도시인문학연구소, 메이데이.
- 김성수·이준·이강대·김창범·박준환·박진경(2004), 「신행정수도 건설이 교통 및 물류체계에 미치는 영향」, 한국토지공사.
- 김양식(2017), 「지역과의 아름다운 동행-청주학 이야기」, 도서출판 해남.
- 김태영(2017), “세종학 정립, 어떻게 할 것인가?”, 「행복도시 착공 10주년, 세종시 출범 5주년 기념 심포지엄」,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세종특별자치시.
- 김학훈(2019), “한국 지역학 연구의 현황과 과제”, 「2019 세종학포럼 자료집」, 세종특별자치시·건축도시공간연구소, pp.13-18.
- 김혜천(2012),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세종시의 과제와 충청권의 상생발전」, 한국도시행정학회.
- 노영순·이상열(2018), 「지역쇠퇴에 대응한 지역학의 역할과 문화정책적 접근에 관한 연구」, 한국문화관광연구원.
- 대한건축학회(2007), 「행정중심복합도시 중심행정타운 조성 국제공모 연구 및 관리」,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 민병호(2006), 「도시주거의 비판적 휴머니즘」, 시공사.
- 민유기(2007), 「도시이론과 프랑스 도시사 연구」, 심산.
- 박상욱(2019), “세종학이란?”, 「2019 세종연합교양대학 ‘시민과 대학생이 함께 하는 지역학’ 자료집」, 세종특별자치시.
- 박상욱(2018), “세종학이란? 개념과 목적, 그리고 운영방향”, 「2018 세종연합교양대학 ‘세종학’ 자료집」, 세종특별자치시.

- 박원재(2009), “안동학 연구의 현황과 과제”, 『안동학연구』 No.8, pp.287-313.
- 박인규·전해식·한진희(2004), 『신행정수도 도시종합정보시스템 구축방안』, 대한주택공사.
- 비전문화유산연구원(2018), 『세종 대교리 228-9번지 일원 전원주택 조성부지 국비지원 문화재 지표조사 보고서』, 비전문화유산연구원.
- 성장환·정연우·이상준·유종훈(2014), 『세종시와 충청권의 상생발전방안 수립 연구』, 한국토지주택공사.
- 세종특별자치시·건축도시공간연구소(2019), 『2019 세종학 포럼 “새로운 실험의 무대 세종시, 삶의 장소로서 미래를 그리다.” 자료집』.
- 세종특별자치시(2018), 『세종형 도시재생, 청춘조치원 프로젝트 백서』, 세종특별자치시.
- 세종특별자치시(2018), 『시민주권특별자치시 행정수도 세종백서』, 세종특별자치시.
- 세종특별자치시(2017), 『2017 세종시 사회지표』, 세종특별자치시.
- 세종특별자치시(2014), 『2030 세종도시기본계획』, 세종특별자치시.
- 신행정수도연구단(2003), 『신행정수도건설 추진을 위한 기본구상 연구』, 건설교통부.
- 심경미(2015), “건축자산의 조사 및 활용을 위한 과제”, 『한국건축역사학회 2015년 3월 월례학술세미나 자료집』, pp.19-38.
- 심교언·조경훈·민범식(2015), “세종시의 지속가능한 발전 전략”, 『건축』 Vol.59 No.03, 대한건축학회, pp.21-25.
- 안용준(2017), 『세종시 공간정보시스템 구축 및 활용을 위한 기초연구』, 대전세종연구원.
- 염인섭(2012), 『세종시와 연계한 중부권 대도시권 육성 방향』, 한국도시행정학회.
- 오용준·홍경구(2015), “세종시 첫마을 지구단위계획에 대한 주민 만족도 평가”, 『대한건축학회 논문집 계획계』 v.31, n.01, pp.143-150.
- 오용준(2012), 『세종시와 주변지자체의 광역적 연계 발전 전략』, 국토연구원.
- 유원기(2018), “행복도시 미래비전과 발전전략”, 『행복도시 세종, 향후 10년의 비전 전문가 세미나』, 국토연구원.
- 에이앤씨출판 편집부(2006), 『월간 건축문화』 No.305, 에이앤씨출판.
- 이종민(2019), “세종시민의 일상생활과 장소인식”, 『세종학포럼 발제자료집』, pp.81-98.
- 정삼철(2019), “지역학 활성화의 동향과 미래발전 과제”, 『월간 공공정책』 194, 한국자치학회, pp.62-64.
- 정정숙(2014), 『지역문화 진흥을 위한 지역학 활성화 방안 연구』, 한국문화관광연구원.
- 정해조(1998), “지역연구의 연구방법(1)”, 『국제지역연구』 2권 2호, 『국제지역학회』, pp.317-334.
- 조규영·송창규·윤영모·이동혁·윤석범·양민선·유선철(2004), 『신행정수도 건설의 파급 효과와 균형발전효과 추정』, 한국토지공사.
- 조원준(2006), “‘지역학’ 접근에 관한 고찰”, 『일본어문학회』 32권 32호, pp.581-596.
- 조판기(2018), “행복도시 10년 평가와 광역권 발전방안”, 『행복도시 세종, 향후 10년의

비전 전문가 세미나 자료집, 국토연구원.

주택산업연구원(2006), 「행정중심복합도시 개발계획 전략연구과제-단계별 개발방향 및 관리방안」,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제주발전연구원(2011), 「제주학연구센터 운영 기본계획」, 제주특별자치도.

지남석(2018), 「세종시 도시재생지원센터의 효율적 운영방안」, 대전세종연구원.

지남석(2018), 「세종시 마을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정책 제언」, 대전세종연구원.

진영환·강태수·최영국·신동진·이승용(2004), 「신행정수도 건설추진을 위한 연구」, 대한주택공사.

충남연구원(2015), 「세종특별자치시 녹색성장 추진계획(2015-2019)」, 세종특별자치시.

충남테크노파크(2013), 「세종시 미래전략산업 발굴 연구」, 세종특별자치시.

(재)충청남도역사문화연구원(2017), 「세종민속문화유산 DB화 사업」, 세종특별자치시.

(재)충청남도역사문화연구원(2017), 「세종특별자치시 근현대 생활기록물 조사」, 세종특별자치시.

(재)충청남도역사문화연구원(2015), 「세종시 유교문화권 관광개발 기본계획 연구용역」, 세종특별자치시.

최성은·안용준·박치성(2018), 「세종시 인구 이동 특성과 정책방향 연구」, 대전세종연구원.

최원희(2012), “일제 식민지 근대도시 조치원의 출현요인, 도시체계상에서의 위상 및 도시내부구조 형성과정”, 『한국지리학회지』 vol.1, no.1, 통권 1호, pp.99-123.

최인철·최종안·최은수·이성하·김남희·이서진·이민하·권유리(2019), 「About H, 대한민국 행복 리포트 2019」, 21세기북스.

최재현(2005), “세계화 시대의 지역과 지역정체성 의미 고찰”, 『대한지리학회 2005년 춘계학술대회 자료집』, pp.159-160.

최진혁(2011), 「지방분권과 지역균형발전의 상징도시로서의 세종시와 사회통합 구현방안」, 충북연구원.

최희수(2016), 「세종시 국난극복사와 역사문화콘텐츠 활용」, 고려대학교 한국학연구소.

(주)케이엔지니어링 종합건축사사무소(2016), 「세종시 비도시지역 성장관리방안 수립」, 세종특별자치시.

한국도시설계학회(2007),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축물 미관기준 연구」,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한국지식경제진흥원 대전·충청지사(2014), 「세종전통시장 활성화방안 연구용역」, 세종특별자치시.

한국토지공사(2007), 「행정중심복합도시 경관7대 전략과제 종합보고서」,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한서영(2014), 「행정중심복합도시 도시형태의 형성과정에 관한 연구」, 서울시립대학교 건축대학원 박사학위 논문.

한성문화재연구원(2018), 「세종 신대리(395-1번지) 국비지원 문화재 지표조사 보고서」,



한국매장문화재협회.

홍성조·권일(2017), “행정중심복합도시 1단계 건설에 대한 전문가 IPA 평가”, 『한국지역 개발학회지』, Vol.29 No.5, pp.1-16.

홍익대학교 세종캠퍼스 산학협력단(2017), 「세종시 역사인물자원 발굴 및 설화콘텐츠 개발」, 세종특별자치시.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2007),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축물 미관기준 연구」, 행정중심 복합도시건설청.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2007), 「행정중심복합도시 개발계획 수립 연구」, 행정중심복 합도시건설청.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2007), 「행정중심복합도시 광역교통개선대책」, 행정중심복합 도시건설청.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2007), 「행정중심복합도시 통합이미지 형성방안」, 행정중심복 합도시건설청.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2006),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기본계획」, 건설교통부.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2006),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사업 개발계획」, 행정중심복합 도시건설청.

Min, B. & Lee, J.(2006), “Children’s neighborhood place as a psychological and behavioral domain”, 『Journal of Environmental Psychology』, Vol.26, pp.51-71.

Bollnow, O.(1967), “Lived-space”, [In N. Lawrence & D. O’ Connor(Eds.)], 「Readings in existential phenomenology」, Englewood Cliffs: Prentice Hall, pp.178-186.

Cresswell, T.(2012), 「Place : a short introduction」, [심승희 역, 「장소, 짧은 지리학 개론 시리즈」, 시그마프레스(원서출판 2004)].

Koppel, B. M.(1995), “Refugee or settlers?: area Studies, development studies and the future of asian studies”, 「East-West Center Occational Papers」, Education and Training Series No.1」, East-West Center.

Proshansky, H. M. & Fabian, A. K. & Kaminoff, R.(1983), “Place identity: Physical world socialization of the self”, 『Journal of Environmental psychology』 3, pp.57-83.

Stokols, D. & Shumaker, S. A.(1981), “People in places: A transactional view of settings”, [In J. Harvey(Ed.)], 「Cognition, social behavior and the environment」, Hillsadle, NJ: Erlbaum.

Seamon, D.(1982), “The phenomenological contribution to environmental psychology”, 『Journal of Environmental Psychology』, 2, pp.119-140.

국가균형발전위원회·산업통상자원부 보도자료, “「지역이 강한 나라, 균형잡힌 대한민국」 실현에 2022년까지 175조원 이상 투자한다”(2019.01.29.)

세종특별자치시 보도자료, “건축문화 선도도시 세종”(2018.5.15.)

통계청 보도자료, “2018년 출생통계(확정)”(2019.8.28.)

국가법령정보센터, <http://www.law.go.kr/>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법률」

「세종학 연구 및 진흥에 관한 조례」

국가통계포털, <http://kosis.kr/>

국립국어원 표준국어대사전 <https://stdict.korean.go.kr/>

국토정보플랫폼 국토정보맵, <https://map.ngii.go.kr/ms/map/NlipMap.do>

경향신문 홈페이지, <http://www.khan.co.kr/>

“세종 신도심 문화상업거리 ‘어반아트리움’ 조성 본격화” (2016.12.25.)

“세종호수공원, 놀거리 확충...편의시설도 확충” (2015.07.09.)

“세종시에 임대형 ‘대학 공동캠퍼스’ 생긴다.” (2015.04.26.)

“행정도시에 국내 최대 인공호수... 2012년까지 조성키로” (2009.04.13.)

빅카인즈 홈페이지, <https://www.kinds.or.kr/>

서울신문 홈페이지, <https://www.seoul.co.kr/>

“[한필원의 골목길 통신] 도시재생의 실마리, 문화유산”(2019.01.27)

세종특별자치시청 홈페이지, <https://www.sejong.go.kr/>

세종특별자치시 인재육성평생교육진흥원 홈페이지, <https://www.sjhle.or.kr/>

전남대학교 호남학연구원 홈페이지, <http://www.homun.or.kr/>

중앙일보 홈페이지, <https://joongang.joins.com/>

“이슈패키지 #국회이전 프로젝트”

“행복도시 해밀리 공동주택 설계공모 당선작 선정”(2016.12.05.)

젤리랩 홈페이지, <http://lab.newsjel.ly/>

카카오 홈페이지, <https://www.kakao.com/>

카카오같이가치 “마음날씨”

해안건축 홈페이지, <http://m.haeahn.com/>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홈페이지, <http://www.naacc.go.kr/>

행정중심복합 도시디자인 홈페이지, <https://www.happycity2030.or.kr/>

Google 홈페이지, <http://www.google.com/>

JTBC 뉴스 홈페이지, <http://news.jtbc.joins.co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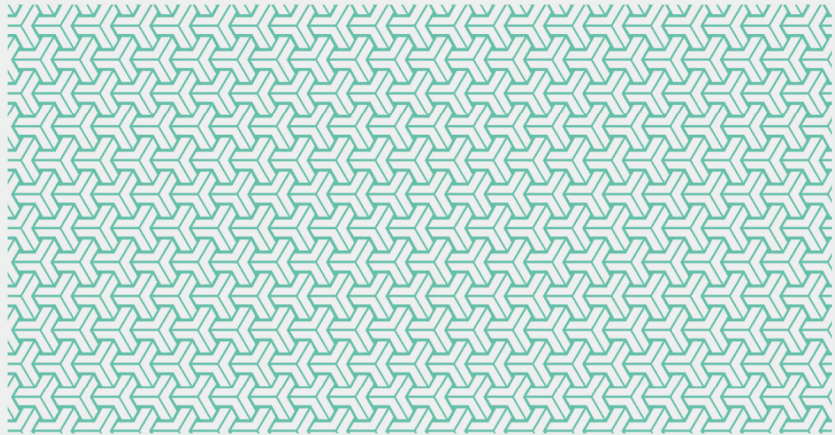
KBS 뉴스 홈페이지, <http://news.kbs.co.kr/>

KNU 한국어 감성사전, <https://github.com/park1200656/KnuSentiLex>

CITÉ DE L'ARCHITECTURE & DU PATRIMOINE, <https://www.citedelarchitecture.fr/fr>

University of Pennsylvania, <https://www.upenn.edu/>

# 부록. 세종시 주민 장소인식조사 설문조사지



이 조사에 조사된 모든 내용은 통계목적 이외에는 절대로 사용할 수 없으며 그 비밀이 보호되도록 통계법(제33조)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ID

-

## 세종시 주민의 장소 인식 및 여가활동 참여행태 조사

안녕하십니까?

건축도시공간연구소(AURI)는 국무총리실 산하의 정책연구기관입니다.

건축도시공간연구소에서는 세종시 주민의 장소 및 공간에 대한 인식과 여가활동 참여 행태를 파악하여 세종시의 정체성을 확립하고 지역 특성화 전략을 마련하기 위한 본 조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본 설문지의 응답 내용은 통계 처리되며, 연구목적 이외에는 어떤 다른 용도로도 사용되지 않습니다. 작성하여 주신 내용은 연구에 매우 귀중한 자료가 되오니 바쁘시더라도 소중한 기초자료가 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설문지는 익명으로 처리되며 통계법 제33조(비밀의 보호)에 의거하여 비밀이 엄격히 보장됨을 알려드립니다.

2019년 9월

국무총리실 산하

건축도시공간연구소 공간문화연구단

• 설문조사에 대해 문의사항이 있으실 경우 아래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 담당자 : 박해정 연구원 (☎ 044-417-9824)

· 주 소 : 세종특별자치시 절재로 194(어진동, 중앙타운), 7층 건축도시공간연구소

### SQ. 응답자 선정 질문

SQ1. 귀하께서 현재 거주하고 계신 지역은 어디입니까?

1) 세종시 신도시 (건설지역)	한솔동, 도담동, 아름동, 종촌동, 고운동, 보람동, 새롬동, 대평동, 소담동
2) 세종시 구도심 (건설지역 외)	조치원읍, 연기면, 연동면, 부강면, 금남면, 장군면, 연서면, 전의면, 전동면, 소정면
3) 세종시 이외 지역	→ 면접중단

SQ2. 귀하의 연령은 만으로 어떻게 되십니까? (출생연도: ) • 19세 이하, 60세 이상 면접중단

1) 20대      2) 30대      3) 40대      4) 50대

SQ3. 귀하의 성별은 무엇입니까?

1) 남자      2) 여자

## A. 세종시 거주 현황

A1. 세종시에 거주하신지는 얼마나 되셨습니까?

- |           |             |           |
|-----------|-------------|-----------|
| ① 3개월 미만  | ② 3개월~1년 미만 | ③ 1~2년 미만 |
| ④ 2~5년 미만 | ⑤ 5년~10년 미만 | ⑥ 10년 이상  |

A2. 세종시에서의 거주 방식은 다음 중 무엇입니까?

- |                     |                  |
|---------------------|------------------|
| ① 평일에만 거주 → A2-1    | ② 주말에만 거주 → A2-1 |
| ③ 주중, 주말 계속 거주 → A3 |                  |

A2-1. 그렇다면 세종시 이외, 거주지는 어디입니까?

- |      |      |      |      |
|------|------|------|------|
| ① 서울 | ② 부산 | ③ 대구 | ④ 인천 |
| ⑤ 광주 | ⑥ 대전 | ⑦ 울산 | ⑧ 경기 |
| ⑨ 강원 | ⑩ 충북 | ⑪ 충남 | ⑫ 전북 |
| ⑬ 전남 | ⑭ 경북 | ⑮ 경남 | ⑯ 제주 |

A3. 귀하는 정기적으로 통학이나 출퇴근하는 곳이 있습니까?

- |             |           |
|-------------|-----------|
| ① 있다 → A3-1 | ② 없다 → B1 |
|-------------|-----------|

A3-1. 귀하의 학교 또는 근무지 위치는 어디입니까?

- |              |                   |
|--------------|-------------------|
| ① 세종시 → A3-3 | ② 세종시 외 지역 → A3-2 |
|--------------|-------------------|

A3-2. 귀하의 학교 또는 근무지는 어디십니까?

- |      |      |      |      |
|------|------|------|------|
| ① 서울 | ② 부산 | ③ 대구 | ④ 인천 |
| ⑤ 광주 | ⑥ 대전 | ⑦ 울산 | ⑧ 경기 |
| ⑨ 강원 | ⑩ 충북 | ⑪ 충남 | ⑫ 전북 |
| ⑬ 전남 | ⑭ 경북 | ⑮ 경남 | ⑯ 제주 |

A3-3. 세종시에서 통학 또는 근무하신지는 얼마나 되었습니까?

- |           |             |           |
|-----------|-------------|-----------|
| ① 3개월 미만  | ② 3개월~1년 미만 | ③ 1~2년 미만 |
| ④ 2~5년 미만 | ⑤ 5년~10년 미만 | ⑥ 10년 이상  |
- 응답 후 B1로 이동

## B. 장소 인식 특성

세종시 내에서 귀하께서 자주 가시는 장소, 의미 있는 장소, 남에게 소개해 주고 싶은 장소 등이 거주지나 근무지에서 얼마나 멀리 떨어져 있는지 측정하기 위하여 질문 드리는 것이니, 정확히 응답하여 주십시오.

B1. 귀하의 현재 거주지는 어디입니까? 정확한 건물명으로 말씀해 주십시오.

응답예시	OO아파트, OO오피스텔	세종특별자치시 가림로 255-21
------	---------------	--------------------

B2. 귀하의 학교 또는 근무지는 어디입니까? 정확한 건물명으로 말씀해 주십시오.

응답예시	세종중앙타운	세종특별자치시 절재로 194
------	--------	-----------------

B3. 세종시에 위치한 장소 중, 평소 귀하께서 가장 자주 가는 장소는 어디입니까?

정확한 지명으로 말씀해 주십시오. (거주지와 근무지 제외)

응답예시	(1)헬스장(팀운집 세종점)	세종특별자치시 절재로 194 중앙타운 803호
	(2)홈플러스(세종점)	세종특별자치시 절재로 154
	(3)호수공원	세종특별자치시 연기면 세종리 114-380

B3-1. 말씀해 주신 장소는 어떤 목적으로 자주 방문하시나요? 자유롭게 말씀해 주십시오.

응답예시	B3 (1) 장소 제시	운동, 건강
	B3 (2) 장소 제시	장보기, 구경
	B3 (3) 장소 제시	산책

B3-2. 말씀해 주신 장소를 선택하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자유롭게 말씀해 주십시오.

응답예시	B3 (1) 장소 제시	근무지와 가까워서
	B3 (2) 장소 제시	가장 가까운 대형마트여서, 접근하기 편리해서
	B3 (3) 장소 제시	건강을 위해, 자연환경이 좋아서

B4. 세종시에 위치한 장소 중, 귀하에게 중요하거나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는 장소는 어디입니까?  
정확한 지명으로 말씀해 주십시오. (거주지와 근무지 포함)

응답예시	(1)호수공원	세종특별자치시 연기면 세종리 114-380
	(2)에브리선데이(봉암점)	세종특별자치시 연서면 봉암길 41
	(3)	

B4-1. 말씀해 주신 장소가 중요하거나 의미 있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자유롭게 말씀해 주십시오.

응답예시	B4 (1) 장소 제시	추억, 그냥 좋아서
	B4 (2) 장소 제시	추억, 분위기가 좋아서
	B4 (3) 장소 제시	

B4-2. 이 장소에서는 주로 무엇을 하십니까? 자유롭게 말씀해 주십시오.

응답예시	B4 (1) 장소 제시	산책, 운동
	B4 (2) 장소 제시	커피를 마심, 지인과 이야기를 나눔
	B4 (3) 장소 제시	

B5. 세종시에 위치한 장소 중, 지인에게 소개하고 싶은 장소는 어디입니까?  
정확한 지명으로 말씀해 주십시오. (거주지와 근무지 포함)

응답예시	호수공원	세종특별자치시 연기면 세종리 114-380
	정부세종청사	세종특별자치시 다솜2로 94
	세종중앙타운	세종특별자치시 절재로 194

B5-1. 이 장소를 지인에게 소개하고 싶은 이유는 무엇입니까? 자유롭게 말씀해 주십시오.

응답예시	B5 (1) 장소 제시	세종의 랜드마크라서, 자연환경이 좋아서
	B5 (2) 장소 제시	세종의 랜드마크라서
	B5 (3) 장소 제시	내가 일하는 곳이어서, 식당이 몰려있어서



앞서 응답해 주신 귀하께서 자주 가시는 장소, 의미 있는 장소, 남에게 소개해 주고 싶은 장소, 각각에 대해 평소 방문 행태를 여쭙보겠습니다.  
성실한 응답을 부탁드립니다.

〈 각 장소별 방문 행태 〉

장소	(B6) 빈도	(B7) 요일	(B8) 시간	(B9) 머무는 시간	(B10) 동반자	(B11) 이동수단	(B12) 이동시간
예시	1~5	2	4	2	1	5	1
자주 가는 곳	헬스장						
	홈플러스						
	호수공원						
의미 있는 곳	호수공원						
	에브리선타이						
소개 하고 싶은 곳	호수공원						
	정부새종청사						
	새종중앙타운						

〈 Prog : 응답한 장소 횟수만큼 반복 질문 〉

B6. 귀하께서는 (B3, B4, B5 장소명)에 얼마나 자주 방문하십니까? 가장 응답하기 편한 단위를 선택하여 방문 횟수를 응답하여 주십시오.

① 1주일 평균	( )회
② 1달 평균	
③ 1년 평균	
④ 방문한 적 없음 → C1	B5. 장소는 비제시

B7. (B3, B4, B5 장소명)에는 주로 언제 방문하십니까?

- ① 매일 방문                      ② 주중에 방문                      ③ 주말에 방문  
④ 주중, 주말 아무 때나                      ⑤ 기타( )

B8. (B3, B4, B5 장소명)에 주로 방문하는 시간대는 언제입니까?

- ① (자정)00:00 ~ 02:00                      ② (새벽)02:00 ~ 04:00                      ③ (새벽)04:00 ~ 06:00  
④ (아침)06:00 ~ 08:00                      ⑤ (오전)08:00 ~ 10:00                      ⑥ (오전)10:00 ~ 12:00  
⑦ (오후)12:00 ~ 14:00                      ⑧ (오후)14:00 ~ 16:00                      ⑨ (오후)16:00 ~ 18:00  
⑩ (저녁)18:00 ~ 20:00                      ⑪ (저녁)20:00 ~ 22:00                      ⑫ (저녁)22:00 ~ 24:00



B9. (B3, B4, B5 장소명)에 머무는 시간은 얼마나 되십니까? ▶-----시간-----분

B10. (B3, B4, B5 장소명)에는 주로 누구와 함께 방문하시나요?

- |                        |                 |
|------------------------|-----------------|
| ① 혼자서                  | ② 직장 동료와 함께     |
| ③ 친구(연인 포함)와 함께        | ④ 가족(친척 포함)과 함께 |
| ⑤ 동호회(종교단체 등 포함)회원과 함께 | ⑥ 기타(_____)     |

B11. (B3, B4, B5 장소명)까지는 어떻게 가시나요?

- |       |       |             |
|-------|-------|-------------|
| ① 걸어서 | ② 자전거 | ③ 버스        |
| ④ 택시  | ⑤ 자가용 | ⑥ 기타(_____) |

B12. (B3, B4, B5 장소명)까지 (B11 교통편)으로 가시는데 얼마나 걸리시나요?

평소 출발지를 기준으로 소요되는 시간을 말씀해 주십시오.

▶-----시간-----분

## C. 여가활동 참여 실태

C1. 귀하는 여가시간에 주로 무엇을 하면서 시간을 보내시나요?

가장 많은 시간을 보내는 순서대로 최대 5개까지 선택하여 주십시오.

▶ 1순위-----, 2순위-----, 3순위-----, 4순위-----, 5순위-----

### 〈 여가활동 유형 보기 〉

<b>A. 문화예술관람활동</b>			
<input type="checkbox"/> 1. 전시회 관람 (미술, 사진, 건축, 디자인 등)	<input type="checkbox"/> 24. 골프	<input type="checkbox"/> 56. 낚시	
<input type="checkbox"/> 2. 박물관 관람	<input type="checkbox"/> 25. 수영	<input type="checkbox"/> 57. 홈페이지/블로그 관리	
<input type="checkbox"/> 3. 음악연주회 관람 (클래식, 오페라 등)	<input type="checkbox"/> 26. 윈드서핑, 수상스키, 스킨스쿠버 다이빙, 레프팅, 요트	<input type="checkbox"/> 58. 인터넷 검색/채팅/1인 미디어 제작/SNS	
<input type="checkbox"/> 4. 전통예술공연 관람 (국악, 민속놀이 등)	<input type="checkbox"/> 27. 스노보드, 스키 등	<input type="checkbox"/> 59. 게임온라인/모바일/콘솔게임 등)	
<input type="checkbox"/> 5. 연극공연 관람(뮤지컬 포함)	<input type="checkbox"/> 28. 아이스케이트, 아이스하키 등	<input type="checkbox"/> 60. 보드게임/퍼즐/큐브 맞추기	
<input type="checkbox"/> 6. 무용공연 관람	<input type="checkbox"/> 29. 헬스(보디빌딩)/에어로빅	<input type="checkbox"/> 61. 바둑/장기/체스	
<input type="checkbox"/> 7. 영화관람	<input type="checkbox"/> 30. 요가/필라티스/태보	<input type="checkbox"/> 62. 점필(경마, 경륜, 카지노, 카드놀이, 고스톱, 마작 등)/복권구입	
<input type="checkbox"/> 8. 연예공연 관람 (쇼, 콘서트, 미술 쇼 등)	<input type="checkbox"/> 31. 배드민턴/줄넘기/댄스·스트레칭 체조/올라후프	<input type="checkbox"/> 63. 쇼핑/외식	
<b>B. 문화예술참여활동</b>			
<input type="checkbox"/> 9. 문학행사참여	<input type="checkbox"/> 32. 육상/조깅/속보	<input type="checkbox"/> 64. 음주	
<input type="checkbox"/> 10. 글짓기/독서토론	<input type="checkbox"/> 33. 격투 스포츠(태권도, 유도, 합기도, 검도, 권투 등)	<input type="checkbox"/> 65. 독서/안화책(점토) 보기	
<input type="checkbox"/> 11. 미술활동(그림, 서예, 조각, 디자인 도예, 안화 등)	<input type="checkbox"/> 34. 댄스스포츠/탱고, 왈츠, 자이브 왕보, 볼카, 차차차 등)	<input type="checkbox"/> 66. 미용(피부관리, 헤어관리, 네일아트, 마사지, 성형 등)	
<input type="checkbox"/> 12. 악기연주/노래교실	<input type="checkbox"/> 35. 사이클링/산악자전거	<input type="checkbox"/> 67. 어학·기술·자격증 취득 공부· 학원 등 이용	
<input type="checkbox"/> 13. 전통예술 배우기 (사물놀이, 줄타기 등)	<input type="checkbox"/> 36. 인라인스케이트	<input type="checkbox"/> 68. 이색/테마카페 체험 (방탈출, VR, 냅사카페 등)	
<input type="checkbox"/> 14. 사진촬영(디지털카메라 포함)	<input type="checkbox"/> 37. 승마, 임백등반, 칠안삼종경기, 서바이벌	<input type="checkbox"/> 69. 원예 (화분, 화단가꾸기 등)	
<input type="checkbox"/> 15. 춤/무용(발레, 한국무용, 현대무용, 방송댄스, 스트릿댄스, 비보잉 등)	<b>E. 관광활동</b>		
<b>C. 스포츠관람활동</b>			
<input type="checkbox"/> 16. 스포츠 경기 직접관람- 경기장 방문관람(축구, 야구, 농구, 배구 등)	<input type="checkbox"/> 38. 문화유적방문(고궁, 절, 유적지 등)	<input type="checkbox"/> 70. 산책 및 걷기	
<input type="checkbox"/> 17. 스포츠 경기 간접관람- TV, DMB를 통한관람 (축구, 야구, 농구, 배구 등)	<input type="checkbox"/> 39. 자연명승 및 풍경 관광	<input type="checkbox"/> 71. 목욕/사우나/찜질방	
<input type="checkbox"/> 18. 격투 스포츠 경기관람(태권도, 유도, 합기도, 검도, 권투 등)	<input type="checkbox"/> 40. 상림욕	<input type="checkbox"/> 72. 낚시	
<input type="checkbox"/> 19. 온라인게임 경기 현장관람 (e-스포츠 경기 포함)	<input type="checkbox"/> 41. 국내여행	<input type="checkbox"/> 73. TV시청(DMB/PTV 포함)	
<b>D. 스포츠참여활동</b>			
<input type="checkbox"/> 20. 농구, 배구, 야구, 축구, 축구	<input type="checkbox"/> 42. 해외여행	<input type="checkbox"/> 74. 비디오/DVD/VCD 시청	
<input type="checkbox"/> 21. 테니스, 소위시	<input type="checkbox"/> 43. 소풍/야유회	<input type="checkbox"/> 75. 라디오/팟캐스트 청취	
<input type="checkbox"/> 22. 당구·포켓볼	<input type="checkbox"/> 44. 온천/해수욕	<input type="checkbox"/> 76. 음악 감상	
<input type="checkbox"/> 23. 볼링, 탁구	<input type="checkbox"/> 45. 유량선 타기	<input type="checkbox"/> 77. 신문/잡지보기	
<b>F. 취미오락활동</b>			
<input type="checkbox"/> 40. 수집활동(스크랩 포함)	<input type="checkbox"/> 46. 테마파크가기/놀이공원/동물원/ 식물원 가기	<input type="checkbox"/> 78. 아무것도 안 하기	
<input type="checkbox"/> 50. 생활공예(십자수, 비즈공예, DIY, 꽃꽂이 등)	<input type="checkbox"/> 47. 지역축제 참가	<b>H. 사회 및 기타 활동</b>	
<input type="checkbox"/> 51. 요리하기/다도	<input type="checkbox"/> 48. 자동차 드라이브	<input type="checkbox"/> 79. 사회봉사활동	
<input type="checkbox"/> 52. 반려동물 돌보기	<input type="checkbox"/> 80. 종교활동		
<input type="checkbox"/> 53. 노래방 가기	<input type="checkbox"/> 81. 클럽/사이드/디스코/카바레 가기		
<input type="checkbox"/> 54. 인터넷에집, 자동차 등)	<input type="checkbox"/> 82. 가족 및 친지방문		
<input type="checkbox"/> 55. 등산	<input type="checkbox"/> 83. 집담/통화하기/문자보내기 (모바일메신저 메시지 사용 포함)		
<input type="checkbox"/> 84. 계모임/동창회/사교(파티)모임			
<input type="checkbox"/> 85. 이성교제(데이트)/미팅/소개팅			
<input type="checkbox"/> 86. 친구만남/동호회 모임			
<input type="checkbox"/> 87. 위에서 분류되지 않은 기타 여가활동			

앞서 응답해 주신 각각의 여가활동에 대해 평소 행태를 여쭙보겠습니다.  
성실한 응답을 부탁드립니다.



## DQ. 응답자 특성

DQ1. 귀하의 직업은 어떻게 되십니까?

- ① 대학(원)생
- ② 농업.수산업.축산업
- ③ 자영업(종업원 9명 이하의 소규모 업소 주인 및 가족 종사자, 약국, 개인택시운전자)
- ④ 판매직.서비스직(상점 점원, 세일즈맨, 보험설계사 등)
- ⑤ 기능공.숙련공(중장비.트럭 운전사, 전자.가전제품A/S 기술자, 숙련공 등)
- ⑥ 일반직업직(토목 관계의 현장 작업, 청소, 수위, 육체노동 등)
- ⑦ 사무직.기술직(일반회사 사무직, 기술직, 유치원.학교 교사, 회사에 소속된 웹디자이너.컴퓨터 프로그래머 등)
- ⑧ 경영관리직(5급 이상의 고급공무원, 교장, 기업체 부장 이상의 직위 등)
- ⑨ 전문직(대학교수, 변호사, 의사, 회계사, 종교인, 언론인, 예술가, 고소득 프리랜서 등)
- ⑩ (전업)주부
- ⑪ 무직/은퇴
- ⑫ 기타( )

DQ2. 귀하는 결혼을 하셨습니까?

- ① 미혼 → DQ3으로
- ② 기혼, 자녀 없음 → DQ3으로
- ③ 기혼, 자녀 있음 → DQ2-1로

DQ2-1. 귀하의 자녀는 모두 몇 명입니까? ▶ \_\_\_\_\_명

DQ2-2. 그럼, 막내 자녀는 다음 중 어디에 해당하십니까?

- ① 영아(4세 미만)
- ② 유아(5세~7세)
- ③ 초등학교
- ④ 중학생
- ⑤ 고등학생
- ⑥ 성인자녀

DQ3. 현재 함께 거주하시는 가족(가구원)은 모두 몇 명입니까? 가족이지만 따로 살고 계신 분은 제외하고 말씀하여 주십시오. ▶ 본인 포함 총 \_\_\_\_\_명

DQ4. 현재 함께 거주하고 계신 가족 구성원은 다음 중 어디에 해당하십니까?

- ① 1인 가구(본인 혼자)
- ② 부부 가구
- ③ 2세대 가구(부부+자녀)
- ④ 3세대 가구(부부+자녀+조부모)
- ⑤ 기타

DQ5. 귀하는 차량을 소유하고 계십니까?

- ① 있음
- ② 없음

DQ6. 실례지만, 귀하를 포함한 가족 전체의 월평균 가계소득은 얼마나 되십니까?

(보너스, 임대소득 등 기타 수입 포함)

- ① 100만원 미만
- ② 100~200만원 미만
- ③ 200~300만원 미만
- ④ 300~400만원 미만
- ⑤ 400~500만원 미만
- ⑥ 500~600만원 미만
- ⑦ 600~700만원 미만
- ⑧ 700~800만원 미만
- ⑨ 800만원 이상

♣ 끝까지 응답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좋은 자료로 활용하겠습니다. ♣